



2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2호

(루계 제 700 호)

## 차례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의 대강 .....	4
정일봉에 태양 솟아 .....	6
축원 .....	6
백두산바람 .....	7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서 가자 .....	9
비상작전 .....	10
류다른 비상소집 .....	18
정일봉은 웨친다 .....	19
철령이여 .....	19
아뢰임 .....	20
오성산 .....	20
야전차바퀴자욱 .....	21
장군님과 아이 .....	21
김정일, 그이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	21
그리움의 메아리 .....	22

너와 나 한마음 .....	22
병사소식 .....	23
사랑은 두 심장을 잇네 .....	23
아, 래일이면 .....	23
태양의 밝은 빛은 이남땅 멀리에도 .....	24
달마중 가세 .....	28
홍남의 환희 .....	29
그리움의 세월과 꿈같은 행복 .....	29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데... ..	29
꿈이 아닙니다 .....	30
홍남은 환희의 그날에 살고있다! .....	30
상봉과 작별에 대한 시 .....	31
실탄사격장에서 .....	32
정 일 봉 .....	33
우리 문학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지침 .....	40
《조선문학》잡지 700 호를 내면서 .....	42
아오라지나루 .....	43
승리의 기록 .....	43
그날 할아버지 .....	44
큰 거리 .....	44
길 .....	45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영광에 찬 .....	46
로정을 돌이켜보며 .....	46
생활과 투쟁의 교사, 창작의 요람 《조선문학》잡지 .....	47
《조선문학》잡지는 문학의 저수지이며 얼굴 .....	49
《조선문학》잡지 발행 700 호에 부치여 .....	50

나의 추억속에 깃든 영광.....	52
《조선문학》 잡지는 나의 교사.....	53
《조선문학》과 평론의 발전 .....	54
《조선문학》을 펼치다 .....	56
선군령장에 대한 매혹과 통일주제문학의 정서 .....	56
《행복의 문》 .....	59
론증 .....	60
만년성벽 .....	70
고구려시기의 쇄뇌(기계활).....	79
독도 .....	80

##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의 대강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발표 40돐을 맞으며-

선군령장이시며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던 첫 시기인 주체55(1966)년 2월 7일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새롭게 건설할 우리 혁명문학의 총적방향과 과업, 창작실천적요구와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변의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건설과정에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작품이 일정하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문학을 주체가 선 새형의 혁명문학으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 수령을 형상하는 새형의 혁명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바로 지금까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놓치고있던 이 중심고리를 찾아내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력사를 심중히 검토총화하시고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고 주체가 선 새형의 혁명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식의 혁명문학건설의 총적방향이였다.

발생초창기부터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사회혁명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지위가 확고한것으로 되고 로자간의 투쟁이 더욱 치렬해지던 제국주의단계에 이르러 당적문학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아직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갖추어야 할 진면모를 완성한것은 아니였다.

빠리콤폴문학으로부터 시작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고리인 수령형상창조를 놓쳤거나 도외시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은 이러저러하게 창조되어왔지만 그것은 당의 문예정책적인 문제로 되지 못하고 수령형상론은 문예리론체계에서 의연히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창작되는 작품도 량적으로 적었고 일부 작품을 내놓고는 전반적으로 그 질이 높지 못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은 이러저러하게 창조되어왔지만 그것은 당의 문예정책적인 문제로 되지 못하고 수령형상론은 문예리론체계에서 의연히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면 마땅히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작가동맹의 중심과업으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 시기 수령형상창조를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내세우게 된것은 혁명적현실의 성숙된 요구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일뿐아니라 새로운 혁명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 및 그 임무와 관련되어 있었다.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그 지위로 보아 마땅히 인간학의 정수로 되여야 한다.

그만큼 창작실천상요구도 높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었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품모의 위대성이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력사상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이 땅우에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겨오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참된 혁명적인간의 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귀감이시다.

우리 문학은 응당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이렇듯 특출한 위인적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을 잘하자면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지난 시기처럼 단편적인 내용을 담은 서정시나 단편소설이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전모를 담고 수령님의 위인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내야 한다.

대작을 쓴다고 하여 전기식으로 쓰거나 년대기나 일대기식으로 쓰지 말며 구성형식과 형상방법도 새롭게 연구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수령형상창조를 위한 경험과 지식축적단계를 설정하는 문제, 수령을 형상하는 혁명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는 문제, 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형상창조를 위한 전문창작집단을 내오는 문제 등 수령형상문학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은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주체의 문예관을 확립하기 위한 세계관적기초로, 수령형상창조를 위한 불멸의 리정표로, 예술적형상화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어언 40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문학, 주체의 면모를 완성한 문학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식의 혁명문학건설에 영원불멸할 자욱을 남기었다.

고전적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는 우선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주체문학의 최고전형인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전혀 새로운 혁명문학으로 되게 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역사적로작이다.

이 로작의 발표를 계기로 모든 작가들속에서는 수령형상창조를 필생의 창작과제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과 혁명활동력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기 위한 창작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수많은 장편소설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련속 창작발표된것을 비롯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작품이 활발히 창작된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을 우리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총서 《불멸의 향도》의 출현은 문학형식발전에서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창조의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소설뿐만아니라 시문학분야에서도 련속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와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러》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집들과 정기출판물들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찬하는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발표되고있어 수령형상송가의 전성기를 펼치고있다.

영화문학, 혁명전설을 비롯한 다른 모든 문학형태들에서도 수령형상창조를 첫째가는 과제로 내세우고 풍만한 결실을 거두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4.15문학창작단의 조직 역시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문학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4.15문학창작단이 조직됨으로써 수령형상창조사업은 보다 새로운 높이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모든 사실은 수령형상창조사업이 우리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되게 되었으며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문학으로 되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준다.

고전적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는 우리 문학의 주체적면모를 완성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로작은 수령형상을 우리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선포함으로써 형상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주체적관점을 확립하는데서도 지침으로 되었다.

선행한 사회주의문예리론의 형상론에서는 새사회건설을 지향하는 혁명가의 형상을 기본적인 시대전형으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위인형상도 일반전형론에 융해시키는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도 개인형상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하지만 로작에서는 우리 수령님을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참된 혁명적인간의 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전설적영웅, 혁명의 걸출한 수령으로 칭송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주체적인 수령형상론을 확립하는데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로작은 형식형태의 탐구리용에서도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계발시켜주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를 문학작품에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려면 구성형식과 형상방법도 새롭게 탐구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우리 식의 수령형상총서형식이 탐구되어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와 같은 인류문학사가 전례를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소설문학형식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고전적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는 작가들로 하여금 수령형상창조에서 독창적인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여나갈수 있는 신심과 배짱, 만능의 열쇠를 쥐여주었다.

로작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에서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고무적기치로 된다.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문학발전사에 선군혁명문학건설이라는 새로운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당의 은정속에 《조선문학》잡지 700호를 발간하게 된 자랑찬 로정을 더듬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에 한몸바쳐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수령형상창조는 우리 작가들의 한생의 목표, 필생의 과제이다.

우리모두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나아감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천재규

# 정일봉에 태양 솟아

오필천

얼마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봄인가  
정일봉에 태양솟아  
소백수눈석이가 시작되던 그 봄부터  
예순네번째 찾아온 봄

10대에 룡남산의 맹세를 지니시고  
20대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시고  
천만대군을 이끄시며  
무적강군을 키우시며 오늘에 오신  
우리 당 총비서이시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돌이켜보면  
얼마나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가  
이 땅우에 흘러왔던가

천만리를 내다보시며 작전을 펼치신  
장군님의 예지와 지략이 승리한  
매혹의 날과 달  
제국주의도전자들을 짓부시고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이 승리한

천출명장의 해해년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노라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기여주신  
인덕의 화신이 꽃피운 사랑의 력사에  
강성대국의 성공탑을 세워가시는  
선군혁명승리의 자욱자욱에

우리의 장군님은  
인류사의 그 어느 수령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정치의 대원로  
인덕의 대성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21세기를  
위대한 세기로 빛내여가는  
성스러운 날과 달들은  
태양의 력사로 영원불변하리니

아 이 땅 이 하늘 온 세계가  
한목소리로 터치노라  
불멸의 력사우에 빛나는  
영원한 우리 태양 만세!  
김정일동지 만만세!

## 축 원

채동규

어머니의 고생  
다 아는 자식이 없듯  
내 어이 다 헤아리랴  
조국위해 바치시는  
아버이장군님의 천만가지 헌신을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시작되고  
전쟁의 불길속에서 흘러간 어린시절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산다 하시며  
어깨에 피지도록 목고채도 메시고  
눈굽이 저리도록 탐구의 밤 지새우시던  
사연깊은 그 나날들...

수령님을 잃은 모진 슬픔

의지의 힘으로 이겨내시며  
이 땅의 천만시련 한가슴에 안으시고  
장군님 헤치신  
아 선군장정 천만리여!

이 길에서 맞으신 눈비  
산을 이루리 바다를 이루리  
이 길에서 그이의 옷자락은  
전호가 흠뻑새에 절고  
자신의 후더운 땀으로 젖었다

사랑하는 병사들이 지켜선  
이 나라 불패의 성새를 다져올리시느라  
정든 인민이 만연토록 살게 될



강성대국 큰 집의 대들보를 얹으시느라  
찬눈길도 많이 헤치시고  
한모금 샘물로 끼니도 대신하시며  
어느 하루인들 편히 주무셨으랴  
어느 한시인들 일감을 놓으셨으랴

나는 그이의 인정과 인덕에 매혹되어  
시가의 붓을 든 전사!  
인생의 먼 길에  
내 때로 지칠 때 있어도  
오늘도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면  
절로 죄스러워지고 절로 이 가슴 달아오르고...

아버이가 고생할 때  
발편잠 자는 자식없듯이  
그이께 드릴 한순간의 휴식을 위해  
더 열정껏 내 심장 불태우리  
그이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심혈의 노래들을 더 많이 지으리  
애국의 진한 땀 더 많이 쏟으리

그렇다, 천만군민이어  
자식된 도리지켜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자  
오늘을 옛말하는 먼 후날에도  
힘한 길 많이도 걸으신 그이의 안녕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땃땃이 추억할수 있도록!

자식위한 고생 락으로 여기는 어머니처럼  
한평생 조국과 인민위해  
헌신의 길 웃으며 가시는 장군님께  
2월의 축원을 삼가 드리나니  
아, 부디 건강하시라  
이 세상에 단 한분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시여!

## 백두산전설

## 백두산바람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실뿐아니라 장신술, 분신술도 쓰시여 왜놈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는 통쾌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왜놈들의 군대와 경찰이 육살거리던 서울 한복판에서 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봄날, 서울룡산경찰서의 새로 부임한 와다나베 다로형사는 전화를 받다 말고 두귀가 번쩍 열려 《앗! 핫!》하며 연신 고개를 갑작거렸다.

《**김일성** 빨찌산을 아는가? 그 빨찌산의 **김일성** 장군이 도표에 나타났다는 정보이다.

틀림없이 이삼일안으로 서울을 통과할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년간 유격대토벌에 참가했고 또 **김일성** 장군을 본바있는 군에게 주는 특별임무이다. 명심하라. 쥐도새도 모르게 포위망을 쳐놓았다가 꼭 체포해야 한다. ...》

전화기에서 쏟아져나오는 호통소리였다.

《핫, 기어이 각하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겠읍니다.》

《총독부》 경무국장이 직접 걸어준 전화를 받게 된 와다나베형사는 황송하고 감격하여 긴 허리를 나무판자처럼 꼴꼴이 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벌겋게 상기된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출세길과

재부가 어려왔고 얼굴에는 흠족하고도 교활한 웃음이 흐물흐물 피어올랐다.

《어제 도표에 있었다... 그러니 오늘은 부산, 래일이나 모레쯤엔 반드시 서울역에...》

고등계형사인 그는 비교적 총명한 두뇌와 비상한 수완으로 《승진일로》의 큰길을 걷고있다고 할수 있었다.

물론 국경일대에서 일반경찰로 근무할 때는 **김일성** 장군유격대의 빈번한 출몰로 하여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잔적이 없었다.

어느때인가는 **김일성** 장군의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에 걸려 밤새껏 제편끼리 맞불질을 하다가 하마트면 천당으로 갈번 하였다.

그는 《피바른》자였다.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자면 유격대 《토벌》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백성들의 원한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일에는 다른자들을 내세웠다. 그대신 곳곳에 끈나불들을 박아 넣고 정보를 수집하는 교활한 방법을 취했다.

그리하여 애국자들도 몇명 잡아들이고 폭동주 모자도 몇명 색출해낼수 있었는데 그바람에 그는 상관들의 눈에 들게 되었다.

와다나베는 일반경찰로부터 고등계형사로 되었으며 얼마전에는 《총독부》가 있는 서울의 경찰서로 일약 승진해왔다.

그런데 벌써 경무국장의 눈에 들어 특별임무까지 받게 될줄이야. 경무국장의 말이 기분 좋게 되



살아났다.

《…김일성장군을 본바있는 군에게 주는 특별임무이다.》

와다나베형사는 자기가 김일성장군을 보았다고 확신하고있었다.

어느해인가 진드기 《토벌》작전에 물리위 유격대의 꼬리를 물고 추격한적이 있었다. 그때 유격대와의 거리는 불과 250미터 되나마나했다.

유격대의 맨앞에는 키가 툼툼하고 기풍이 범상치 않아보이는 지휘관이 걷고있었다. 그 지휘관이 한참씩 서서 쏘아볼 때면 머리칼이 주빚 일어서는것 같았고 몸이 파다들고 발이 얼어붙은듯 떨어지질 않았다.

와다나베는 룩감으로 그 지휘관이 김일성장군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와다나베형사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끝없는 밀림이나 산속이라던 몰라도 인종이 많고 경찰과 군대로 겹겹이 에워싼 이 서울바닥에서는 한번 본때를 보여줄수 있다고 패재를 올렸다.

그는 전화로 자기의 꼬나불들에게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나와 역방향으로 가는 전차에 몸을 실었다.

와다나베의 머리속엔 하나의 계획이 맴돌고있었다.

(판부련락선에서 내린 김일성장군이 경부선기차를 탈테지. … 기차안에서부터 미행을 달고 포위해오다가 서울역구내에서 짹각…)

그의 눈앞에는 력사적인 활극장면이 선히 떠올랐다. 이때였다.

《아침부터 취했어? 왜 이러는거야, 주정뱅이같은게…》

별안간의 쇠된 악청에 편두 정신을 차리고보니 군력이 진 한 녀자가 울상이 되여 발을 구르고있었다. 살이 들여다보이는 하르르한 살양말을 신은 그 녀자의 발잔등에 얼룩얼룩한 발자국이 찍혀져있었다.

어쩔바를 몰라 《하 이거 미안함…》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와다나베형사는 《앗!》하고 작은 두눈에 쌍심지를 켜다.

앞자리에 범상치 않아 보이는 젊은 사람이 태연히 앉아 신문을 보고있었다. 준수하고도 인상깊은 얼굴, 정기도는 눈빛, 깊숙이 내려쨌 창이 넓은 종절모…

꼭 어디선가 본것같은 모습이였다. 순간 번개치듯 (김일성장군?!…)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아니야.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하루밤사이에 도표와 서울을 오락가락한단 말인가.

그런데 부정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김일성장군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는것이였다.

와다나베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새에 전차는 멎고 신문을 보던 그 젊은 사람도 사람들 틈에 섞여 전차에서 내리였다.

전차가 《땡 땡》종을 울리며 떠나는 순간에야 와다나베형사는 필쩍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김일성장군이다! 축지법을 쓰는 장군이니 그

좁한 거리야 무슨 대수겠는가. …)

와다나베는 저도모르게 몸을 떨었다. 백두산의 눈무지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은 《토벌대》의 슬한 주검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신출귀몰한다는 장군이라 해도 이 서울거리에서는 빠지지 못하리라는 위안이 생겼다.

(산에선 빨찌산을 하지만 이 거리바닥에서까지 빨찌산을 할텐가.)

신바람이 난 그는 멀리로 사라지는 젊은 사람의 뒤를 황급히 뒤쫓았다.

정오를 가까이 한 때라 거리는 사람사태가 났다.

젊은 그 사람은 신문을 열구리에 낀채 서두름이 없이 천천히 걸어가고있었다.

와다나베는 너무도 여유작작한 그 기풍에 놀라면서도 걸음을 더 빨리 하였다.

조금만 더… 그러면 경찰서앞에 이를것이다.

드디어 경찰서앞 마당에 이르렀다. 《서러! 잡았다!》하는 고향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막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였다.

《어이쿠…》

와다나베형사는 별안간 불어치는 돌개바람속에 휘말려들었다. 아찔했다. 온몸이 허공 들리워나가는듯 하여 눈을 꼭 감았다. 다시 눈을 뜨고보니 이제 어찌된 일인가. 눈앞에 한사람뿐이던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둘, 셋, 넷…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툼툼한 몸집이며 점잖은 걸음새, 깊숙이 눌러쨌 창넓은 모자까지도 네사람이 신통히도 꼭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자기가 환각속에 빠져든것만 같아 불밀을 꼬집어보았다. 아픔이 느껴졌다. 결코 환각은 아니였다.

와다나베는 곧 경찰서로 뛰어들어가 전화통에 매달렸다.

《젊은 사람… 김일성장군이 분명한데 지금 종로거리를 향해서… 동대문방향과 서대문 그리고… 핫, 핫.》

김일성장군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와다나베의 정보를 받은 경무국장은 즉시 중무장한 경찰대를 총 출동시켰다. 거리는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고동소리가 숨가쁘게 울리고 차들이 멎어서고 길가던 행인들이 경찰들의 곤봉에 떠밀리워 끌려다녔다.

그런데 거리와 골목들을 살살이 뒤져내고 행인들의 통행검색을 강화했어도 와다나베가 보았다는 그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경무국장에게 불리위가서 얼벌벌하게 뺨을 맞고 나온 와다나베는 혼이 빠졌는지 안면신경통이 생겼는지 웃는지 우는지 알수 없는 상이 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

바로 이때였다. 벽에 걸린 전화통에서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와다나베가 힘겹게 몸통을 일으켜 전화를 받으

니 제 그나불에게서 온 전화였다.

대뜸 그의 눈이 커졌다.

《뭘, 뭘야? 반도호텔에... 방금전에 그 젊은 사람이 창 넓은 모자를 썼구 보통사람같지 않다. 좋아! 내 이제 갈테다!》

그는 헌병대, 수비대, 경찰대에 알려 개미 한 마리 열씬 못하게 반도호텔을 세겹네겹으로 에워싸게 했다. 그 다음에야 총을 든 수십명의 경찰들을 끌고 호텔로 돌입하였다.

마침 와다나베가 전차안에서 보았던 젊은 그 사람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홀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있었다.

와다나베는 기회를 놓칠세라 경찰들을 끌고 그리로 밀려갔다. 그런데 정작 그앞에 이르자 와다나베는 풍만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온듯 생각되었다. 말을 해야겠는데 입도 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요? 갑자기 병이 왔소? 왜 그렇게 오한 만난 사람들처럼 떨고있는거요?》

젊은 그 사람이 물었다.

와다나베가 옆을 둘러보니 경찰들 역시 자기처럼 우들우들 떨고있는것이였다.

차를 다 마신 젊은 그 사람은 태연자약한 걸음으로 호텔주인에게로 다가가 몇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제서야 경풍에서 벗어난 와다나베는 이 모든 것이 그의 《도술》에 의한것임을 깨달았다. 경찰들도 방금전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듯 서로 마주보며 눈만 떴룩거렸다.

와다나베는 주인에게 방금 그 신사와 무슨 말을 했는가고 물었다.

그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 손님말인가요. 보통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차 조선이 독립된다더군요. 일본

〈천황〉에게 최후통첩을 하려고 도쿄를 다녀오는 길이라더군요. 참 내 정신두... 여기에 그분의 명함장이 있을겁니다.》

호텔장부를 펼치니 그 신사가 놓고 간 명함장이 끼여있었다.

명함장을 집어들던 와다나베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모재비로 쿵 하고 나가 넘어졌다.

경찰들이 다급히 몰려와 그 명함장을 손에 들었는데 그들 역시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호텔주인이 하도 이상하여 명함장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존함이 명백히 쓰여져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다니!...

그후 고등계에서는 반미치광이가 된 와다나베를 가두어넣고 소문봉쇄를 했으나 이 소식은 서울장안은 물론 성밖과 조선팔도강산으로 급속히 퍼졌다.

사람들은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일본제국주의의 죽음을 선고하시기 위해 잠시 일본 도쿄를 다녀오셨는데 그때에 축지법을 써서 하루사이에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시였고 반도호텔에서 하루밤을 묵으시며 서울거리를 돌아보시였다고 말하고있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신술, 분신술을 쓰시고 백두산바람을 불게하여 와다나베형사가 눈을 감게 한후 유유히 호텔을 떠나셨다고 저마다 제가 본것처럼 소문을 돌렸다는것이다.

그 소문이 어떻게나 급속히 전파되었던지 왜놈들은 그것을 백두산바람이라고 아우성치며 벌벌떨었다고 한다.

김종석

## 가사

###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서 가자

심재훈

그리워 달려가는 마음의 고향  
꿈결에도 가고싶던 우리 고향집  
밀림도 설레이며 우릴 반기고  
온갖새 어서오라 노래부르네  
아 빨찌산 그 전설 가슴에 젖는  
백두밀영 고향집 찾아서 가자

만민이 우러르는 혁명의 성지  
찾을수록 정다워라 우리 고향집  
여기서 광명성 솟아오르고

총대의 정의가 굳어져졌네  
아 빨찌산 그 신념 불타오르는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서 가자

백두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집  
온 세상이 찾아오는 우리 고향집  
정일봉 노을이 빛을 뿌리는  
우리 가는 앞길은 찬란하여라  
아 빨찌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서 가자



김릉연

푸릿한 어둠이 점차 들리고 먼동이 흰히 트이기 시작했다.

먼길을 달려온 야전차들은 드디어 최전연에 위치한 부대구역에 들어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점점 더 로골화되고있는 시기에 최전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가는 일군들의 얼굴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와 수림들, 일매지게 뻗은 정갈한 도로와 표식판들을 흡족한 눈길로 바라보고계시였다. 이 부대를 찾으실 때마다 산림보호와 국토관리에 힘들이고있는 부대군인들의 알뜰한 솜씨와 지성을 느끼게 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차가 굽이진 등판에 오르자 키큰 관목들속에서 3년전인가 심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는것이 보였다. 황철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갖가지 나무들이 의종계 렬을 짓기도 하고 뻗뻗한 수림을 이루기도 했다. 그윽한 미소를 담고 차창밖을 내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고개를 돌리시였다.

《류성민동무, 그래 그 책을 분실한 소대장을 어떻게 했대구?》

승용차의 뒤좌석에는 그이를 모시고 함께 떠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박영훈과 총정치국 부국장인 류성민이 타고있었다.

류성민은 장군님의 뜻밖의 물으심에 처음은 약간 얼머름한 표정이였으나 인차 몸가짐을 바로하며 정중하게 대답올렸다.

《아직 그 처리문제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류성민의 말을 되받아 조용히 외우시는 장군님의

안광에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류성민의 심정이 리해되기도 하시였다.

지금 이 땅에는 준엄한 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밀려오고있었다.

미제는 《작전계획 5027》을 세부적으로 더욱 완성시킨 《작전계획 5027-04》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파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이전의 전쟁계획과는 달리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된 신속기동무력과 최첨단 전쟁장비들에 의거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르려는 이 작전계획의 엄중성과 무모성은 《본격적인 북진》을 개시하는 한편 《평양을 포위점령》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데 있었다.

현실적으로 북침을 노린 미군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라크전쟁에 동원되였던 《F-117》스텔스전투폭격기들이 군산 미공군기지에 날아들었으며 미싸일을 장착한 이지스구축함, 최신예핵추진항공모함의 조선동해와 그 주변수역배치가 눈앞에 박두하고있다.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였다.

전군이 격동상태에 들어갔다. 원썩들이 감히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무자비한 징벌로 일격에 전쟁의 근원까지 송두리채 날려보낼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류성민은 요즈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그야말로 빈틈없이 완성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내고있다. 장군님의 이번 전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도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작전전술적명안을 가르쳐주시기 위한 군사적목적에서의 시찰로 알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류성민으로서는 망망대해의 작은 물방울같은 소대장의 《크지 않은 파오》에 대해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을수도 있었다.

벌써 주위가 흰해졌다. 먼 동녘의 산발들위로 감빛 아침노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은근한 어조로 다시 물으시었다.

《그래 동무생각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군중규율을 위반했으니 응당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엄한 시기일수록 그런 현상은 절대로...》

《처벌이라- 하하...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더니 책은 다른 사람이 훔쳐갔는데 처벌은 그 책을 빌려간 소대장이 받는다? 허허...》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이번에는 박영훈이쪽으로 몸을 돌리시었다.

《영훈동무는 어떻게? 어쩐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없소?》

《저... 저는 무슨 일인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이제 《비상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긴장해서 앉아있다가 화제가 뜻밖인데로 펼쳐지자 박영훈은 저으기 마음이 안정되는지 어쉴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움과 영문을 모르는 궁금증이 함께 어린 눈길로 류성민이쪽을 돌아보았다.

《음, 영훈동무 아직 초문이겠구만.》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나서 이번 천연부대들에 대한 시찰을 떠나기 전에 류성민에게서 들은 이곳 부대 한 소대장의 《도서분실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시었다.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도서리용정형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시기에 류성민이 여담삼아 말씀드린 내용이였다.

...이곳 부대의 최유진이라는 소대장이 대원들을 데리고 《우리 초소-우리 학교》 관계를 맺고있는 중학교에 체력단련장과 장애물극복훈련장을 꾸려주러 갔다가 김숙이라는 처녀문학교원이 이전 쏘련실화 《조야와 슈라》라는 책을 들고있는 것을 보았다. 소설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소대장은 그 책자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희귀한 책이라 읽어보고싶은 욕망을 금할수가 없어 마침내 처녀교원앞에 나섰다.

《전 이 실화에 대해 말은 들었지만 책을 구경조차 못했었습니다. 조야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조옥희같은 영웅이고 슈라역시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친 영웅전사라고 하는데... 좀 빌려줄수 없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소대원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고 상식도 넓혀주고싶어 그렇니다.》

최유진이 몸달아하는 말에 자못 감심해들던 처녀교원의 얼굴에 난색이 어렸다.

《저... 군관동지의 말씀을 듣고보니 꼭 드려야 하겠지만 이 책은 저의것은 아니고 군도서관에도 한부밖에 없는걸 겨우 대여해왔는데 워낙 출판된지가 오래다나니...》

김숙교원이 눈까지 내리깔고 딱한 표정을 짓는 바람에 유진은 부풀던 마음이 잦아드는속에 맥없이 책을 번져보았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장정한 원래 책표지는 아예 없고 그래프트지가 그것을 대신하고있었다.

출판당시의 책 속표지도 없고 누가 붙였는지 두렵고도 누래진 모조지우에는 군도서관 장서도 장 몇개가 짝짝 박혀있었다. 년간 도서실사때마다 찍은듯한 그 도장속에서 1965년 9월 11일이란 도서구입날자까지 보게 되자 유진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유진의 시르죽어가는 낯빛을 살피던 김숙교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저... 3일동안이면 다 볼수 있겠습니까? 군도서관에 반납할 날이 그렇게 돼서...》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최유진은 너무 기뻐 처녀교원의 손을 잡고 드세차게 흔들었다. 처녀교원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이렇게 당부했다.

《그럼 꼭 약속을 지켜줘야 해요.》

그렇게 빌려온 책인데 그만 중대에 가지고온지 하루반만에 잃어버렸다.

분명 책은 서가도 아니고 유진의 책상서랍에 정히 간수하였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던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종적을 알수가 없었다.

책 《도적》은 도적이 아니라고 희귀한 책이니가 누가 보자고 슬쩍 한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어데 다른데서 떨어진것 같기도 하여 병실이며 교양실이며 야외휴식장과 훈련장까지 발길닿는곳엔 다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다.

《이제 책이 나지겠지. 너무 걱정말라구.》

이렇게 위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김숙교원과 의 약속을 생각하니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구분대 기동수를 통해 김숙교원에게 며칠만 더 참아달라고 쪽지편지를 써보낸지 닷새째 되는 날인가 부대정치부에서 유진을 찾았다.

책과 관련한 사연을 자초지종 물고난 정치부 군관은 군도서관에서 책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는것과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번 일은 군민관계를 손상시킨 《비상사건》으로서 부대의 력사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걱정했다.

《어떻게든지 찾던가 구해보겠습니다.》

하여 유진은 고향의 동무들과 중학교시절의 문학선생한테까지 편지를 써 《조야와 슈라》를 구해줄것을 간청했다. 안타까웠다. 발맛도 없었다.

정치부 군관의 말대로 《비상사건》이라고 하면 책을 찾기전에는 해결될수 없는 사고이니 이걸 어떻게 한단말인가.

사업총화때마다 《오중흥7련대청호쟁취운동》의 앞장에 선 모범소대장이라고 평가받던 유진은 책 한권때문에 줄지에 《락후분자》로 굴러떨어진 셈이다.

다행한것은 부대군관모임때 책 《도적》이 발견된것이였다. 발견이라기보다 스스로 《자백》했다.

유진이 군관학교때부터 막역한 사이였던 린접구분대 3소대장이 친구를 찾아왔다가 슬쩍했다는것이다.

3~4일이면 보고 돌려줄터인데- 하며...

그런데 덜렁이같은 3소대장 역시 책을 보던 도중에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도 매일같이 책을 찾았으나 오리무중이라는것이다.

그 책때문에 두 소대장은 체증감소까지 왔다고 한다. ...

야전차들은 령길을 또 한굽이 에돌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서분실사건》내용을 간단히 주려 말씀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시었다.

《영훈동무, 공짜라는게 없소. 그리고 왜 동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가, 그리고 다른 일도 바쁜 동무를 이번에 왜 함께 가자고 했는가, 이 건 동무가 풀어야 할 숙제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구 이젠 사연을 알았으니 아까 내가 한 물음에 대답하오. 소대장에 대한 처벌말이요.》

장군님께서 조성된 정보보다도 이 문제가 더 중한것인듯 줄곧 그 《사건》으로 화제를 이끌어 가시었다. 류성민이네들이 너무 긴장되어있어 그들의 마음을 녹추려주시려 그러시는지도 몰랐다.

박영훈이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말씀을 올렸다.

《군민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니만치 그냥 덮어둘 순 없다고 봅니다.》

이곳 부대에서 그 그렇고... 그런데 책을 빌려온 소대장과 그 책을 잃은 소대장중에서 누구 처벌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라? ... 하긴 군민관계라고 보면 스칠 문제는 아닐테지. 하지만 책 한권때문에? ... 그래서 민동무는 어느쪽이요. 나도 좀 풀기 어렵구만, 허허.》

그이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박영훈과 류성민도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이것 보오. 류성민동무. 난 그 유진동무원인데 그 소대장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소?》

《저...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긴 그렇지. 하지만 동무로서 힘이 모자라거나 이 박영훈동무까지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셋씩이나 모여 소대장하나 돕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알았습니다. 돕겠습니다.》

《어떻게?》

장군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류성민은 안경테를 추슬러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을 올렸다.

《이번에 돌아가면 잃어버렸다는 그 책 한권을 얻어서 보내줄까 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소대장이 처녀교원을 찾아가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각 한권을?! 어떻게, 영훈동무, 너무 린색한것 같지 않소? 그한테 비판까지 했고 사죄까지 시킨다면서... 거 왕벌을 세알씩 단 사람이 너무 쪼쪼하지 않아?》

《방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도 공짜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같습니다.》

《그렇다, 하하하...》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일행도 따라 웃었다. ...

장군님께서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언제인가 내가 총참모부의 최동무네 집에 갔

던적이 있었소. 항일투사인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어서 잠을 내어 가보니 집이 별로 행한 느낌이 들지 않겠소. 알고보니 책장안이 웅덩그렁하게 비였드란말이요. 전원에서 정치지도원을 하는 막내아들이 며칠전에 왔다가 다 가져갔다는 거요. 허허허... 자기네 중대 병사들이 책을 좋아한다면서...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소설책들을 많이 찍지 못한것은 사실이요.》

그러시고는 가슴이 아프신듯 더 말씀이 없으시었다.

박영훈이도 류성민이도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이 준엄한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나아가시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읽는 소설책 부수에까지 걱정하시게 하였다는 죄책감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면서부터 소설책을 많이 찍지 못한것은 사실이였다. 외국소설들도 같았다.

새롭게 번역되거나 세계문학선집들을 재판하면서 종이사정때문에 부수를 인민들의 높은 수요에 맞게까지는 출판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출판된 이전 소련실화 《조야와 슈라》도 새라 새롭게 번역출판되는 외국소설책들에 묻혀 출판일군들이 미처 관심을 못돌렸을것이고 결국은 이번에 그런 《분실사고》까지 빚어지게 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니 장본인은 다름아닌 선전사업을 맡아보는 이 박영훈이라 해야 할것이다.

박영훈은 스스로 눈길을 떨구었다. 얼굴을 붉히며 모아쥔 두손을 만지작거렸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장군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설책의 중요성에 대해 또 얼마나 강조해오셨던가.

공장, 기업소들이나 인민군부대들을 현치시찰하실 때에도 도서실에 들려 도서리용정형을 알아보곤하시었다. 그때마다 박영훈은 책들이 부족하다는것을 느끼면서도 나라사정이 그러니 할수가 없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하기까지 했었다.

《이제 나라형편이 좀 풀리기만 하면...》

박영훈은 이렇게 속다짐하며 으스스하게 주먹을 부르쥘었다.

지금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게 될 결사전을 먼저 생각할 때이다. 사상사업도 그리로 총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박영훈은 장군님께서 최전선으로 나오시면서 인민군지휘성원도 아닌 자기를 이처럼 함께 차를 타고가자고 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있는것이 부끄러웠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숙제》란 무엇일까.

이제 전선에서는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그 어떤 군사훈련이나 대대적인 배변경이 있을수도 있다.

몇해전 놈들이 북침을 겨냥하여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그 연장선우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장군님께서 일부 부대들의 배변경과 군사훈련을 조직하시어

놈들의 눈이 뒤집혀지게 하신적이 있었다. 놈들은 실통히도 제놈들이 무력을 집중하려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군부대들이 드세찬 타격훈련을 진행하는것을 보고 아우성을 쳤다. 기세등등해서 시작했던 대규모합동군사연습도 흐지부지되고말았다.

그런 통쾌한 작전이 이제 자기 눈앞에서 또 벌어지게 되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막 부풀어올라 박영훈은 큰숨을 몰아쉬며 류성민이쪽을 흘끔 넘겨다보았다. 그도 역시 긴장한 표정이였다.

박영훈은 차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이 비상한 작전을 앞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날 전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 작전전술적문제들에 대해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부대관하 한 구분대의 전투훈련을 보아주시후 그 구분대의 교양실과 병실, 식당, 세목장, 야외휴식장, 지어는 염장탕과 집집승우리 등 군인들이 생활하고 리용하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영예게시관앞에서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사진을 아주 잘 찍었소. 생활적이요. 저 총을 척 안고 찍은 병사는 명사수라는거겠지. 정치위원동무, 군인들에게 저런 사진을 석장씩은 뽑아주겠지?》

장군님께서는 옆에 서있는 몸매가 다부진 부대정치위원을 돌아보시였다.

정치위원이 차렷자세를 하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오. 한장은 이렇게 영예관에 붙이구 다른 한장은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한장은 모교의 선생님들에게 보내게 해야 하오.

군인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게 좋아. 그리구 개별사진보다 분대, 소대 집체사진이 더 좋구. 그래야 인생에서 가장 값높고 보람찼던 군사복무시절을 추억하는 궁지가 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그 옆의 돌리개식신문결개앞에 서시며 《조선인민군》신문을 만족한 눈길로 쳐다보시였다.

《군인들이 신문에서 어떤 기사들을 좋아하오?》

《다 잘 봅니다.》

《다 잘 보겠지. 그래도 특별히 찾아보는 글들이 있지 않겠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혁명적인 소설들이 실리는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이 신문에도 소설이 실렸구만.》

《그렇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푸른 산악〉이 련재되고있습니다.》

《인민군신문에 이런 좋은 소설들을 계속 련재

하는것이 좋겠소. 나도 그전에 신문에 련재되는 소설을 오린책을 만들어놓고 본적이 있는데 그 재미라는게 또한 유별하오.》

장군님께서는 신문결개를 가볍게 돌리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는 부대정치위원에게 지휘부에 가서 부대도서실에 들려보자고 하시였다.

박영훈과 류성민은 거의 동시에 팔목시계를 보았다. 벌써 낮 2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아침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병사들의 기상시간에 맞추어 시작된 그이의 시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일정에는 다른 부대 시찰이 계획되어있었다.

그이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시자면 이미 이 부대에 대한 시찰은 끝나야 한다. 그런데 이제 또 도서실에 들리시면 어떻게 한단말인가.

정말 안타까웠다.

장군님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부대지휘부청사 1층에 있는 도서열람실에 들어서시였다. 남향쪽에 창문이 두개나 있는 열람실은 채광이 좋고 널찍하면서도 아늑하였다. 왼쪽 창문옆 벽공간에는 《지식은 광명, 무식은 암흑》이라고 쓴 죽자가 걸려있었고 오른쪽 창문옆벽에는 《모범독서가》들의 사진이 나붙어있었다.

《글씨가 힘이 있소. 룡이 꿈틀대며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것 같소. 이자 들어오면서 <도서실>이라고 쓴 명판을 보고 이 부대에 서예에 조예가 있는 동무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저 글씨도 같은 사람이 쓴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군인회관 미술원을 하고있는 초기복무사관이 썼습니다.》

부대정치위원이 병글병글 웃으며 성수가 나서 대답올렸다.

《잘 썼소. 볼수록 마음에 드는 글씨요. 우리나라의 재간둥이들은 다 인민군대에 있는것 같애.》

장군님께서는 죽자를 보시는 동안 엇끼셨던 팔을 푸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렇게 하면 군관들과 병사들의 독서열의를 높여주겠소. 저 동무는 책에 어찌나 열중했는지 자기가 사진에 찍힌것도 모르고있는것 같소.》

장군님께서는 모범독서가들의 사진중에서 한장을 가리키시며 웃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저 동무가 이번에 <군민관계>사건을 빚어낸 최유진동무입니다.》

정치위원이 서둘러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을뿐 더 다른 말씀이 없이 도서실 운영정형을 알아보시고는 도서실관리원을 찾으시였다.

정치위원의 뒤에 황송스레 서있던 관리원이 쟁쟁한 목소리로 그이께 또한번 인사를 올리자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동무에게 부탁이 있는데 이제 부르는 책

들이 있으면 좀 가져다주세요.》

《알았습니다.》

아까부터 장군님께서 자기가 일하는 서가쪽을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 어찌나 하고 마음을 조이고있던 관리원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대답올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청정한지 유리창이 다 자랑자랑 울리는것 같았다. 그는 제격 수첩과 원주필을 손에 들었다.

《적을것까지는 없을것 같소. 자, 내 책제목을 부르지. 수령님의 회고록 3권,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총서작품들이요. 그리구 이전 소련장편소설들인 〈북나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조야와 슈라〉, 〈뜨거운 백설〉… 그쯤 합시다.》

부지런히 원주필을 놀리던 관리원의 손이 툭 댔었다. 밝게 웃던 얼굴에도 갑자기 그늘이 비꼈다. 그는 움직일념을 않고 차돌같이 하얗고 찬찬히 박힌 이발로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류성민과 박영훈도 어지간히 긴장되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도서실관리원이 서가의 책들을 얼마나 잘 알고있는가 료해하시려는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닌것 같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도서실관리원은 울상이 되어있다가 부대정치위원의 눈길을 받고서야 황급히 서가에 다가갔다. 책 대여섯권을 뚝아가지고 책상우에 놓여있던 흰수건으로 투정을 정히 닦은 다음 장군님께 두손받쳐 올리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울상이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요구하신 책들중에서 지금 도서실에 들어와있는 책은 이것들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해갔는데… 한번 대출하면 워낙 부수가 적다보니 서로 돌려가면서 보느라고… 그리고 〈조야와 슈라〉란 책은 원래 부대도서실에 없었습니다.》

도서실관리원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라도 한듯 저고리고름을 탈아쥐며 고개를 푹 숙였다.

《거… 〈뜨거운 백설〉은 내가 보고 엇그제 돌려준것 같은데… 찾아보오.》

얼굴이 검붉게 질린 부대장이 도서실관리원에게 말하자 장군님께서 가볍게 웃으시며 만류하시었다.

《부대장동무, 그만하오. 없는 책을 그 동무가 이제 어데 가서 가져온단말이요. 모든것이 예견했던 그대로요. 지금 부대도서실들에 책부수들이 적다는건 나도 모르는게 아니요. 사실 부대도서실에는 군인들이 연제와도 다 빌려볼수 있게 책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소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소설도 그렇고…

소설책들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혁명적인 소설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에서 소설이나 연극, 영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혁명투쟁에서 영향을 받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중학시절에 소설을 본데서도 혁명할 사상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리끼의 〈어머니〉, 셰라피모위치의 〈철의 흐름〉, 장광자의 〈압록강가에서〉, 그리고 로신의 단편집을 보시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빈부의 차이, 사회악의 제 현상들을 보시였으며 그 과정에 계급의식이 자라났고 혁명을 하게 되었다고 나에게 여러번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된 주인공들을 잊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소설의 제목과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꼽으시였다. 소설의 줄거리와 생동한 세부, 인물들의 대사까지 인용하시며 재미나게 말씀하시였다. …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오후에 그리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련이어 진행하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때에도 도서실에 들리시는것을 잊지 않으시였다.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승용차안에서 장군님께서서는 박영훈이와 류성민이에게 이번 인민군부대들에 나와본 소감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러신 다음 박영훈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였다.

《영훈동무, 떠나올 때 이 차안에서 내가 내준 숙제를 풀 때가 되지 않았소?》

《숙제말입니까!… 풀긴 했는데… 합격되겠는지.》

박영훈은 어줍게 웃으며 원불을 가볍게 쓸었다. 그리고는 류성민의쪽을 흘끔 쳐다보았다.

《하하… 어째 대답이 신통치 않다- 좌우간 한번 들어봅시다. 불합격되면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더 주겠소. 그 이후는 안되오. 시간이 급하니까. 시험관은 나와 류성민동무요.》

《저야 뭐…》

시험관에 자기도 포함된다고 하자 류성민은 뒤더수기를 굵적이며 웅색해하였다. 그때 레의하는 버릇대로 안경테를 추출러올렸다.

《그럼 대답하겠습니까.》

《어서 하오. 그렇게 긴장할것까진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쓰게 못하다보니 좋은 소설책들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장군님을 따라 부대에 나와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리는 소설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출판해서 보내줘야 한다는것입니다. 부대 도서실에 그런 소설책들이 있었으면 소대장이 군중규률을 위반하는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소?》

《그렇습니다.》

박영훈은 장군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더 심중해지긴 했으나 대답은 여전히 한본새였다.

《류성민동무, 어떻소?》

《그건 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일을 잘못된 탓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 자기 비판들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숙제문제에 대한 박영훈동무의 대답이 합격이라는 말인데 나도 찬성이요. 동무들과 같은 생각을 했소.》



박영훈이 눈길을 내리깔며 신중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전 사실 이번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해서 무슨 중대한 비상조치가 취해질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책때문에 저를...》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시면서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군인들에게 소설책을 더 많이 보내준다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언제부터 생각은 해왔지만 이제 정말 <비상대책>을 세워야겠소. 그래서 영훈동무를 이번길에 함께 데리고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마침 <도서분실사건>까지 생겼거든.

이제 평양에 올라가면 영훈동무는 좋은 소설책들을 출판할 안을 만들어 제기해야겠소. 타산을 잘 해서 될수록 빨리 하여야겠소.

류성민동무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소설들과 함께 외국소설들가운데서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골라보도록 하시오.

이번에 중앙당과 총정치국이 힘을 합쳐 한번 내밀어봅시다.》

《알았습니다.》

박영훈과 류성민은 동시에 힘차게 대답올렸다. 가슴마다에 산악같은것이 들어앉은듯 한 기분들이었다.

야전차들은 큰길에 들어서자 속도를 높이였다.

질풍같은 속도였다. 준엄한 정세가 그리고 그것을 뚫고나가야 할 조선혁명이 그런 속도를 요구하는것 같았다.

며칠후 박영훈과 류성민은 다같이 장군님의 부름을 받았다.

두 일군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을때는 자정도 넘은 깊은 밤이었다.

《깊은 밤중에 불러서 안됐소. 앞으로 가까이 나와앉소. 병사들을 위한 일이기예 급히 불렀소.》

장군님께서서는 방금 보신 문건에 활달한 필체로 무엇인가 써넣으시고는 옆에 쌓인 문건무지속에서 다른 두건의 문건을 찾아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올려보낸 소설책출판과 관련한 문건들을 보았습니다.》

박영훈과 류성민은 그 문건들이 자기들이 준비하여 올린것이라는것을 첫눈에 알아보고 긴장한 표정들을 지었다.

《동무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최전연에서 돌아온 피로도 풀새없이 대책안을 만드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못잤을것입니다.

대체로는 동무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썩 차지는 않습니다.

영훈동무! 섭섭하지 않소, 내 말이?...》

《아닙니다.》

박영훈이 몸을 솟구며 대답올렸다. 류성민이도 같은 심정이여서 무릎에 놓았던 두손을 짝 움켜잡았다 놓았다 하였다.

《동무들이 혁명적인 소설들을 더 많이 출판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줘야겠다는 나의 의도는 파악

한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최고사령관이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것은 아직 다 깨닫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두 문건에 그렇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우선 박영훈동무가 올려보낸 안을 봅시다.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안같지만 소극적입니다. 종이타산, 인쇄자재타산, 설비타산만 하다나니... 이런 식으로 인쇄해서 언제 다 찍겠습니까. 물론 경제사업뿐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실리를 따져야 합니다. 나도 실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리를 따져 일한다는것과 타산을 앞세우며 소극적으로 일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류성민동무가 올려보낸 책종수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열다섯종이 뭐요? 열다섯종이? ... 이 자리에서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이전 쏘련소설들의 제목들만 꼽으라 해도 100 여종은 넘을것 같소. 물론 한꺼번에 그 작품들을 다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총련 군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작 그렇게밖에 안된단말이요?》

박영훈과 류성민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제판에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장군님의 의도를 제때에 파악하고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다. 부수를 엄청나게 늘이면서는 혹시 너무 지나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기쁨이나 만족은커녕 오히려 그이의 마음을 서운하시게 한것이다.

언제면 그이께서 아무일이나 마음놓고 맡기실수 있는 일군이 될것인가. 물론 저 하늘에 위성들은 많아도 그것이 태양을 대신할수는 없듯이 아무리 지혜롭고 성실한 전사들이 많아도 우리 장군님의 예지와 웅심깊은 구상을 다는 헤아릴수 없다. 하지만 그이의 위엄을 받들어 파업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한모퉁이씩 말아 척척 해제끼는 손발이야 왜 되지 못단단 말인가.

이 순간 박영훈과 류성민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옥죄여들고 자신들이 용렬함을 어쩔수 없었다.

《장군님!》

박영훈이 고개를 번쩍 들며 말씀드렸다.

《사실 저는 나라살림이 아직 꺾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혹시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 소설들만이라도 먼저 찍고 외국소설들은 당장은... 다섯종만...》

앞으로는 군인들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교양에 필요한 책들이면 더 많이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그래야 하오. 사실 지금도 일부 일군들은 주체를 살린다고 하면서 외국것은 등한히 하는 현상도 있는데 그래선 안됩니다.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은 좋지만 세계속에 조선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를 알아야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는것입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훈과 류성민의 힘찬 대답에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일부 동무들은 지금 조성되고있는 첨예한 정세를 두고 〈비상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데 소설책을 더 많이 찍어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상대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으면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부단히 수양해나갈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사상정신적양식을 주고 자신들을 비쳐볼 거울을 마련해준다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밤은 좀 깊었지만 우리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안을 짜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박영훈과 류성민을 집무탁가까이에 나앉도록 하시고 문건의 글줄에 밑줄을 그어가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총서계렬의 장편소설들은 물론 지난기간 군인들과 청년들속에서 사랑받던 우리 나라 소설들과 외국소설들을 결정적으로 많이 찍어야겠습니다. 외국소설들과 함께 이전 쏘련실화 〈조야와 슈라〉를 빼놓지 맙시다. 그래야 류성민동무가 소대장을 도와 책을 얻으러 다니는 수고도 덜어줄게 아니요. 하하하.》

류성민은 얼굴을 붉히며 병싯 웃었다.

《최고사령관동지,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군인들이 다 볼수 있게 푼푼히 찍어야 한다고 하시며 원주필로 손수 그 부수들을 적어나가시였다.

《소설책을 찍을 종이는 제일 좋은 모조지로 합시다.》

《모조지말입니까?》

박영훈이 눈이 둥그래졌다.

《왜 그렇게 놀라오?》

《그 많은 책을 그렇게 귀한 종으로 다 찍는다는게...》

박영훈은 말끝을 못맺고 어물거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내 방금 말하지 않았소. 우리 군인들에게 한생의 밀천, 삶의 거울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말ियो. 종이 사정이 긴장하다는걸 내 모르지 않소. 하지만 군인들을 위한 일에는 손이 작아선 안되오. 소설책종이는 다 고급모조지로 하고 표지장정도 최상의 수준에서 해줍시다.》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박영훈과 류성민에게는 태양을 가까이 마주한듯 온몸이 화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 소설책들을 최상최대로 잘 만들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한번 힘껏 내밀어보겠습니다.》

박영훈이 대답올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거 형용사가 너무 요란하구만. 덤뻤다치지 말구 다시한번 간간히 따져보지요. 있소, 한가지 또 있소. 소설책을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만 찍게 해서는 안되겠소. 한다하는 인쇄공장들을 다 동

원하여 최단기간내에 찍어야 하오.》

《알았습니다.》

《박영훈동무말대로 이번 일이 최상의 수준에서 잘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결과를 놓고 평가해 봅시다. 그때 동무들의 진짜 일숨씨와 실력을 평가하겠습니다.》

《...》

《대답을 못하는걸 보니 자신들이 없는것 같구만.》

《아닙니다. 장군님!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일숨씨나 실력이라는건 백년 천년을 따라다니며 배워도 장군님 마음에 차지 않으실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류성민이 안경테를 추슬러올리며 결달았다.

《허허... 거 자신들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이번 일을 잘해봅시다.》

《그럼 저희들은 돌아가서...》

《가만, 류성민동무에게 내 한가지 보충적인 과업을 더 맡길게 있소.》

돌아가려고 주섬주섬하던 류성민이 다시 자세를 바로 하며 수첩을 펼쳐들었다.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이번에 출판하려는 〈조야와 슈라〉는 나온지가 퍼그나 오래된것 같은데 성민동무가 인민대학습당이나 외국어대학, 작가동맹같은데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표지에 조야와 슈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꼭 찾아서 찍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만약 책이 없으면 그 나라에 일부러 사람을 띄워서라도 구해와야겠소.》

내가 1952년도와 1955년도에 찍은 〈조야와 슈라〉를 보고 당시의 중앙도서관에 보내준 일이 있던 한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과업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류성민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군인답게 대답올렸다.

《그렇게 해주오. 그리고 다음문제는 과업이 아니고 부탁이요. 〈조야와 슈라〉 소설책을 분실하고 마음고생을 하고있을 그 소대장을 꼭 한번 만나주오. 그 부대정치위원동무한텐 처벌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 소대장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풀리질 않소.》

《알았...습니다.》

류성민의 그 대답은 아까와 달리 군인답지 못하였다. 목이 꼭 막혀버리고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자꾸만 치밀어올랐던것이다.

박영훈과 류성민이 그이의 결을 떠날 때는 동넙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분부를 받은 다음날 류성민은 인민대학습당으로 갔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장군님께서 필적을 남기신 《조야와 슈라》가 귀중하게 보관되어있었다. 류성민은 너무도 기뻐서로 다른 년도에 출판된 두권의 그 책을 가져다가 장군님께 드리였다.

그이께서도 감회가 깊으신듯 그 책들을 펼쳐보시었다. 그러시다가 그때의 이 책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 출판하는 책의 인쇄의 질을 높이자면 아무래도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연락하여 새 책들을 구입하도록 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새로 구입한 두권의 책을 가지고 류성민은 또 다시 그이를 찾아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책가운데서 우리 나라에서 발행할 책표지에 인쇄할 사진까지 정해주시었다. 그때는 새벽 3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박영훈과 류성민은 새로 출판한 소설책들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최전연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 그들을 맞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수십중에 방대한 부수의 소설책들을 다 찍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책들을 보고 또 보시었다.

《멋있소 아주 멋있소. 이번에 동무들이 큰일을 했소. 군대식으로 보면 통이 큰 작전을 치른셈이요.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들이 좋아하겠소.》

전군의 장병들이 한날한시에 받아볼수 있게 합시다.》

그이께서는 수십종의 책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책표지며 내용들까지 한장한장 번져보시고 나서야 곁에 선 부대지휘관들에게 넘겨주시었다.

《동무들도 좀 보고 소감들을 말하오. 이제 전군의 장병들이 다 이런 좋은 책을 받아안게 된단 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표지가 번쩍번쩍하는 소설책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군부대지휘관들은 너도나도 한권씩 들고 펼쳐보았다.

《야-》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는 얼굴로 책들을 들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박영훈의 한쪽팔을 가볍게 당기시었다.

박영훈이 무슨 새로운 과업을 주시려는줄 알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려고 하였다.

《가만가만, 적을것까진 없소. 영훈동무, 내 동무하고 사업을 좀 합시다.》

《사업말입니까?》

박영훈이 영문을 몰라 저도몰래 와플 놀라기까지 하며 그이의 말씀을 되받았다. 곁에 섰던 류성민도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경테를 추슬러올리

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큰소리 치지 말라는데...》

장군님의 안광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이 소설책들을 각각 한 서너부씩 더 얻을수 없겠소?》

《네부씩 말입니까?》

《왜? 너무 많은가?》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아니 아니요. 최고사령관도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줄 소설책에는 손을 댈 권한이 없소. 그래서 책을 만든 당자인 동무에게 부탁하자는건데...》

장군님께서서는 엇끼였던 팔을 푸시며 한손을 가볍게 흔드시었다.

마음은 마냥 기뻐하시는듯 하였다.

《사실은 이번에 출판한 책들이 꼭 필요해서 그러요.》

《알았습니다. 이제 당장 연락해서...》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마침 이번 현지지도 일정도 끝나가니 우리 함께 평양에 올라가서 의논합시다.》

박영훈과 류성민은 아직도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지 어정정한 표정이었다.

《그동안 책을 분실하고 마음고생을 한 최유진 소대장과 본의 아니게 사이가 어성버성해졌을 김숙이라는 처녀교원에게 보내주고싶어서 그러는거요. 그 군도서관에도 한부씩 주고...》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제야 박영훈은 가슴이 뭉클해 대답올렸다.

《내 류성민동무가 소대장을 만나보고 올려보낸 자료를 보니 그 동문 소설책을 심심풀이로 보자는게 아니었소. 우리리 군인들은 혁명적소설의 주인공들처럼 투쟁하며 그들처럼 위훈을 세우려 한단 말이요. 그런 우리 병사들에게 좋은 책들을 많이 찍어 보내주게 된것은 아주 잘한 일갈소. 내 오늘처럼 기쁜날도 많지 않은것 갈소.》

장군님께서서는 책을 넘겨받아 펼쳐보는 부대지휘관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올라가면 인차 요구하시는 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소.》

최유진소대장과 처녀교원에게 보내줄 책은 류성민동무가 전달해주는게 좋겠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다음날 류성민은 최유진이 있는 부대로 다시 찾아갔다. 그와 함께 책을 실은 자동차들이 전군의 부대들을 찾아 달려갔다.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병사들이 사는 그 어느 초소에서나 감격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화산이 터져오르는것과 같은 우뢰같은 그 환호성은 미친듯이 밀려들던 전쟁의 검은 구름을 순간에 활 밀어내고 분계선너머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적들의 총포성을 짓누르며 멀리멀리로 퍼져갔다.

《그렇다. 이 책들은 단순한 소설책들이 아니다.

## ☆혁명일화☆

# 류다른 비상소집

멀고도 험한 길 걷고걸어오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길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여가시는 성스러운 애국애민의 장정이다.

어느해 봄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의 한 중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대의 어디를 보나 흠잡을데없이 꾸러져있었던것이다. 하루밤을 숙영하여도 병실과 취사장, 위생실을 꾸러놓고 주변을 깨끗이 거둔 항일유격대원들의 끈진 살림살이기풍 그대로였다.

주변에 조성한 록화는 그야말로 만점이였다. 푸르려 설레이는 잎새들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포탄이 우박치는 전호가의 애솔포기를 정히 옮겨다심은 영웅전사의 조국애를 따라배우는 이곳 중대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전하여주는듯싶었다.

하얗게 피어난 아카시아꽃향기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을 줄곧 흐뭇하게 해드렸다.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을 끓이며 혁명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버리어가는 일당백 중대군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훈련장쪽으로 향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비상소집을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시면서 친히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찍어주시며 《...몽땅 부르시오.》라고 명령하시였다.

(무엇때문일가?)

예측할수 없는 의혹이 일군들의 가슴을 쳤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즉시 집행하겠다고 힘있게 대답올리였다. 하지만 그 일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의도를 다는 깨닫지 못하였다. 일군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모두 여기에 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견 정황이 발생하여 진행되는 비상소집도 아니고 무슨 사태가 생겨서 하는 비상소집도 아니라고, 좋은 일, 공정을 일반화하기

이것은 곧 대포이고 땅크이며 비행기이고 함선이 다. 그 어떤 강적도 단때에 짓부셔버릴 장군님식의 《핵탄》과도 같은것이다. 우리는 또 한번 《강훈》을 불렀다.》

류성민은 소설책을 불안고 쓸어보며 기빠서 어쩔줄 몰라하는 병사들을 감격에 젖은 눈길로 지켜보다가 불덩이같은것을 애써 삼켰다.

그리고는 책을 안은채 들먹이는 유진소대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멀리 평양하늘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위한 비상소집이라고, 아마 건군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비상소집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건군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류다른 비상소집!

하루빨리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꽃동산으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어리여 있는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일반적으로 적들과 항시적으로 대치되어있는 나라들에서 최고사령관의 비상소집은 국가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전투행동을 의미한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신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초소를 본때있게 꾸린 한 중대의 자그마한 성과를 전군과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려 이런 중대조치를 취하시였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높으신 애국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전선시찰의 길에서 록음이 우거지고 파일주렁진것을 보시면 그리도 기빠하시고 도로가 장마비에 파괴되거나 산에 나무가 없는것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의 전사들도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그처럼 애지중지 아끼고 가꾸어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류다른 비상소집의 의의를 더욱 강조하시며 단호히 명령하시였다.

비상소집명령은 즉시에 매 단위에 전달되였다. 해당 단위의 책임적인 지휘관들이 아카시아꽃향기 풍기는 자그마한 중대로 달려오는 류레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조선의 산천답게 그 면모를 일신시켜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력사의 갈피에 깊이깊이 새겨진 류다른 비상소집이였다.

리성국

# 정일봉은 웨친다

김만영

세계여  
다시금 새겨들으라  
정일봉의 저 축포성은  
제국주의 광풍으로부터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갈  
군대와 인민의 사생결단의 목소리이다  
기어이 고난을 뚫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조선의 굴함없는 의지의 분출이다

아직도 미제는 우리 인민을 잘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배고 죽을지언정  
망국노의 집에서  
노예의 밥은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체제를 한마디라도 헐  
뜯는다면  
우리 제도에 한개의 돌이라도 던진다면

우리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된 위력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리라

불에는 불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오, 이것이  
정일봉의 웨침이다  
백두의 선언이다

터치라, 축포여  
세계를 떨치라, 존엄이여, 자주권이여  
이 땅에 희세의 령장  
**김정일**장군이 계시는 한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우리 사회주의는 천만년 무궁번영할것이다!

# 철 령 이 여

리근지

불어스치는 바람도 군가런듯  
바위바위에 타는 철쭉꽃도  
선군의 붉은기런듯  
머리 쳐들면 하늘가에 치달은 철령  
에돌고 또 돌아 굽이굽이  
올라서니 가슴몽클 뜨겁구나  
허리치는 눈길 광풍을 헤치시며  
장군님 넘고 또 넘으신 철령이여

총창을 번쩍이며  
령굽이 돌아오는 저 대오가 아니냐  
장군님을 모신 영광  
승리의 총대높이 터치던 병사들이

원호물자 싣고 오르는  
저 인민들이 아니었더냐

장군님 걸으신 자욱을 따라  
선군의 붉은기 더 힘차게 날리는 인민이

이 령우에서 나는 본다  
총창으로 일어선 고지들  
창조로 끓는 공장과 기름진 들  
웃음으로 열리는 해빛밝은 창문들을

이 령우에서 승리의 폭풍을 부르신  
천출명장의 손길따라  
총창우에 맹세없는 전사들 뒤이어  
온 나라에 선군의 대오가 굽이쳤거니

장군님 발자욱으로 다져지고  
장군님 선군으로 넓어지고  
장군님 선군으로 세기에 우뚝 솟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령이여

오늘은 온 나라가 이 령우에 섰구나  
조선의 존엄을 지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총대로 굳건한  
온 나라가 섰거니

인민에겐 끝없는 행복의 길  
원썬들에겐 무자비한 철추의 길이여  
오, 광휘롭고 불멸할 선군전설로  
철령이여 영광으로 높이 솟아있으라  
장군님 선군업적 만대에 빛내며  
철령이여 총검으로 높이 솟아있으라

## 단시목록

### 전선길굽이굽이

## 아 로 임

함영주

군모우에 눈송이도 털어주시며  
어서 차단봉을 올리라고  
다정히 이르시던 그 새벽  
그이의 앞길 막아섰던  
전사의 애라는 아뢰임인가

-장군님  
여기는 최전선입니다

리정표마저도 끝난 곳에  
붓이 아니라  
최전연 병사들 심장으로 새긴  
저 글발

온 나라의 간절한 그 소원  
하나하나의 획이 되고 글발이 되어  
천만군민의 가슴  
뜨겁게 올려주는 저 아뢰임

리정표는 여기서 끝났어도  
결사옹위의 총대숲  
삶의 리정표로 끝없이 일떠세우며  
올리고 올려가고있어라

아, 여기는 최전선입니다

## 오 성 산

유영하

오성산 벼랑길 오르며  
외국의 무관단성원들  
제나름 생각도 많았네

이 위험한 최전방초소를  
위대한 령장께서  
어찌하여 자주 찾으셨을까  
혹시 교지우에

신형땅크...  
아니면 최신행미싸일기지가?...

아 무엇을 봤던가 무관단성원들  
교지우엔  
장군님 만나주신 병사들뿐

## 야전차바퀴자욱

오정로

한치 오르면  
두세치 미끄러져내리는  
얼음깔린 눈우에 새겨진  
장군님 야전차바퀴자욱

올려다보면  
눈사태 내리는 아슬한 벼랑  
내려다보면  
눈보라 내려쬐히는 만길 낭떠러지

우리 장군님  
야전차를 떠미시며

우리의 운명을 안고가신 자욱  
이렇듯 험준한 길에 놓였는가

시련을 눌러딜고  
승리자의 웃음으로  
행복에 겨울 때도  
때없이 들여다보노라

이 행복, 이 웃음을  
주추돌마냥 받들고있는  
아, 야전차 바퀴자욱!

## 장군님과 아이

김정곤

고지의 산발들이 안길듯 달려오네  
산허리 병영들이 스칠듯 지나가네  
위장포 눌러쓴 진지와 참호들이  
엇갈리며 다가오는 최전선구역

놀랍게도 책가방 멘  
전선마을 아이 하나  
소년단경례 부치고

길녘에 그린듯  
차창에 웃음을 물들이네

아아 장군님 시야엔  
그 불꽃같은 웃음 한점이  
고지보다 더 크게  
최전선 전역을  
꼭- 채우며 마주 안겨왔네

## 김정일, 그이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알렉산드르 브레쥬네프

봄우뢰와도 같이  
주체사상은 퇴성친다!  
꽃피는 평양은 위훈으로 부른다!  
세계여, 소리높이 자랑하라  
위대한 원수이시며 수령이신  
**김정일** 그이를!

그이는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분  
그이를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좋아한다

수령이시여 나의 심장은  
언제나 그대와 대화를 나눈다  
오늘날 나의 로씨야는  
그대의 로작들을 읽는다

**김정일!** 그대는  
세상에서 제일로 용감하신분!  
**김정일!**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분!  
세계의 프로레타리아의 손에는  
그대의 위대한 로작들이 쥐여져있다

더 높이 휘날려라 조선의 기발이여  
인민이여, 2월 16일을 노래하라!  
강철의 원수 **김정일!**  
그이께서 진두에 계시기에  
원썬는 멸망하고 우리는 백승떨치리!

(필자는 로씨야 시인임)



## 그리움의 메아리

류동호

### 그리움의 메아리

이 땅우에 동이 트고 새날이 열릴 때면  
고요속에 울려오네 마을길을 쓰는 소리  
전선길을 이어오실 장군님을 기다리며  
새벽길에 정을 담은 내 고향의 아침이여

잊지 못할 추억비낀 태성의 그 사연이  
세월 넘어 울려오네 그리움의 메아리로  
우리 마을 찾아오실 아버이를 마중가는  
그 진정의 꽃이 되어 맑고 푸른 아침이여

봄날에도 눈내려도 새벽길을 쓰는 소리  
이 땅우에 가득찼네 그리움의 노래처럼  
이 세상의 저 끝까지 장군님만 따를 마음  
그 마음에 해가 솟는 내 나라의 아침이여

전선길에 울려가라 그리움의 메아리  
장군님을 마중가는 내 나라의 아침이여

### 너와 나 한마음

머나먼 전선길 첫새벽 찬이슬  
너와 나 앞장서 헤칠수 없을가  
장군님 넘으실 깊은밤 령길에  
안녕의 주단길 펼칠수 없을가  
불타는 그리움아 네 먼저 달려가  
전선길에 우리 마음 펼쳐주려마

아버지장군님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의 한마음 드리자  
행복의 만리길 그이께 드리고

힘한 길 만리는 너와 나 헤치자  
불타는 그리움아 네 먼저 달려가  
전선길에 우리 마음 펼쳐주려마

너와 나 한마음 언제나 한생각  
장군님 건강을 간절히 바라네  
축원의 천만리 이 땅에 펼치며  
인민의 그리움 그 자욱 따르네  
불타는 그리움아 네 먼저 달려가  
전선길에 우리 마음 펼쳐주려마

## 병 사 소 식

고향땅이 들썩하게 전해온 병사소식  
기다리던 한장의 야전엽서 아니라네  
장군님 찍어주신 사랑의 기념사진  
텔레비죤화면에서 꿈만 같이 받아보네  
아 사랑의 병사소식 온 나라에 전해지네

그리운 부모형제 선생님과 벗들도  
신문에 난 병사소식 눈물겹게 새겨보네  
장군님을 뵈온 병사 사진속에 웃는 모습

천백장의 편지라도 이런 소식 못전하네  
아 사람의 병사소식 온 나라에 전해지네

병사들의 그리움과 고향땅의 그 경사  
아버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헤아리랴  
장군님은 기념사진 더 많이 찍어서  
병사들의 고향마다 보내주자 하시었네  
아 사랑의 병사소식 온 나라에 전해지네

## 사랑은 두 심장을 잇네

사랑은 사랑은 두 심장을 잇네  
처녀와 총각의 한마음을 잇네  
움트고 꽃피는 첫사랑의 순정  
들판에 그 정 바쳐 이삭을 가꾸었네  
이삭이 첫사랑인줄 가을날에 알았네

사랑은 사랑은 두 심장을 잇네  
애국의 한숨결 고통치게 했네  
처녀와 총각은 땀흘리며 가꾼

정깊은 들판에서 사랑을 고백했네  
이 땅이 맺어준 인연 소중하게 새겼네

사랑은 사랑은 두 심장을 잇네  
그 심장 바칠 곳 조국밖에 없네  
이삭이 넘치는 풍요한 가을은  
조국이 차리어준 큰 잔치상이라네  
조국이 청춘의 미래 축복하여준다네

## 아, 래일이면

희망은 봄날의 씨앗인가봐  
포부는 드넓은 대지인가봐  
행복의 씨앗을 뿌린 이 땅에  
오늘은 꽃피는 새봄이 왔네  
아 래일이면 그 마음 열매맺으면  
우리 생활 행복의 가을일거야

행복을 그 누가 가져다주랴  
땀흘려 가꿔야 우리것이지  
그 신념 애국의 뿌리가 되고  
그 열정 창조의 불길로 타네

아 래일이면 그 마음 열매맺으면  
우리 생활 행복의 가을일거야

행복의 씨앗은 오늘에 묻고  
마음은 희망찬 가을에 살라  
심장을 바치고 사랑을 바친  
조국의 미래는 아름다워라  
아 래일이면 그 마음 열매맺으면  
우리 생활 행복의 가을일거야

## 태양의 밝은 빛은 이남땅 멀리에도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조국찬가》를 읽고-

고철훈

첫 귀국선이 재일동포들을 싣고 어머니조국땅인 청진부두에 닿을 내린 때가 이제는 50년이 가까운 먼 일로 되어버렸으니 기억도 삭막해질수 있지만 그날의 감격적인 화폭만은 지금도 잊을수 없다.

환희와 눈물속에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디던 재일동포들!

(아- 조국!)

오열을 터치며 그들이 심장으로 부르짖은 이 웨침이야말로 자나깨나 그립던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정의 찬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문득 얼마전에 읽은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조국찬가》(남대현작)의 장면장면들이 뇌리를 스친다.

내가 안기고 온 겨레가 안기는 품, 그게 바로 조국의 품, 우리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라는 심원한 진리를 새겨주는 인상깊은 소설이었다.

### 구름우에는 언제나 태양이...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조국찬가》는 일본반동들의 류레없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곡절을 겪는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게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을 비쳐주시고 그들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의 서장에는 이러한 시구절이 있다.

비가 온다 시름겹던 땅이더라  
그러나 상심치 말아  
구름우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작품에 등장하는 총련부의장 현영민이 조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시창에서 일망무제하게 널려있는 구름층을 내려다보며 읊은것이다.

무거운 구름층을 사이에 두고 밑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에서는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는 자연계의 천지조화, 어쩐지 불가사의하게 여겨지기만 하는 이 자연계의 대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가는 서장의 이 장면을 통하여 작품의 종자를 상징적으로 시사해주고있다.

여기서 구름층우에 펼쳐진 하늘은 태양이 빛나는 조국이고 밑에 있는 땅은 바람세찬 일본땅을 의미한다. 소설은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울부

짖고 폭풍이 사납게 휘몰아친다 해도 구름우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이 비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본반동들의 책동으로 시련과 곡절을 겪어야 했던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빛같은 령도와 사랑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사실상 무거운 구름층이 뒤덮은 일본땅은 곳은 비내리고 바람 세찬 차디찬 세상이었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미쳐날뛰는 반동들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우리 녀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우익장패들을 내몰아 총련중앙회관과 동해상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몰려가 소동을 일으켰으며 대낮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총련 오사까본부와 교토본부에 대한 강제수색놀음까지 벌리였다. 총련을 《분렬》, 《와해》가 아니라 《붕괴》에로 몰아가려는 놈들의 악랄한 책동이였다.

총련의 앞길에는 시련이 가로놓이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이국의 엄혹한 세상에서 풍파를 겪는 이러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해빛이 비쳐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름우에 있는 태양,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빛같은 령도와 사랑의 손길이다.

《구름우에는 태양이》

소설은 이러한 종자를 심고 가꾸어 형상의 꽃을 피움으로써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종자는 소설의 종장에 주어진 현영민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더욱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현영민은 언제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우는것으로 하여 일본땅에는 해빛이 제대로 비쳐들지 않는다고, 늘 구름이 끼여있는 이 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름우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리진수와 홍선희의 모습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도량과 뜨거운 민족애를 또다시 절감한 그는 그렇지만 않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태양의 그 밝은 빛을 구름이 결코 막지도 못하거니와 막을수도 없는것이다.

조국의 따사로운 해빛은 그 두터운 구름장들을 헤치고 언제나 이 일본땅에 사는 동포들을 끌고

루 비쳐주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어는 지진으로 파헤쳐진 땅속깊이까지도, 그것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속속들이 따뜻이 비쳐주고있다.

그래서 내가 안기고 모든 동포들이 안기고 온 겨레가 안기는 꿈, 그게 바로 조국의 꿈, 우리 장군님의 꿈이 아닌가!

(아- 조국!)

...

저도 모르게 부르짖은 현영민의 심장의 목소리 야말로 어느 가수의 노래와도 비길수 없는 열정의 조국찬가인것이다.

이렇듯 소설의 서장과 종장은 《구름위에 태양이》라는 작품의 종자를 시사하고 재확인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 한쪽의 그림을 두고

소설에는 한쪽의 그림이 펼쳐진다.

인자하신 안광에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어딘가 앞쪽에 시선을 주신채 한덕수의장이 타고있는 밀차를 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

소설을 읽으면서 누구나가 이 그림에 마음끌리는것은 이 한쪽의 그림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귀중한 혁명유산인 총련조직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과 언제나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고 수령님만을 내세우시는 그이의 겸허하신 풍모를 볼수 있기때문이다.

사실 리진수가 한덕수의장의 담당간호원 홍선희의 이야기를 듣고 초기에 구상한 그림의 중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었다.

줄무늬치로복을 입은 한의장이 탄 밀차를 천천히 밀어주시며 의장동지만 아니라 총련일군들아니, 재일동포모두를 껏수레에 태우고싶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진수는 이 그림이야말로 자기에게 참된 생을 주고 사랑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화폭이며 한의장동지를 비롯한 재일동포모두가 울리는 다함없는 흥모의 화폭으로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미술창작사에 찾아오시여 진수가 시도하는 그림초안을 한참 눈여겨보시고 전형적인 화폭을 찾아내여 형상하려거든 그림의 중심에 웅당 위대한 수령님을 모셔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왜냐하면 총련과 관계되는 일, 재일동포들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업적이기때문이요. 총련이 결성된것도,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긴것도 다 수령님이 계시였기때문이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귀중한 유산이란 말이요. 의장동지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초대소에 먼저 나오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오.》

이 얼마나 가슴뜨겁게 올려주는 말씀인가.

언제나 수령님만을 생각하고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겸허하고 소탈하신 풍모가 한쪽의 그림에 그대로 어려 있다.

사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로 말하면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온 강산이 비애에 몸부림치던 7월의 대국상 이후에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기 위해 온갖 난국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이후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은 날로 더 우심해지고 그바람에 일부 동포들은 동요를 일으켜 귀화하는가 하면 자식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는것조차 주저하였다. 이 시련이야말로 총련앞에 나선 가장 심각한 문제일뿐아니라 총련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소설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여 총련을 동포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통일전선조직체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미핵대결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국제정세와 특히 일본반동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으로 하여 시련을 겪는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고 총련사업을 새로운 환경과 동포들의 요구에 맞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현명하게 가르쳐주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총련일군들에게 있어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총련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소유하여야 총련이 동포대중과 하나로 융합될수 있으며 동포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높이고 민족적단합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영민부의장으로부터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동포들속에서 신심과 신념을 주는 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밀고나가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는 신심과 신념을 어떻게 주겠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환하는데 있다고 보시였다.

《나는 그 비결이 바로 새로운 사업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달라진 현실과 동포들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 빈 구호가 아니라 동포들의 리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방법을 완전히 전화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업방법의 전환!

이 가르치심이야말로 4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을 결성할 때 로선을 전환할데 대하여 제시해주신 강령적지침과 같은것이며 총련을 애국, 애족, 애민의 련합체, 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자기의 자세로 돌아서게 하는 현명한 가르치심이었다. 하기에 현영민부의장은 총련중앙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을 수령님께서 총련을 결성할 때 제시해주신 강령적지침과 같은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것이다.

한덕수의장 역시 사상보다 피를 먼저 내세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았을 때 문득 40여년전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는 병문안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손수 밀어주시는 밀차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한다.

(장군님께서 밀어주시는 밀차에 내가 타고있듯이 우리 총련도 이런 사랑, 이런 믿음으로 하여 전진해온것이 아닌가! 어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밀어주시는 밀차를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밀어주시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보면 소설에 펼쳐지는 한쪽의 그림,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한덕수의장이 타고있는 밀차를 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처럼 안겨오기도 한다. 인품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화폭의 중심에서 눈부시게 빛나는것 같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난 총련, 그리하여 세계교포운동의 모범으로 빛을 뿌리게 된 그 총련이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와 사랑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며 활기에 넘치는것이 아닌가. 소설은 이렇듯 한쪽의 그림을 통하여 총련사업에 대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일관성과 계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수령님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기신 총련조직을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이 한쪽의 그림이야말로 미술가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작가의 기발한 착상이며 값있는 발견이라고 말할수 있다.

## 아름다운 사랑의 료리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은 서로 련관되면서도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것만큼 작품의 바탕에 흐르는 감정정서가 일률적일수 없다.

날바다를 길들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를 보여준 장편소설 《서해전역》(박태수작)이나 강제정신의 봉화를 지퍼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세계를 형상한 장편소설 《강제정신》(리신현작)의 감정흐름이 결코 장편소설 《조국찬가》와 같을수 없다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그렇다면 장편소설 《조국찬가》에서 형상의 밑바탕에 흐르는 주도적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국땅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총련일군들과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의 감정이며

참된 인간들속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료리이다.

소설에는 일본의 정치평론가 하야시 에이지가 료정에서 현영민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대목이 있다. 예상치 않던 질문에 현영민은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한가지 생각이 불시에 뇌리를 쳐서 이렇게 대답한다.

《김정일장군님의 제일 큰 고민은 우리들 문제입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때문에 늘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참을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제때에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가슴아픈 고민을 하시는것이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이 더 걱정되시여 자나깨나 일본땅에 있는 재일동포들의 신상에 대하여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정의 세계야말로 장편소설 《조국찬가》에 흐르고있는 주도적인 감정인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는 총련 한덕수의장에게 돌려지는 바다같이 넓은 은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의장의 병치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치료정형에 대해 매일처럼 보고받으실뿐아니라 수시로 숙소에 찾아오시여서는 그의 식사정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다.

한의장이 외람되지만 병치료차로 온김에 그냥 조국에 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아뢰었을 때에는 건강이 걱정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의장동지는 일본에 계셔야 한다고, 그것은 의장동지가 일본에 있어야 총련이 더 든든하고 동포들이 좋아하기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다.

총련이자 의장동지이고 의장동지이자 총련이라는 믿음에 넘친 말씀, 의장동지는 수령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주체해외교포운동의 원로인 동시에 모든 동포가정의 세대주나 같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힘이 되고 불사약이 되어 한의장은 다시 대지를 활보하며 총련조직을 새롭게 꾸려나가는 사업에 떨쳐나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랑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사업방법전환에 대한 가르치심을 총련결성 당시 수령님께서 로선을 전환할데 대하여 제시해주신 강령적지침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앞장에 서서 구현해나가는 새형의 진취적인 총련일군 현영민부의장에게도 돌려진다. 그는 한때 원칙만을 내세우던 자신의 편협한 사업태도로 하여 총련조직에서 탈퇴하고 귀화한 진수의 아버지 리기하를 배신자로, 마주할 가치가 없는 변절자로 저주하며 배척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총련내부문제와 귀화자문제, 태부로인의 남조선방문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전처럼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낯은

관점에서가 아니라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과 요구에 맞게 일해나가는 대법한 일군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에는 하나의 룰리가 있다.

그것은 언제나 사상보다 피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다. 피가 같으면 뜻이 같아질수 있지만 뜻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피를 대신할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도 광폭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재일동포라는 말에 총련뿐아니라 미조직동포나 귀화한 사람, 지어는 《민단》계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시키시는 통이 크고 넓으신 도량,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동포, 겨레에 대한 사랑의 룰리인 것이다.

소설이 제기하는 사랑의 룰리에 대한 문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조국애로 귀국한 리진수청년파의 관계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진수로 말하면 귀화한 아버지와 이북어머니의 슬하에서 느끼는 가정적고민을 뿌리치려고 단신으로 조국으로 온 청년이다. 아버지와 결별한 외로운 몸이나 조국은 그를 따듯이 품어주었고 원하던 미술공부까지 시켜주었다. 더우기 한학급의 처녀 수옥이와 사랑관계를 맺으면서 언제나 마흔구석을 차지했던 고독감이 사라지고 구속이 없고 희망에 넘친 생활의 참맛을 비로소 맛보는 진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가정적처지의 차이로 하여 깨어지고만다. 수옥이의 아버지인 정무원 부부장 최민호는 진수의 아버지가 조국을 등지고 귀화한 《배신자》라며 기어코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사랑이 우정이나 동정으로부터 시작될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보다 확고한 감정에 토대해야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앞날에 대한 지향과도 일치돼야 하는게 아니겠소.》

수옥이 아버지의 이 말에 진수는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우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으로 하여 온몸이 줄어드는듯 하였다. 그때로부터 진수는 모든 희망을 날려보내고 배치된 미술창작사가 아닌 영평지구의 금속공장에 내려가 용해공이 되는 것이다.

영평지구를 현지도하시면서 진수를 몸소 만나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이 아프시었다. 그가 조국에 안겨서도 애꿎은 리유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것이 피로우시었다. 그럴수록 자기 딸을 위해 남의 자식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입힌 최민호부부장이 야속하기 그지없으시었다.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매 인간들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꽃피우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개인의 사랑이 가정이나 이웃의 화목으로, 나아가서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하나의 튼튼한 뉴대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때만이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고 그 나라는 화목한 나라며 그 인민

은 행복한 인민들인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수와 그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결코 재일동포 한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으시었다. 더우기 《민단》산하 사람이나 귀화한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보는 최민호의 솔직한 한마디에 간파해서는 안될 문제 즉 단순한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겨레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느끼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국애로 귀국한 사람이요, 귀화한 사람의 자식이요 하면서 진수를 배정하게 배척한 최민호를 우리의 일심단결에 리익은 고사하고 해를 주는 일군, 우리에게 필요없는 일군이 라고 준렬히 비판하시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분이시기에 한덕수의장에게 병문안을 가셨을 때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담당간호원인 홍선희에게 애인이 있는가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실사 지금은 없다 해도 앞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면 말이요, 절대로 그의 처지를 먼저 따지거나 옆사람의 강요만 따르지 말라는거요. 사랑이야 원래 상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고 그것도 불우한 상대를 위해 바치는 사랑일수록 더 고상한것이 아니겠소. 내가 하고싶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거요. 알겠소?》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룰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후날 홍선희가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진수의 피로움을 풀어주기 위해 그와 사랑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세상에 피로운 사랑을 잊게 해주는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수동무에 대해 걱정했더니 그 다음날로 이 선희가 찾아왔소. 보시오. 비로 이런 감정이 우리 인민의 감정입니다. 한사람의 피로움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을 가시는 진정이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서로가 혈육처럼 하나로 영키여있는 우리 인민들의 이런 불같은 감정을 그 누가 당해낸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세계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뜨거운 민족애와 인간애를 지니셨기에 재일동포들이 지진피해를 입었을때에는 조국의 사정도 어려웠으나 지체없이 막대한 위문금을 보내주시며 그것을 총련산하동포뿐아니라 민단산하 미조직동포들에게까지 다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분의 민족에 대한 사랑,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구나!)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리기하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보다 더한 경탄과 감동을 누릴길 없어속으로 이렇게 웨친 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조국찬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해빛이 차넘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며

그 품에 안겨사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사랑의 노래이다.

## 몇마디만 더...

글을 마감하면서 몇마디만 더 첨부하련다.

원래 장편소설 《조국찬가》는 다른 총서작품들과 달리 조국땅이 아닌 일본땅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위주로 취급하는것으로 하여 총련사업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선을 일관하게 그리는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아마도 그런 사정으로 해서 작가가 총련이 가장 간고했던 주체83(1994)년 9월부터 주체84(1995)년 1월까지의 약 반년이라는 짧은 생활에서 소재를 선택하였는지도 모른다. 이 시기로 말하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라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들어 온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었던 시기이며 이를 계기로 조미핵대결과 《핵의혹》을 구실로 벌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일본반동들의 총련파괴책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이다. 국내국제적으로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도 어느때 없는 혼란과 곤경을 겪게 된 이러한 시기를 설정한것은 이야기를 예리한 극적정황속에서 전개해나가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있을것이다.

소설에서는 총련사업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선을 일관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두 중요인물을 등장시키고있다. 그 인물이 바로 새형의 총련일군으로 전형화된 부의장 현영민과 조국을 찾아온 청년 리진수이다.

특히 귀화한 상공인의 아들 리진수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총련사업, 총련일군들과 귀화한 동포조국에 온 청년과 조국처녀와의 관계를 생활적으로 맺어주고 풀어나가는 매개인물인 동시에 촉매

적인 인물인것으로 하여 형상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리진수야말로 이 소설의 사건조직과 등장인물들의 관계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기에 장편소설에서 중요한 형상파제로 제기되고있는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료리에 대한 문제도 경애하는 장군님과 리진수 그리고 진수와 조국처녀 홍선희와의 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한덕수의장의 담당간호원 홍선희의 성격형상이다.

잘 생겼다가보다 오희한 코와 동그란 눈 그리고 꼭 다물려있는 자그마한 입, 그 오돌찬 용모처럼 발랄하고 생기에 넘치는 선희의 성격을 통해서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들에 대한 또 조국으로 돌아온 동포들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진정이 넘친 뜨거운 감정을 엿보게 한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선희가 것처럼 사랑스럽고 고마운 처녀로 안겨오는것이 아닌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믿음으로 엮혀진 혈육의 관계!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혈육이라는, 한피줄을 타고났다는 겨레에 대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이 비치기에 조국은 두려움없이 그 어떤 광풍도 헤쳐나가며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구름우에는 언제나 태양이  
그 태양 머리우에 빛나기에  
우리는 두려움 모른다  
그 어떤 광풍도 헤쳐나간다  
태양! 아- 빛나는 우리의 태양...

## 가사

### 달마중 가세

박수연

동두동무 손을 잡고 달마중 가세  
서로 찾고 부르며 달마중 가세  
앞산에 솟는 달 먼저 맞으리  
산울림도 화답하며 달을 부르네  
우리 민속명절날 정월대보름날  
가슴속 소원안고 달마중 가세

민족옷을 모두모두 펼쳐 입으니  
보름달도 싱글병글 우릴 반기네  
달을 반겨맞으면 행복 누리고

달을 반겨주며는 풍년 온다지  
우리 민속명절날 정월대보름날  
가슴속 소원안고 달마중 가세

달을 먼저 보며는 장수한다지  
달을 먼저 맞으면 소원푼다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합치여  
장군님 천만년 건강하시라  
우리 민속명절날 정월대보름날  
가슴속 소원안고 달마중 가세



## 흥남의 환희

서진명

### 그리움의 세월과 꿈같은 행복

어쩐지 내게는 놀랍게 생각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꼭 30 년만에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다는 말이  
우리가 정녕 그렇게 긴긴 세월을  
장군님과 떨어져 살았던 말인가

그래 날마다 신문과 방송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단 말인가  
병사들을 찾고 찾으시는 장군님 소식  
그래 날마다 텔레비죤화면에서  
만나뵈지 않았단 말인가  
초소길을 공장길 농장길로 이어가시는  
장군님 자애로운 그 영상

천백배로 셈샷는 힘이였노라  
겹쳐드는 시련의 파도앞에서도  
절망의 한숨을 모르게 한  
고난의 먹장구름을 헤치며  
소리 큰 웃음을 터치게 한 락관이였노라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장군님은

진정 우리 어느 하루라도  
그이품을 떠나 살았다면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 안아올린  
개건현대화된 비료탑과 물전해공정  
행복한 나날에도 엄두를 못냈던  
오늘의 이 전변을 생각할수 있었을것인가!

기업소가 몇해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이제 내가 준 파업만 수행하면  
멋쟁이 기업소가 될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는 장군님을 우리러 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우리 지녔을것인가!

격정으로 달아오른 이 가슴을 터쳐  
온 나라가 다 듣게 웨치고싶다  
오랜 세월 몸은 떨어져 살았어도  
마음은 늘 장군님 가까이에 산  
그 그리움의 세월이 있어  
행복과 영광의 절정우에 올라선  
흥남의 오늘  
보다 휘황한 래일이 있다고!

###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데...

비, 9월의 가을비는  
창밖에 여전히 내리고있는데  
그이의 안광에서 빛발쳐 나오는듯  
장군님을 모신 방안에는  
밝은 햇빛이 차넘치고있었네

전세기의 유물, 낡은 탑을 들어내고  
개건현대화된 새탑을 일떠세운  
흥남사람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며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과분한 치하도 해주시고

거듭되는 실패끝에 만들어낸

새 설비를 보시며  
아무리 최첨단설비라고 해도  
우리 사람들이 한번 보면 다 만들어낸다고  
못내 대견해하시고

무엇부터 앞세우는가  
어느 새 기술 도입을 먼저 하는가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해주시고  
엇갈리는 의견을 들어주시며  
잠시 생각이 깊으시던 우리 장군님

인민이 그 덕을 제일 빨리 볼수 있는  
새 기술 도입을 먼저 다그쳐끝내고

뒤미처 다른 공정들을 따라세우자고  
걸린 문제까지 즉석에서 풀어주실 때  
일군들도 기술자들도  
눈가에 뜨거운것을 담고야말았네

생산활성화와 전망 타산안을 두고  
공회전만 거둬하던 협의회는 몇십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기에  
먼 앞날의 일로 미루었던

새 기술 도입도, 새 공정 도입도  
신심에 넘쳐 내밀수 있게 되었거니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낮게 드리웠던 비구름이 들리고  
밝고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내리는듯  
일군들은 눈굽을 씻으며 거둬거둬 우러러보았네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  
새 세기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을!

## 꿈이 아닙니다

희망과 열정에 사는 시인처럼  
전투지휘부에서 만난 반백의 기사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네  
-꿈이 아닙니다  
하조장마다 비료폭포가 쏟아질 날이

그래 그게 정말이란 말인가  
싱그러운 바람 넘치는 공해없는 일터에서  
전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전기로  
비료원료를 안아올릴 그날이  
눈앞에 바투 다가왔다는것이

그래 꿈아닌 현실이란 말인가  
물전해공정의 개건현대화로  
생산이 활성화된 기업소에  
새 공정까지 꾸려져  
하조장마다 풍년비료가 쏟아져내릴 날이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는것이

금시 귀전에 들리는것 같았네  
김책-홍남  
천리배길을 지척처럼 되게 하며  
원료를 싣고 온 수송선의 배고동소리  
그 소리에 화답하며  
구내선을 떠나는 비료열차의 기적소리

이 가슴도 마냥 기쁨에 설레었네  
앞날의 일로만 남아있던 좋은 일들이  
가을날의 열매처럼 주렁지는데  
이런 희한한 전변의 세월에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으로  
홍남사람들의 긍지높은 목소리에  
달아오른 내 목소리도 합치고싶었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풍년비료를 풍족히 보내줄 날은  
정말 먼 앞날이 아니라고!  
바로 이렇게 생활로 펼쳐지고있다고!

## 홍남은 환희의 그날에 살고있다!

굳이 묻지 말라  
부지런한 동해의 물결도  
아직 해를 받들어올릴념을 못하는  
어둑새벽  
조명등 밝은 비료공장정문으로  
어이하여 사람들의 물결  
그칠새없이 밀려들고있는지

굳이 묻지 말라  
어느결에 해는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은 총총해도  
전해조 조립장에서 더운 땀을 흘리는  
남편과 아들과 딸을 찾아  
저녁밥을 들고온 너인들의 눈빛이

왜 그러도 빛나고있는지

예대로 하루는 24시간이여도  
장군님 몸소 찾아오시여 주신  
그 영예로운 과업, 책임적인 과업으로  
어깨들은 하나같이 무거워  
심장들은 하나같이 불타올라  
사흘, 열흘일감을 하루에 해제끼는  
홍남비료공장사람들

구내길을 걷는, 일터로 오가는  
바쁘고도 힘찬 발걸음마다에는  
마라손주로를 힘차게 달리며  
결승선으로 마음 앞세워가는 선수와 같이

완공의 날을 향해 걸음보다 앞서 달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리고

조립공이 만들어내는 발브 하나  
벽체에 얹혀지는 벽돌 한장에도  
찬비를 맞으시며 찾아오셨던 장군님께  
한시바삐 기쁨 드리려는  
열화같이 타오르는 그 충성이 어리고

그 누가 시켜서, 독촉을 해서  
다그치는 걸음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이 끌려  
심장들이 세차게 고동쳐  
높이 세운 하루계획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혁신의 한낮을 창조의 밤으로 이어가고있거니

지구의 공전으로 밝아오고 저무는  
그런 레사로운 날과 달이 아니다  
개건현대화할 전해조 대수까지 정해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받들어  
하나같이 뿜어오른 심장들

그 심장들이 뜨거운 불로 타올라  
아름다운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며  
멀지 않아 장군님을 다시 모실  
다시 모시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아 흥남은 환희의 그날에 살고있다!  
영광의 그날에 살고있다!

## 상봉과 작별에 대한 시

-한 총련일군이 부른 노래-

김영애

상봉이 뜨거울수록  
작별은 더 눈물겨운것인가  
하늘길은 멀리 나를 부르건만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는 평양  
떠나고싶지 않은 장군님품이어

정녕 작별해야 하는가  
동지로 불러 품어주시는 장군님의 품 떠나  
다시 이국으로 날아가야 하는가

잊을수 없구나  
하많은 상봉과 작별이 이어지는것이  
인생길이라건만  
나의 인생을  
변치 않는 애국의 한길에 세워준  
우리 장군님과의 그 상봉

고향에 찾아오는 자식을 맞아주는 어머니처럼  
몸소 정원에 나오시여  
나를 기다려주시던 그이의 모습  
잘 왔다고 정말 반갑다고  
뜨겁게 안아주시던 그 사랑에  
내 처음 눈물로 안겨본 어버이품이어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있어라  
《동지애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길에  
영원한 동행자가 되자고 하시며

하늘같은 믿음 주시던 그이의 말씀  
죽어선들 잊으랴  
작별의 시각  
잘 가라는 말보다  
잘 갔다오라고 인사하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친근한 어버이음성

구름너머 멀리 내 가는 이역은  
위협과 공갈의 칼바람 휩쓰는 곳  
허나 두려움 없으랴  
내 오늘 평양을 떠나도  
고향집에 언제나  
어버이가 나를 기다려주시기에

한번 믿으시면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있고  
우리의 가슴속에 그이 계시기에  
우리 장군님과 작별을 몰라라

오 상봉과 작별이 이어진것이  
인생길이라지만  
장군님과 뜻으로 정으로 맺어진  
영원한 동행자들의 길은  
상봉만 있고 작별은 없는 길  
장군님 그 품은  
영원한 선군혁명동지로 품어주시는  
영원한 상봉의 품이어라

## 실탄사격장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전투적위력을 툇튼히 다지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의 자욱은 오늘도 군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였고 동지들을 사랑하였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주체38(1949)년 초여름 어느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한 사격장에서 인민군군인들이 실탄사격을 한다는것을 아시고 일군들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시였다. 자동차가 사격장이 있는 잔솔밭에 들어서자 한 일군이 김정숙동지께 여기에서 한번 사격해보고 가시자고 청을 드리였다. 그는 어려서 유격대에 입대하여 김정숙동지의 사랑속에서 처음으로 총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란 소년중대출신이였다. 그이께서는 정 소원이라면 한번씩만 쏘보고 곧 떠나자고 말씀하시며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는 기쁨에 겨워 사격목표를 급히 마련하였다. 목표는 50-60미터앞에 있는 잔솔가지 10 개였다. 먼저 권총을 잡은 그 일군은 일곱개를 맞히고 아쉬한듯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이어 김정숙동지께서 권총을 들고 나서시자 일군은 산에서 싸우실 때 사격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한번 량손으로 쏘아보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총을 김정숙동지께 드렸다. 너그러운 웃으시며 그의 총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량손에 권총을 쥐시고 목표를 별로 겨냥하시는 기색이 없이 연방 쏘시였다. 10 개의 술가지가 칼로 베인듯 전부 떨어지고말았다.

순간 가까운 술밭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실탄사격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군인들이 때마침 술밭에서 휴식을 하다가 김정숙동지께서 사격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것이다.

이때 김정숙동지를 알아본 부대지휘관이 달려와서 김정숙동지께 정중히 보고드리였다. 그제야 그처럼 신비한 사격술을 보여주신분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군인들의

놀라움과 기쁨은 이를데없이 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실탄사격장으로 가시여 사격에 열중하고있는 군인들을 대견스레 바라보시다가 한 동무에게 언제 입대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석달전에 입대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을 많이 쏘보지 못했겠다고 하시며 조준할때 앞의 목표가 무엇으로 보이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전사는 어떻게 대답을 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있었다.

그러는 그의 총잡은 손을 꼭 잡아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론 저것은 나무로 만든 목표물이다. 그러나 전사가 총을 잡고 조준할 때에는 저것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계급적원썹들의 가슴팍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총잡은 전사의 가슴도 떨리지 않고 탄알이 어김없이 명중되게 될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때 모여섰던 군인들이 김정숙동지께 어려움도 있고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될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실것을 청드렸다.

참으로 어린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스스럼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단란한 분위기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그 무슨 비결이 따로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이 사격술을 연마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동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동무들의 심장이 언제나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야 하며 오직 그런 전사만이 명사수로 될수 있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입니다. …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는 심장, 이것이 명사수의 비결이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격동을 안겨주었고 백발백중의 명사수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대로 방아쇠를 당기였기에 그날의 사격에서 구분대의 군인들은 모두 《우》의 성적을 쟁취하였다.

# 정 일 봉

백하

## 제 I 장

### 1

백두산에 번개친다  
거대한 산체를 먹구름에 다 잠그고  
온 하늘에 시퍼런 화광을 터치며  
백두산에 번개친다  
우박을 쏟으며 눈기둥 솟구며  
네 계절이 함께 뒤섞여  
백두산에 우뢰친다

달리는 차창밖에선 쉽없이  
무서운 폭발과 불덩이의 질주  
하늘우의 차창가에 앉아계신  
장군님은 온화하신 얼굴  
짜르릉-짹!  
그 어떤 거대한 쇠몽치가  
차체를 후려갈기는가  
덜컹!  
차가 벗어섰다

새파랗게 질린 운전사  
《더 갈수 없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러자 뒤에 앉은  
전적지관리원 진달래  
참고참던 간곡한 호소  
《저희들은 여기서  
몸이 부서져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속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서주십시오》

장군님 몸을 돌리셨다  
《보시오  
저런 속에서  
조각가들이 현실체험을 하고있는데  
그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섭니까》

백두산전적지를 돌아보시던 장군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장의 조각가들  
백두산정에 가설막을 짓고  
현실체험하고있다는 소식 들으시고  
힘한 날씨에 길을 떠나셨나니

장군님 자리를 옮기시여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였다  
그리고 차안을 둘러보시며  
뜻있게 웃어보이신다  
《저 험한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까  
창작단 동무들을 데리고 나온  
조각가 정호룡동무는  
나의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입니다  
자, 또 감시다  
한번 하늘과 대결해봅시다》

### 2

돌연 절벽이 갈라졌는가  
굴러내린다 집채같은 돌들이  
삼시에 온 산엔  
큰 돌이 내리며 바위를 치는 소리  
허나 장군님 아시는듯 모르시는듯  
너무도 태연하신 얼굴

아, 장군님  
하늘땅이 뒤집히는 사선길을  
몸소 헤치시며  
조용히 추억에 잠기셨다  
그리운 추억속에

정호룡!  
백두의 행군길에서 만났던  
미더운 젊은이  
답사차가 각일각  
벼랑길에서 미끄러지던 그찰나  
숲속에서 기적같이 나타나  
차바퀴밑에 통나무를 찌르고  
살점이 다 터져나가도록

끝끝내 제 어깨우로 차를 넘겨준  
있지 못할 벌목공

조국진군의 날 자기도  
김정숙어머님 주고 가신  
그 두되박의 밀종자로  
살아난 목숨이라며  
사령부의 비상미로 소생한 몸  
우리 당을 잘 받들어가겠다고  
진정을 터놓고는  
거북한듯 웃어보이던  
소박한 청년

사랑스러웠다  
못잊을 1956년의 그 한낮  
장군님 삼지연못가를 함께 거니시며  
앞으로 이 백두산일대에  
항일의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울  
크나큰 구상을 펼치셨을 때  
그리도 흥분을 못이기던 그

허나 그이께서도 모르시었다  
**김정일**동지의 그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그길로 미술대학 조각학부에 들어가  
스스로 조각가가 된줄은  
장군님 백두산행군길에서  
품어키우신 전사  
기념탑건설장에서  
열손가락이 다 터진 그가  
이 산정의 폭풍과 눈보라를  
어떻게 견디여 내고있는가

### 3

장군님의 담력앞에  
지동치던 눈보라도 물러섰는가  
폭풍이 멎은 산정-  
허나 어디에도 없다  
가설막이 폭풍에 날려갔는가  
사방엔 깨여진 널판자들뿐  
《정호룡동무- 정호룡동무-》  
진달래는 경황없이  
눈무지를 파헤친다  
모두 협곡의 눈을  
파헤치고 또 파헤친다  
폭풍이 무저놓은 눈언덕을

드러났다  
한사람 또 한사람  
눈속에 묻혀있는 조각가들

장군님 얼굴을 비벼주고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시오, 정신을...》

번쩍 눈을 뜨고  
애써 초점을 모으던 정호룡  
너무도 뜻밖에  
산정에 나타나신 장군님앞에  
제눈을 의심하듯 믿어지지 않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소리쳐 부르고 웨치며  
몸을 튼다, 용을 쓴다

장군님은 정호룡을 껴안으시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호룡은 껍껍 목이 막혀 아뢰여라  
《어제밤 폭풍에 그만  
눈에 묻혀서...》  
말끝을 못맺는다  
장군님 그를 안으신채  
쓰다듬고 또 어루만지신다

장군님 품에 안겨  
그이의 옷깃을 다 적시며  
뜨거이 오열을 쏟던 정호룡  
아뢰이는 뜻밖의 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념탑에 유격대원이 너무 많다고  
총대를 벗기고  
사복을 입히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선  
총대를 용광로에 집어넣고있다고》

검푸른 바위도  
짱-갈라져나가는듯  
총대를 벗기다니  
투사들의 어깨에서  
총대를 벗기다니  
드르릉!  
또다시 먼 우뢰소리  
온 산이 몸을 뒸다

저 대륙너머  
수도의 네거리엔  
검을 마사 보습을 만드는  
요란스런 대형선전화들  
빈잡한 역두마다엔  
《군비철폐론》을 떠들며 터쳐놓은  
제대군인들의 홍수사래  
대륙을 휩쓰는 《평화바람》

아, 총!  
 혁명의 배신자들  
 세계혁명의 어깨에서 총을 벗겨  
 제국주의제물로 바치고있거니

백두산이 분노에 떠다  
 총대의 숲을 일으킨  
 안도의 산발이 격분에 들먹인다  
 대 《토벌》의 불바다속에서도  
 끝까지 총을 놓지 않은 요영구  
 총을 던지고 다시 노예가 되느냐  
 총대의 주인이 되느냐  
 운명의 갈림길에서  
 수령님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리고  
 북만원정의 큰 자욱을 떠신 곳  
 요영구가 일어선다  
 불길같이 일어선다

#### 4

항일의 광야를  
 숨엄하게 굽어보시던 장군님  
 낮으나 엄숙하신 음성  
 《요사이 또 수령님께서  
 저 요영구를 잊지 못하시어  
 오래도록 회고하시였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나가든  
 그 누가 무어라고 하든  
 우리는 항일의 대기념비에  
 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요영구  
 생사운명의 그 난국속에서도  
 우리 수령님  
 벗들을 위해  
 세계혁명을 위해  
 결사의 사득판을 넘고 또 넘으며  
 총성이 멎은 북만땅에  
 총대의 숲을 일으켜주셨나니  
 어찌 잊으랴  
 수령님 안아키우신 대부대를  
 온 북만땅에 남겨두시고  
 경위대만 데리고 돌아오셨나니  
 아, 요영구 요영구  
 천만년 잊지 못할 요영구

눈덮인 부석을  
 밟고밟으시던 장군님  
 멎으시었다 정호룡앞에  
 금시 준절하신 말씀이 울릴 듯

허나 그이께선 너무도 뜻밖의 말씀  
 《정호룡동무  
 나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네? 헌데 무슨 그림을...》  
 《저 요영구에 대한 그림입니다》  
 정호룡은 그 뜻을 다 새기지 못해  
 《그 그림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이의 말씀은 길지 않았다  
 《내 방에 걸어놓으려고 그러합니다  
 요영구정신은 총대정신입니다  
 나는 아침저녁 그 그림을 보며  
 위대한 수령님 총대로 개척하신  
 백두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총대로 완성하겠습니다》

#### 5

오, 백두밀영  
 소백수굴이여  
 말하여라  
 백두의 천출명장을 모시려  
 갈기 추켜든 룡마바위를 세워놓고  
 너 몇천 몇만년을 기다렸더냐

항일대전의 격전장  
 총대의 우뢰속에  
 백두산악을 뒤흔들며 솟아오른  
 백두의 거성  
 빨찌산의 아들

나치즘의 무한궤도가  
 사회주의문턱을 넘어 육박할 때  
 인류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은 그때

오직 총대로  
 지구우에서  
 침략과 예측을 끝장내려  
 서슬푸른 장검바위를  
 백두의 하늘에 높이 추켜들고  
 폭풍과 얼음의 산악에  
 탄생의 봄우뢰를 터친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

10대에  
 최고사령부 작전대에 서시고  
 20대에  
 현대제국주의론의 철추로  
 미제에 최후를 선고하신  
 강철의 장군

방선천리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며  
혁명을 이끄시는  
오,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 제2장

### 1

작전국장과 함께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선  
인민무력부일군  
시꺼먼 눈썹이 움썹움썹  
《서해의 적함들이  
끝내 포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소청도앞바다엔  
포연이 자욱합니다》  
그의 온몸에서도 물씬물씬  
초연내가 풍기는듯

《지금 세계통신들이  
다투어 예측을 날리고있습니다  
조선서해에서 이제  
큰 군사사건이 터진다고》  
작전국장이  
두터운 통신자료를 드리였다  
하지만 장군님  
말씀이 없으시다

《서해안으로 급히  
방어력량을 이동할  
작전국의 방안입니다》  
집무탁우엔 펼쳐졌다  
커다란 작전지도가

하지만 장군님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다  
조용히 방안을 거니실뿐  
통신자료를 다 보신 장군님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  
《지금 동해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동해는 지금 조용합니다》  
작전국장이 울리는 대담

### 2

장군님 작전지도우의  
동해를 굽어보신다  
붉고 푸른 작전부호 하나  
새겨져있지 않는 동해-

하지만 장군님  
자르듯 말씀하시여라  
《적들이 노리고있는 곳은  
서해가 아닙니다 동해입니다》  
모두 의아스런 표정들  
창밖에 설렁이던 바람도 흐르던 구름도  
그 자리에 멈춰선채 의문에 실린듯

순간 방안을  
드릉드릉 울리시였다  
적들의 교활한 모략을 헤쳐내시는  
장군님의 예리한 통찰  
명철하신 론거-

미국대통령이 수십번이나 바뀌었지만  
분계선에까지 기여든 놈은  
존슨 하나뿐이다  
기어이 조선반도에 핵구름을 터치려  
온 남녘땅에 원자전훈련을 벌려놓고  
서해를 포연으로 뒤덮어놓고  
유독 동해를 비워둘리 만무하다

동해의 정적--  
여기에 숨은 모략이 있다  
서해의 포연은 놈들의 위장  
적들이 원자전을 감행할 때  
최대의 극비로 노리는  
핵탄주요투하지는 원산지구이다

그런데 최근 원산지구상공에  
적들의 고공정찰기가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곳 바다밑에서도 동시에  
적들의 정탐활동이  
맹렬히 진행된다는것-

유사시에 출동할  
미해항공모함도  
지금 일본의 사세보항에서  
움직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더욱  
그 어떤 극비작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것

동해의 고요속에 분명  
미제의 극비작전이 진행되고있다  
이 모략을 들춰내야 한다  
이 축수를 꺾어와야 한다  
서해가 아니다  
동해에서 한시 바빠



전투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장군님 호기롭게 웃으시며  
좌중을 둘러보신다  
-놈들이 아직  
우리의 총대맛을 모르는것 같소  
이번에 이 모락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버릇을 때주어야겠소-

장군님 붉은 연필을 쥐시고  
동해안으로 쪽-  
화살표를 그으신다  
바라본다 모두 흥분에 넘쳐  
서해에로의 부대기동을 멈추고  
동해에로 방향을 바꾸어주신  
그 붉은 화살표  
숫구쳤다, 그 화살표끝에서  
경탄과 환희, 누를길 없는 격동이...

항일의 사령부에서  
신출귀몰의 전법으로  
일제백만대군을 위락파락하시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우러러뵈는듯  
황홀한 눈길, 넘실대는 희열...

### 3

요영구의 그림을 안고  
진달래가 평양에 도착한것은  
바로 이 시각  
커다란 작전도가 펼쳐진  
장군님의 집무실 흰 벽에  
진달래는 정히 걸어드리었다  
요영구의 풍경화를

미제와의 격전장우에  
불현듯 항일의 전구가 옮겨온듯  
미군함대들의 기동우에  
유격구의 산발이 디디고 일어선듯  
온 반미전선에  
백두의 정신이 내뿜친듯

장군님 말없이  
진달래의 표정을 살피시더니  
물으신다  
《헌데 정호룡동무는 못오고  
왜 그림만 왔습니까?》  
그제야 참고참던 만단사연이  
종시 터지고야 말았는가

진달래는 건잡을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입술만 펴고 섰다

함께 온 전적지건설국장  
나서며 말씀을려라  
《정호룡동무는 그림이 끝나자  
어데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이 탑이 인민영웅탑이라고...  
그래 공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결론을 받으려고》

장군님 엄숙하신 얼굴로  
국장을 바라보신다  
《그것을 왜  
나에게 물어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물어보시오》  
순간 이름못할 근엄함이  
바다같이 짙 차 위압했다

《동무들은 수령님을  
늘 가까이 뵈올수 있으니 모릅니다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이수령님 모습을  
얼마나 뵈고싶어  
그리워 하겠는가를 생각해봤습니까》

그들의 눈앞엔  
력사의 운무를 헤치고  
우렷이 솟아올랐다  
김일성민족의 후손들  
아버이수령님을 목메여 그리는  
그 절절한 눈동자들이  
묻고있었다 말없이  
선조들에게 묻고있었다  
후손들의 간곡한 소원을 두고

장군님 타이르듯 깨우쳐주시듯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빛내여가는것입니다.》

끝없는 승엄함이  
소리없이 서리는 방안  
숙연한 얼굴들, 정숙만이 흐르는데  
돌연 육신이 무너지듯  
장군님앞에 고개를 떨어뜨린 국장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제가 일을 다 그르쳐와서  
어찌합니까  
이제는 제날자에  
제막식을 못하게 됐으니  
남포제련소가 너무 멀어서  
군상운반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온 얼굴에 눈물을 번쩍인다

다시 무거운 중압  
이제는 어찌할수 없는 중압  
정녕 6월 4일 력사의 그날에  
축포를 터치지 못한단 말인가  
불가능이란 장벽이  
절벽같이 앞을 막아섰다

순간 몸을 바로잡은 인민무력부일군은  
질은 눈섭을 추켜올렸다  
《지도자동지!  
군상운반은  
우리 인민군대가 맡겠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남포제련소와 혜산사이에  
조선인민군비행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항일의 격전장에 다시 섰는가  
이글거리는 두눈, 거친 숨소리

장군님 바라보신다  
금시 불판에라도 뛰어들듯  
온 얼굴의 근육을 떨고 섰다  
《좋습니다  
군상운반은 기차만 믿지 말고  
하늘과 땅에 립체전을 벌려  
잃어버린 시간을  
다 찾아옵시다》

밀려갔다  
그 무거운 중압이  
그 아찔한 불가능의 장벽이  
터져나갔다 두 갈래로-

마침내  
전 당안에는 끝없이 순결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 들어왔다  
인민군비행대들 하늘에 날고  
패궁정마루엔 터지었다  
찬란한 축포가 제날자에  
보천보전투승리 30돐 축전장우에  
현란한 하늘꽃이 끝없이 피어나고  
하얀 제막포를 창공에 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이  
푸르른 하늘 복판에  
거연히 일어섰다

온 세계가 한시에  
우러렀다 패궁정마루를  
세계의 식민지 잠을 깨운  
보천보의 총소리가  
반제전선의 퇴성으로 터졌다

아프리카의 숲속에선  
놓았던 총을 다시 굳게 틀어쥐고  
유격부대들이 진격했다  
적진에 육박했다  
유혹과 기만과 침체를 부시고  
온 행성이 삼시에  
정의의 싸움으로 끓어번졌다

이 위대한 전변  
백년을 바쳐도 어려운  
이 거창한 위업을  
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패궁정마루에  
우리 장군님 서시였다  
장군님 천재의 군사예지로 밝혀주신  
바로 그 동해에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고  
또다시 전쟁접경으로 치닫던 그 시각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폭풍전야의 그 시각  
장군님 홀연 북방천리  
사품치는 압록강기슭에 오시였다

거대한 대리석 붉은기가 펠릭이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총창의 숲을 번쩍이며  
열전으로 끓는 군상두리를  
크나큰 감동과 흥분을 안으시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였다

그 장쾌한 모습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  
이 불멸의 군상을 안아올린  
충성스런 조각가들  
그 수고를 뜨거이 새기시는가  
일군들에게 물으시여라  
《료양소에 보낸 정호룡동무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까?》  
《네 이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정호룡동무와  
진달래를 불렀습니까?》

바로 이때  
안개 흐르는 패궁정마루에  
질은 장막속에서  
홀연 나타난 두사람  
정호룡과 진달래-  
어버이장군님 두팔을 벌리시였다  
먼저 달려와 안긴 정호룡  
두볼만 실룩거린다  
《내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압니까》

정호룡의 팔을 쓸어보고 만져보고  
진달래의 손을 쥐신  
그이의 눈가에 후더이 어리는것이며  
《부르셨습니까?》  
정호룡도 겨우 그 한마디  
《56년에 우리가 서로 만나  
오늘 대기념비를 일떠세웠는데  
또 시작해봅시다  
새 형성안들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가리키신다  
저 북쪽 아득한 산발넘어  
왕재산에 대기념비를 또 세우고  
그다음 무산지구에  
그다음엔 삼지연에  
세상에서 제일 큰 대기념비를 일떠세우자고

환히 웃으시던 장군님  
안개바다를 굽어보시며 말씀하시여라  
《미제침략자들은 지금  
우리 나라를 삼켜보려  
대공세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온 나라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혁명전통은 총대의 전통  
만능의 보검입니다  
이 보검만 들어쥐면  
미제는 종말의 운명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전시장에  
〈푸에블로〉호도 비끄러매놓고  
제국주의를 통채로  
전리품으로 전시할것입니다》

올려갔다  
찌렁- 찌렁-  
백두산이 진동하고  
백두대산줄기에 지진파가 터졌다  
언론전의 포화를 얻어맞고  
만신창이 되어  
정전담판장에 끌려나온 미제  
마침내 쓰디쓴 치욕을 삼키며  
미국력사에 처음으로  
사회문에 서명했나니  
온 우주가 터져나가도록 웨쳤다  
미제가 항복했다!  
조선앞에  
예측이 아니다  
관문점의 현지보도  
현대사의 특별보도

오,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  
정일봉이 버쩍  
하늘에 솟아올랐다  
세계가 우러렀다  
인류가 환호하여라

백두산정우에  
철의 산악 정일봉이  
거대한 한자루의  
총대되어 솟아올랐나니  
조선의 거봉 정일봉  
무적의 총대봉 정일봉

빛나라  
인류의 희망봉 제일봉이여!  
찬란한 태양봉 정일봉이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억만년을 빛나리라!

## 우리 문학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지침

김정호

우리는 오늘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중요기관지의 하나인 《조선문학》잡지 700호 발행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 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이 깃들어있고 우리 문학의 면모가 페이지마다 뚜렷이 새겨진 나날들을 돌이켜보면 행복과 긍지가 가슴벅차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문예사상을 민감하게 받아안고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 편향없이 자기발전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조선문학》잡지에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새 조선건설을 위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문학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부터의 조선의 해방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은 진정으로 인민적이고 진보적인 문학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열어놓았다.

오랜 세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탄압과 민족적멸시를 받아오던 진보적인 작가들은 문학창조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문학, 인민을 위한 우리 문학을 어떻게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잘 모르고있었다.

더우기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은 저들의 부르조아반동문화를 퍼뜨리는 한편 우리 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민족문화건설에 관한 옳은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를 발표하시여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족문화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밝히시고 민족문화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건설하여야 할 민주주의적민족문화는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 온갖 반동세력을 철저히 분쇄하고 인민대중을 민주주의정신과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적극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에서 민주주의적이고 형식에서 민족적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로 되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이니.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해방후 우리가 건설하여야 할 주체적인 민족문화의 성격과 임무를 밝히신데 기초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전선에서 싸우는 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이 시기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있던 배타적이며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락후한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의 문화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그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민족문화예술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로선이며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밖에도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창조의 주체적력량인 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해방전부터 창작활동을 하여오던 진보적인 작가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새로운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작가들을 빨리 키워내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시었다.

이리하여 주체35(1946)년 3월에 북반부의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이 결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주체35(1946)년 10월에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고 종래의 각 부들이 각각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등의 동맹조직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7월에는 《문화전선》잡지(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잡지의 전신)를 창간하여주시었다.

당시 창간된 첫호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싣고 이어 작가들의 작품을 실었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 펼쳐진 거창한 현실과 사회경제적변혁,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은 문학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작품창작의 비옥한 토양으로 되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현실속에 침투하여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을 형상한 시와 소설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문화전선》잡지에 련이어 실었다.

잡지에 편집된 작품들은 레외없이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수 있는 통속적인 인민적언어로 표현되고 민족적특성을 풍부하게 구현하였다. 특히 해방전 문학작품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비애와 슬픔, 울분의 정서대신 약동하는 현실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긍정, 미래에 대한 낙관과 혁명적량만이 차고넘치는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바로 해방후 우리 문학의 새로운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것이며 중요하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가져다준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파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의하여 《문화전선》잡지는 그후 《문학예술》로, 주체42(1953)년 10월부터는 제호를 《조선문학》으로 바꾸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대변자로, 작가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독자들이 기다리고 즐겨보는 권위있고 인기있는 잡지로 나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새 조선건설시기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등에 이어 오늘의 선군혁명시기에 이르기까지의 60년세월 줄기차게 발행된 《조선문학》잡지에 편집된 소설, 시, 논설, 평론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글들은 모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사실 《조선문학》잡지가 700 호까지 발행되면서 여기에 실린 많고많은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과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글들은 우리 문학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간하여 주신 《조선문학》잡지에 깊은 관심

을 두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조선문학》잡지에 편집된 작품들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잡지에 실린 수령형상작품을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여기에 수령형상작품과 함께 혁명전통주체의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본성과 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문학이 자기의 이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총적임무로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문학작품에 더 훌륭히 형상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잡지에 수령형상작품과 혁명전통주체작품들을 많이 편집할때 대하여 주신 말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우리 문학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문학건설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밝혀주신 독창적인 리론으로 된다.

오늘 발행 700호를 맞은 《조선문학》잡지에서는 앞으로도 사상에술성이 높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과 혁명전통주체의 작품들을 주선으로 많이 싣고 당의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많은 주체의 우수한 작품들도 편집해나감으로써 잡지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조선문학》잡지에서는 언제나 당의 령도를 생명으로 삼고 여기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하며 편집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할뿐아니라 잡지를 문학성있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그날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에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잡지를 보시고 주신 강령적가르치심은 오늘도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의 끝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선군시대 우리 작가들과 《조선문학》잡지 편집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장군님께 기쁨드릴수 있는 명작들과 더 좋은 출판물을 만들어 내는것은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게 하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언제나 문화전선의 투사,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라는 끝없는 영예와 기쁨안고 보람찬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조선문학》 잡지 700 호를 내면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2월 《조선문학》잡지편집부는 발행 700 호 《조선문학》을 세상에 내놓는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첫 창간호를 발행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년세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 성장의 길을 보람차게 이어온 《조선문학》잡지 700호!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슴은 《조선문학》잡지를 창간하여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부어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부풀어있다.

정녕 세상에 문학작품을 전문으로 편집하는 문학잡지가 많다고 하여도 우리의 《조선문학》잡지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발전하여온 그런 문학잡지가 또 있을것인가.

감회도 새로운 주체35(1946)년 어느날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창간호를 보아주시며 그만하면 내용도 좋고 괜찮다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시며 것처럼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제런듯 우리들의 눈시울을 적서준다.

해방후 그 어렵던 시기에 몸소 문학예술작품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기관인 문화전선사를 꾸려주시고 그 창간호를 보아주시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잡지는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해서 인민들에게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잡지는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해야 독자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어찌 그뿐이라.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문화전선》잡지의 사명과 임무, 편집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문화전선사에 거액의 자금까지 보내주시어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이 더 많이 출판되도록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정중히 편집하고 세상에 출현한 혁명적문학예술잡지인 《조선문학》!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나라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문예출판물로 세상에 첫 고고성을 더친 《조선문학》잡지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완벽

한 대변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력한 고무자, 추동자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의 활무대로 나날이 더욱 발전하여왔다.

일찌기 혁명적문학예술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적문학운동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조선문학》잡지를 깊은 애정을 안으시고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문학》잡지에 실리는 문학작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잡지에 수령형상문학작품과 혁명전통주체작품들을 많이 실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우수한 시작품을 읊어도 주시고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벌리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였으며 잡지의 편집내용과 발행 그리고 표지삽도와 같은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조선문학》잡지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조선문학》잡지가 주체적문학운동에서 계속 큰 몫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풀어주시였으며 잡지가 지난기간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어 국기훈장 제1급의 국가수훈도 안겨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잡지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며 잡지의 풍격을 더 높여주시기 위하여 《조선문학》축전상까지 제정하여주시고 그 진행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료해하여주시였을뿐 아니라 축전상장과 메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문학》잡지는 자기의 창간호로부터 시작하여 어언 60년세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주체적문학운동을 반영하고 추동하는 혁명적문예출판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조선문학》발행 700 호!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은 《조선문학》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들을 뜻깊게 되새겨 보고있으며 앞으로도 《조선문학》잡지와 함께 선군혁명문학건설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편집부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7월 25일 몸소 보아주신 《조선문학》잡지 전신인 《문화전선》 창간호에 실렸던 작품들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수필

### 아오라지나루

윤기정

먼동이 트기전 분계선을 넘은 우리 일행은 마침내 아오라지강변에 다달아 나루배에 몸을 실었다. 이 강은 일찌기 리찬동무가 38도선을 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느낀바있어 노래지어 읊은 곳이다. 내 비록 시인이 아니라도 온갖 희망을 불안고 오래 동경하던 끝에 첫발을 디디게 되니 과연 힘껏 웨치고도 싶고 목청높여 노래도 부르고싶다.

《논밭을 농사군에게!》

이것은 글로나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실시되어 있는 이 고장 주인이 바뀌인 땅을 밟고 산을 바라보며 강을 건느게 되니 공기조차 새로운듯 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판세상사람들 같다.

어제 반나절은 높은산 험한 령을 넘고 양의 창자같은 시내를 건넌으며 지난밤 3시부터는 또다시 컴컴한 산을 넘고 으스스한 골짜기를 지나 바로 먼동이 틀무렵 경계선을 넘었을 때 마음은 긴장될대로 긴장되면서 지향할수 없이 기뻐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여러 동무들의 똑 같은 심정이였을것이다.

강을 건너온 우리 일행은 아주 안심하는 기색

으로 마음 가벼이 마을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것은 벽과 구호판에 《김일성장군 만세!》와 리승만의 죄상을 모든 인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글발이다. 그리고 5월 1일은 가장 큰 명절인 동시에 또한 농사군의 명절이라는 글이 군데군데 붙어있고 그옆에는 반듯이 《공산당 만세!》가 굵은 글씨로 씌워져있다.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농촌에서 농사군만을 리롭게 하는 민주조선을 건설함으로써 참말로 민족해방과 조선독립을 가져오려는 공산당이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마치 하늘을 찌를듯이 거인처럼 우람히 서있는 사이에 움츠러질대로 움츠러진 리승만의 초라한 꾀락서니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중의 심판을 받고있다.

우리 일행은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눈을 뗄개어 신작로 닦아 좋은 편한 길을 걸을 망정 주인이 갈린 좌우열 논과 밭을 경건한 마음으로 번갈아 두리번거리면서 또한 당장 뛰여올라가 밭갈고 김매는 일을 손수 해보고싶은 감정을 강렬히 느끼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일터로 한걸음 한걸음 전진했다.

### 승리의 기록

리찬

신화가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  
여기 북조선의 명백한 오늘은  
모든 불가능에서 가능이 전진한다

보아라 뽕뿌리의 나날에서도 오곡이 자란다  
한고랑 논밭도 남기지 않고 오곡이 자란다  
석탄없는 기차가 룡로를 달리고  
무수한 소경이 수없이 눈을 뜨고

아 《년래현안》의 영흥대평야가  
일조에 록화했다  
평양은 보통강벌에서 오랜 수마의 감투를 벗겼다

그 어느 연구실에서도 발견못된 전기보이자가

기름때속에서 발견되고  
텅 비였던 굴뚝굴뚝이 금시 열스무굽 연기를 내뿜는다

아 백두산산록에서도 예술의 꽃이 피고  
우중충한 뒤꼍목에서도 문화의 싹트는  
여기 북조선은 새로운 인민의 나라!

세계사여 붓을 들라  
인류사여 붓을 들라

너 어서 위대한 이 지역 위대한 이 승리를 기록하여  
널리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느냐  
길이 후대에 전하지 않으려느냐!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 그날 할아버지

#### -토지개혁의 날-

백인준

그날  
할아버지는 몸소 소복단장하시고  
십리길 고개를 넘어 묘지를 찾으시였다

4대를 거느리고 사랑에 앉아  
장거리에 가본것이 십년전이라더니  
그날은 한사코 앞장을 서며  
-내가 가야지  
-조상님앞에 네가 가서 고해야지

묘앞에 꿇어앉아 할아버지는 툅툅히도  
-아버님때부터 울며 부쳐온  
쌈터발 사흘갈이가 오늘이야...

제물에 비감에 넘치여  
서리낀 눈썹밑에 눈물이 쭈르르

돌아오시는 길로  
-발을 보고 가자꾸나 발을...  
일부러 쌈터로 돌아 들리시더니  
발에 이르자마자 지팡이 후들후들 떨며  
-이놈아 쌈터야 네가...

땅은 새봄을 재촉하는듯  
질펀히 이랑을 펴고 누워있었고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들의 심정도 모르시여

돌을 치운다 그루를 뽑는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발을 떠나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오래간만에  
닭잡는 소리 고기국냄새로  
할아버지생일날보다도 풍성하였다

저녁후  
광속의 방등 꺼내여 불밝히고  
할아버지곁에 모여앉아 심지 돌구며 돌구며  
어머니, 아버지, 형님, 새 아주머니까지  
심지도 않은 쌈터발 추수얘기  
혼사도 안한 누나 시집보낼 얘기  
-아니 열섬은 나  
-열섬만... 확실히 잔치는 떡이나 치고

할아버지는 그런 말 다 안들으시고  
창문만 쳐다보며 혼자얘기뿐  
-허어 땅을? 땅을 가져? 허어  
-내가 죽거든 쌈터에 묻어다구  
-허어 땅을! 다 그 어른의 덕이로구나

집안이 잠든것도 기름이 마른것도  
담배불이 꺼진것도 다 모르는듯이  
언제까지나 흥얼흥얼 홀로 밤은 깊어깊어

## 큰 거리

조기천

나는 이 거리로 나왔다  
새 삶의 피줄이 터질듯 뒤흔치는 이 거리로  
거리는 차고넘쳐흐른다  
억압의 물목이 터졌으니  
희고 붉고 검고 파란 옷  
거리는 무지개에 썩은듯

모두 기쁨에 어리였다  
사람을 붙잡는 포스타도  
손잡이 끄르는 한글의 간판도

보금자리 다시 찾은 조선말도

온 낮에 어린 주름살도 눈초리도  
날리는 웃고름은 나비더나  
치마폭은 흐느적 물결쳐라

거리는 움직이고 뛰논다  
전차도 높이 부르누나  
《인민위원회를 지지하자!》  
라지오도 거리에 퍼붓누나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토지는 농민에게!》  
벽도 올라리도 웨치누나!  
《친일파를 타도하라》

나는 이 거리로 나왔다  
노예의 무리 허덕이던 이 거리로  
서리맞은 호박잎같은 사람들의 낮  
발길에 매달린 무거운 피곤  
그 뒤에 목매여 짓궂리던 생활  
가슴을 터치고 나온 그 저런 마음이  
이 거리의 먼지관우에서 몸부림쳤어라  
놈들이 짓궂던 그 아스팔트 조각조각  
우리 가슴에서 오래낸 살점이 아니던가

《빠가야로》에 고막이 터진 거리  
《센정》의 거리 《요보》의 거리  
한가슴에 고름차던 이 거리  
어느때까지 여기서 쫓겨난 조선말이  
웅크리고 부엌 한구석에 숨어  
포승든 순사 문 찰가 치떨었더니

나는 이 거리로 나왔다  
의로운 기대 채뿔같이 하늘뚫고  
벽들도 부서질듯 환영의 만세  
《조선해방 만세!》  
늘리웠던 이 거리에 해방을 고할 때  
끓어솟는 그 마음 땅바닥 녹였으리  
  
친선으로 축문 높이 세우고  
사랑을 고이 피워 이 거리 깔았을 때  
그때는 이 거리 새벽이였어라  
생명의 레포 울릴 그 새벽  
지금은 아침해 솟누나 독립의 해  
행복의 손-해발로 하늘도 산도 얼싸안으며

나는 이 거리로 나왔다  
새 삶이 어느덧 두활개치는 이 거리로  
누가 아직도 잠자느냐  
누가 문틈으로 내다만 보느냐  
거리로 나오라  
새 삶의 피줄이 터질듯 뒤편치는 이 거리

## 길

김상오

욕된 발자욱 무수히 찍히여  
눈물처럼 이롭게 휘푸른 길  
길은 불빛꺼진 검은 문에 시작하여  
길을 젖대며 논배미 휘돌아 어디로 갔느냐

각박한 세월이  
메마른 잔디우를 모질게 불어간 오래인 동안  
고달픈 백성의 꿈이  
시든 꽃잎 점점이 흩리며 오고간 서러운 기억이  
여

해마다 동백꽃 피는 시절엔  
검은 문안에 서늘한 방 비워놓고  
노란 얼굴들  
한가닥 외로운 길을 바람에 불리어갔노니

고향이여  
봄과 같이 불어오는 바람이여  
해쫓는 새 아침  
그리운 해초의 내음새와 함께  
무엇을 너는 싣고왔느냐

빈개품은 속삭임은  
마을따라 즐거이 퍼지여가고  
검은 밤  
길우에 넘치는 발자욱소리  
불들 들고 오라  
울면서 오라  
  
뜨거운 호흡속에  
눈물젖은 땀 부비며 새운 밤  
길은 어두움 꿰뚫고  
한가닥 고요히 빛나는 길이어  
래일이며는  
얼룩진 온갖 서러운 기아 짓궂고  
힘찬 토족의 대렬이  
밀물처럼 좁은 길을 몰리어가려니

아 길은  
펼터키는 기발과 팽이에 덮이여  
밀보리 푸르른 황토밭을  
자유로운 너의 광야로 가라

## 《조선문학》 잡지가 걸어온 영광에 찬 로정을 돌이켜보며

김병훈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문학의 얼굴이고 척도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이 잡지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문학의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방된 우리나라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이정표를 따라 계속 줄기차게 발전해왔기때문이다.

《문화전선》의 표제를 달고 자기의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던 《조선문학》잡지가 어느덧 발행 700 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깊다. 《문화전선》으로부터 《문학예술》로 그리고 《조선문학》으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껏 700 호에 이르는 이 잡지의 발행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과 끝없는 믿음과 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속에 창간된 《문화전선》잡지!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첫째지에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싣고 세상에 출현한 《문화전선》잡지!

얼마나 뜨겁고도 진심으로 되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열화같은 흠모심의 발현인가.

나라없던 지난날 《산산이 부서진》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가슴 찢는 슬픔을 토로하던 우리 작가들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인민모두에게 끝없는 행복과 광명한 미래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었으니 그 영광, 그 기쁨을 어디에 비길수 있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혁명의 력사는 새로운 주체적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력사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자랑찬 승리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잡지의 창간호를 친히 보아주시며 잡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글을 실어야 하는가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잡지를 우리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심을 두고 편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정력적인 투쟁과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실으라고, 그러시면서 민족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진보적인 작품에도 관심을 돌리며 편집사업에 근로대중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여 책의 수준을 한층 높일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얼마나 명철하고 심원한 가르치심인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비단 새로 발족한 문학예술잡지의 편집방향뿐만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문학예술의 진로가 있어 우리 작가들은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우리 문학예술의 전진을 가로막던 온갖 이색적인 반동문학조류와의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당문예정책을 옹호고수한 힘있는 평론들과 단편소설 《개선》, 《로동일가》, 서정시 《두만강》,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 등과 같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시기며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 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주체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때로는 집무실에서, 때로는 몸소 저택에서 우리 작가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며 문학작품창작과 관련한 문제들을 두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우리 수령님.

정녕 이 세상에 이런 수령, 이런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 작가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준 이런 다심한 아버지가 어디 또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 작가들은 전쟁의 불비속에서 장시 《조선은 싸운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 《구대원과 신대원》, 가요 《전호숙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 《문경고개》 등과 같은 시대의 명작들을 《조선문학》잡지 지상에 발표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가요 《복구건설의 노래》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더더욱 왕성한 창작적열의로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단편소설들인 《백일홍》, 《당원》, 《진심》, 《령북땅》,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 《애작》, 《행복》 등이 줄줄이 쏟아져나와 주체문학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의 문단을 빛나게 장식했다.

서정시 《천리마로》, 가요 《천리마라고 달린다》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아니 그 작품들은 그 무엇을 주기도 살수 없는 우리 문학의 재보들이다.

이 시기 새세대 작가들은 《조선문학》잡지를 보물이 일도록 읽고 또 읽으며 거기서 자양분을 얻고 당사상사업의 전초병으로 자라났다.

그런데 이들이 쓴 미숙한 단편소설들도 친히 보아주시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하여주시고 또 본인의 탁월한 문학의 영재가 계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작가들이 쓴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앞으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도록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조선문학》잡지가 우리의 주체문학을 더 높은 곳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추동할수 있었고 선군문학의 대변자로 승승장구하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예술작품으로 옮기는 사업을 령도하시는 한편 수령형상창조를 우리 문학의 기본의 기본으로 정해주시고 주체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심으로써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그것은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방도뿐 아니라 인류의 진보적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백과전서적문헌이며 주체문학건설의 대강이다. 이 로작의 발표는 참으로 자주의 새시대, 인류의 진정한 문학건설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장엄한 포성이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세계를 향하여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는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신 위대한 장군님.

그 사랑, 그 손길이 있어 《조선문학》잡지에는 수령형상단편소설들과 송가형식의 서정시들이

1970 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실리게 되었고 선군으로 빛나는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거의나 매호마다 실리며 책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자주적인 새사회, 사회주의 한길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뜨겁게 심어주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지금껏 얼마나 높이, 얼마나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해왔는가.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주체문학은 세계를 향하여 무엇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나가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인민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써낼수 있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시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기의 뜨거운 심장의 노래를 담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발표하여 왔으며 강성대국 건설로 들끓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군대와 우리 인민을 혁명의 한길로 이끄는 작품창작에 전심전력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사명감을 뜨겁게 간직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조선문학》잡지는 계속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대의 명작들로 장식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문학》잡지는 우리의 주체문학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우리 당은 작가들이 실력전을 벌려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을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작가들과 잡지를 담당한 편집원들은 《조선문학》에 실리는 작품 한편한편이 명작으로 평가될수 있도록 분발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창작적자질, 다방면적인 지식만이 시대의 명작을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생활과 투쟁의 교사, 창작의 요람 《조선문학》잡지

최학수

어느 나라 문단에나 그 문단을 대표하는 정기간행물이 있고 어느 작가에게나 자신의 작가적출세를 도모하여준 성과적인 처녀작 혹은 출세작의 발표지가 있기마련이다.

《조선문학》잡지는 처음에 《문화전선》이라는 이

름을 달고 창간된 이래 반세기이상의 세월을 거쳐오며 700 번째의 호를 발행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체조선의 문단을 대표하는 기둥잡지로서의 중추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 백두산3대장군인 품속에서

그동안 수많은 독자대중을 주체시대의 영웅들로 키워내고 또한 많은 문학청년들을 작가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된다.

내가 이 잡지의 겉모습을 처음으로 대한것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적들의 함포탄사격성화가 심하였던 해변가의 고향마을을 떠나 여름방학기간에 외가집에 피난을 가있던 나는 새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고향마을로 돌아오다가 폐허로 된 해변가 읍거리에서 또다시 함포탄의 소나기를 들쓰게 되었다. 급한김에 신작로옆의 산등성이밑에 보이는 방공호굴속에 뛰어들고 보니 그곳은 지하에 꾸려놓은 책방이었다.

놀라운것은 그 방공호안에 전등불도 켜져있고 반반하게 대패질을 한 널장대대우에 등사잉크냄새를 물씬 풍기는 새책들이 주런이 진렬돼있는것이였다. 매대의 한쪽끝에 있는 판매원누나가 보다 내려놓은듯 한 잡지 한권이 거꾸로 놓여있었다. 그것이 바로 후에 《조선문학》으로 제명을 바꾼 《문학예술》 잡지였다.

열다섯살을 먹도록 난생 처음 대하게 된 잡지였다. 무척 호기심이 동하여 살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잡지만은 파는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나의 호주머니속에는 집으로 가다가 엿도 사먹고 신발도 사서 신으라며 외할머니가 쥐여준 돈이 있었다. 나는 엿과 신발대신 신간서적매대에서 문고판으로 된 김사량의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비롯한 새책들을 몇책 사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

그 얼마후 한개 소대가량의 인민군병사들이 하루밤 우리 마을에서 묵어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들었던 소대장의 배낭주머니에서 나는 다시 호수가 다른 그 잡지를 보았다. 거기에는 조기천의 시 《조선은 싸운다》가 실려있었다.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뚫게 하는 불같은 시였다.

그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우리 조선문단의 대표지는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가며 지하에서 정상적으로 발간되고 폭탄과 함포탄들의 불비속을 뚫고 정상적으로 운반되어 독자대중의 수중에 들어갔고 《조선은 싸운다》와 같은 수많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작품들으로써 독자대중을 조국수호성전의 영웅투사들로 키워내는데 적지않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문학운동의 테두리밖에 있었던 그 소년 시기에는 《조선문학》잡지의 금새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천리마운동시기에 다행스럽게도 문학작품들을 다루는 편집생활을 하게 되고 더우기 《조선문학》편집부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이 문단지가 대중교양과 문학운동상에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

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문예작품들에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해나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천리마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조선문학》지상에는 단편소설들인 《백일홍》, 《길동무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령북땅》,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 등등의 단편소설들과 장편연재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하여 천리마시대의 인간전형들을 그리고 노래한 수많은 산문, 운문, 극작품들이 련속 실려나가 커다란 사회적과문을 일으켰다.

한번은 평안북도 어느 한 산골군에 출장갔다가 그곳 양어장의 이름난 혁신자를 만난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조선문학》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양어공이 될 결심을 하였노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때처럼 《조선문학》의 편집원으로 일하는 공지와 보람을 느낀적이 없다. 그 작품은 바로 내가 편집한 작품이었던때문이다.

나는 《조선문학》의 지상을 통하여 독자대중앞에 나선 석개울의 창혁이가 구체적으로 몇명의 제2의 창혁이들을 길러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조선문학》지상을 통하여 독자대중앞에 나간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이 술한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키워낸 본보기인간들로 되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시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수령형상문제를 우리 문학운동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 《조선문학》잡지는 가장 기동적인 시 및, 단편소설형식을 동원하여 수령형상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단행본 《조선단편집》(제1권)에 수록되어있는 수령형상명작들 거의 모두가 바로 《조선문학》지상을 통하여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작품들이다.

오늘날 《조선문학》은 선군시대의 인간전형들을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노래하는 작품들을 독자대중앞에 내보내어 그들을 선군시대의 영웅들로 교양,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군대와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어왔을뿐 아니라 작가양성의 훌륭한 교과서로도 되어왔다.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작가들은 바로 《조선문학》을 보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또 바로 《조선문학》을 통하여 자기의 첫 작가적얼굴을 내보였고 독자들과 낮을 익히게 되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조선문학》은 창작요람지마냥, 작가적

출생지마냥 여겨지는것이다.

나는 우리 작가들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선문학》이 주체조선의 문단을 대표하는 문학잡지로 어느모로나 손색없는 훌륭한 정기간행물로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되어주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조선문학》 잡지는 문학의 저수지이며 얼굴

오영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당출판물들을 수많은 창간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출판물이 나아갈 앞길을 한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조선문학》잡지는 작가동맹 기관지로서 창간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700 호를 발행하여 그 의의는 실로 큰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커다란 재부이며 자랑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조선문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도록 해주신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체문학이 걸어온 길의 광휘로운 력사가 다 담겨져있으며 대와 대를 이으며 새로운 발전의 길로 계주해온 하나의 큰 문학저수지라고 말할수 있다. 이 저수지를 이른 수백수천의 시내물들은 우리 작가들이 걸음도 많이 걸고 땀도 많이 흘리며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사색하고 그 많은 밤들을 밝히며 짜내고 짜낸 심혈의 시내물이며 때문에 이 저수지의 물은 푸른 빛이 아니라 붉고 무겁다. 그 많은 시내물이 모인 저수지속에는 내가 바친 땀방울인 장편서사시로부터 장시, 서정시, 가사, 평론, 수기, 수필 등 수백편에 이르는 작품들도 있다. 우리 작가들은 《조선문학》을 통하여 독자들과 교감하며 문학이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 인민대중을 수령의 위대성과 우리 제도의 고마움, 사회주의생활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규탄과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왔다.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당이 펼쳐준 미래를 희망과 신심을 안고 투쟁하는 일터와 거리, 가정

그 어디에나 《조선문학》잡지가 있었다.

내가 삶의 포부를 문학에 두겠다고 마음다지게 한것도 바로 이 《조선문학》이였다.

나는 전화의 날 중대선동원이 신문과 편지들과 함께 련대에서 받아오는 이 잡지를 갱도속에서 읽으며 선배작가들이 쓴 시와 소설, 평론들에 심취되어버렸으며 나도 이런 훌륭한 잡지의 애독자로만 있을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영예를 지니고싶은 불같은 욕망에 사로잡히군 했다. 소망대로 내가 《조선문학》에 등장하기 시작한것은 전후부터이다.

《조선문학》은 나를 작가동맹의 맹원으로 되게 해주었다. 말하자면 시문단의 한 성원으로 나를 받아주었다.

아니, 나뿐만아니라 이 나라 작가들치고 《조선문학》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그러기에 《조선문학》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을 낳은 《산모》이며 말없는 선생이기도 하다.

이 지면을 통하여 얼마나 재능있고 능력있는 작가들이 배출되었으며 독자들의 사랑속에 빛나는 창작의 자욱을 남겼던가.

시문단만 하여도 백인준, 박세영, 박팔양, 리용악, 박산운, 정문향, 정서춘, 김우철, 김조규, 김순석, 김상오, 리맥 등... 소설문단에는 리기영, 천세봉, 황건, 석윤기, 변희근, 윤시철, 리명수, 고병삼, 정창운, 김봉철 등... 그들은 우리에게 창작의 계주봉을 넘겨주고갔지만 《조선문학》이라는 문학의 저수지안에서 지금도 끝없이 문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있다.

이 거대한 《문학저수지》야말로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고무와 질책도 있고 성공과 실패도 있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는 우리 문단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다.

1980년대 중반기에 이전 소련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세계문학연구소》의 한 조선문학전문가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우리 문학을 알고 주체문학을 연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조선문학》잡지가 세계 각지에 안가는 곳이란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한 해외동포는 자기들에게도 배포되어오는 《조선문학》을 늘 기다린다고 했고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에 참가한 남조선의 작가들은 《조선문학》을 통하여 북조선의 문학실태를 알고 북조선인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느낀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이 빛나야 그 인간이 아름답듯이 《조선문학》이라는 조선문단의 얼굴이 빛나야 우리 문단이 빛나는것이다.

한시절 《조선문학》잡지의 편집사업을 맡아보았던 나로서 편집원들은 작가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작가들은 《조선문학》에 책임성있게 원고를 제기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작가들은 좋은 시, 좋은 소설들이 나온것을 보는 때가 마음이 제일 즐겁

다.

매호마다 명작으로 편집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조선문학》은 우리 문단의 키를 부단히 높여주고있다.

새롭게 보충되고 혁신하는 우리 문학의 후비들로 하여 《조선문학》의 저수지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있다.

주체의 수령관, 혁명관, 인생관을 자기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우리 문학은 명실공히 현세기문학의 기치가 아닐수 없다.

문학의 거장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주체문학의 장래는 양양하며 그 휘황한 미래가 《조선문학》잡지에 비껴있다.

《조선문학》은 문학의 대와 대를 이으며 800호, 1,000호로 영원히 번성할것이며 우리 문학의 얼굴은 세상에 가장 빛날것이다.

《조선문학》잡지 700호를 받아안으며 이 잡지를 훌륭한 길동무로 사랑하며 함께 온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 《조선문학》잡지 발행 700 호에 부치여

김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광범한 대중의 창작적열정과 예술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입니다.》**

나의 소년시절의 훌륭한 문학선생.

나의 청년시절, 병사시절의 미더운 길동무. 친구이며 동지.

나의 한생의 혈연이며 반려인 《조선문학》잡지.

발행 700호를 맞으며 감회 더욱 새롭다.

중학생때 어느 문학소조모임날에 지도교원이 잡지 한편을 내보이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 책이 우리 문학선생이다. 오늘부터 나도 학생이 되여 이 책에서 배우련다.》

우리는 잡지를 둘러싸고 앉았다.

표지는 웃부인이 지식과 광명을 뜻하는 흰빛인데 그 흰 바탕에 한문자 각글씨로 《문화전선》이라 써여있었다. 오늘에 이르러 짐작되는것이지만 《문화전선》, 그 이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주체35(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하신 연설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에서 옮겨온것이였다. 우리는 《문화전선》창간호를 펼치였다.

잡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고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20개조 정강과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리고 북조선예술총련맹강령을 첫머리에 편집하였으며 《창작방법상에 대한 기본적제문제》(리기영)를 비롯한 평론들과 《승리의 기록》(리찬)을 비롯한 시작품, 단편소설 《개벽》(리기영), 장막희곡 《더령이와 배뱅이》(김사량)등 여러편의 작품이 편집되어있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의 문학령도사 학습을 하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문화전선》창간호를 받아보신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잡지 편집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는데 그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가르치심을 따라 《문화전선》은 《문학예술》, 《조선문학》으로 700호발행에 이른것이다.

《문화전선》이 학생시절의 나의 문학교과서, 훌륭한 문학선생이었다면 《문학예술》은 병사시절의 미더운 길동무이며 혁명전우였다.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뚫고 《문학예술》(후에 《조선문학》으로 이름을 바꿈)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전선문고》들과 더불어 최전선전호까지 찾아와주었다.

우리 부대에 단 한부밖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다행하게도 그 잡지를 제일먼저 받아보는 행운을 지녔던 나는 우리 부대의 수습개 초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지, 우리 동무들은 그 책을 받아보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심을 지녔던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은 최고 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방향에 따라 편집되었기에 그토록 생활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었던것이다.

나는 이미 알고있었던 작가들의 이름을 그 잡지에서 다시 보았고 새 작가들, 새 시인들의 좋은 작품들을 가슴깊이 새겨안으면서 나도 무엇인가 쓰고싶고 노래하고싶은 충동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문학예술》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으로부터 점차 나를 창작예로 부추기고 일떠서게 만드는 선동원으로 변모되어갔다.

전쟁초기부터 시를 지어 그중 몇편은 《조선인민군》신문과 《민주청년》신문 등에 발표하기도 했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40돐때 쓴 송가 **《김일성장군님께》**를 《문학예술》에 발표하는 놀라운 행운까지 지니게 되었다.

어찌 그뿐이라. 전승후 작가동맹은 갓스물 젊은 문학애호가를 자기 대오에 받아주었고 기관지 **《조선문학》은 《기뻐하노라》, 《갈매기》,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등 서정시편들과 시조 **《조국의 나날》**을 내주었다.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입은 은혜 더 많은 나날이여

씩 후날에 쓴 나의 시 **《인민의 한마음》**에 이런 시줄이 있다.

참으로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입은 은혜

가 더 많은 나날이였고 년대들이었다.

《조선문학》 1957년 6월호에 발표되었던 시조 **《조국의 나날》**에서 첫시 **《송가》**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시야에 머물 줄이야 내 어찌 알았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58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승리기념일 청년학생들의 우등불모임에서 그 시를 랑송하도록 친히 선정가필까지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던것이다.

이렇게 잡지 《조선문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년소한 이 시인을 아시게 하여준 고마운 출판물이였고 그이께서 그후에도 나의 작가적생명을 극진히 돌보아주시는데 도움을 드린 나의 귀중한 길동무였다.

그런데 한때, 아니 거의 20년 가까이 나는 이 길동무와 아주 헤어질번 하였다.

나는 다시 소년시절, 병사시절로 돌아가 문학수업, 인간수업, 당적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조선문학》의 필진으로부터 허심한 독자, 학생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조선문학》은 먼 산골 막바지 지하막장까지 나를 찾아와주었고 어머니당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어찌 잊으랴. 지난 세기 70년대도 다 저물어가던 1979년 12월 4일을.

그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내 심장의 바위벽에 착암정도로 쪼아박았던 **《만수대》** 등 시편들을 보아주시고 《조선문학》지면에 발표하도록 해주셨던것이다.

그리고 련이어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주체문학건설의 전사로 필봉을 높이 들게 해주시었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긴 인생이였기에 《조선문학》과 나, 《조선문학》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수 없는 피줄이였고 한생의 반력였으며 하나의 생명체였다.

아, 발행 700호를 맞이한 내 사랑 **《조선문학》**이여.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열풍에 실려 800호, 900호, 1,000호의 계선으로 날아가는 우리 노래의 다발이여.

그대의 앞길에 승리만이 있으랴. 영광만이 있으랴.

**김정일**장군님의 붓대전사들이여, 우리의 우렁찬 명중탄 일제사격으로 우리자신의 얼굴인 **《조선문학》**이 더 크게, 더 활짝 웃게 하자.

할 일은 앞에 있다, 앞에... 멀리여.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 나의 추억속에 깃든 영광

홍현양

사람들은 흔히 《조선문학》잡지를 가리켜 우리 문학의 얼굴이라고 말들을 한다.

그것은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리론들이 체계적으로 해설선전되고 우리 작가들의 문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우리 문학운동의 실태가 다른 나라들에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동향도 연구되고있는것이다.

여담같은 이야기이지만 내가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대표단으로 출장을 갔을 때 있는 일이다.

비행장에는 그 나라 작가동맹 국제부 일군과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이 마중나와있었다.

작가동맹 국제부에서 나온 일군은 나에게 자그마한 수첩을 내밀면서 거기에 조선말로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였다.

나는 기꺼이 응하고 그 수첩에다 우리 말로 내 이름을 써서 넘겨주었다.

그 일군은 수첩에 써여진 나의 이름을 보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정중히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나는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출판일군에 불과한 나를 어떻게 알까 하고 생각하였다.

내 마음을 읽은듯 그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조선문학》잡지를 읽고 나를 안다고 하였다.

그 순간 나는 작가들은 서로 지면을 통하여 먼저 만난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조선문학》이 우리를 벌써 구면으로 만들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의 봄빛길은 하늘밑에서 《조선문학》잡지에 대한 말을 한 외국의 벗을 통하여 들었을때 일생의 거의 전부를 편집출판사업에 바친 나는 행복한 추억에 잠겨들었다.

오늘 《조선문학》잡지는 첫 창간호를 발행한 때로부터 700 호의 루계번호를 새기게 되었다.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속에 태양의 역사를 빛나게 수놓으며 자랑찬 길을 걸어온 《조선문학》잡지의 갈피갈피에는 참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되어있다.

《조선문학》잡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주체

문학건설에서 한몫 크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원칙을 자기 활동의 근본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선문학》잡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한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예지를 떠나 오늘의 잡지 《조선문학》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날수 있는 《조선문학》의 표지에도 그이의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잡지의 제명과 그 바탕무늬로 수놓아져있는 목란꽃송이들도 그이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받고 창작된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잡지에 발표되는 서정시와 소설들을 비롯한 편집물들을 보아주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 가운데는 시인 박승수가 창작한 서정시 《위대한 심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신 이야기도 있으며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명작들을 더욱 활발히 창작할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시려고 《조선문학》축전상을 제정해주신 이야기도 있다.

그후 축전진행정형을 친히 료해하시고 입선자들에게 수여할 메달과 그 도안까지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매해 지상축전에서 입선한 작가들이 상장과 메달을 수여받고 기쁨에 휩싸여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가슴이 후터워움을 금할수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잡지가 다른 나라 문학잡지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나는 《조선문학》잡지 700 호를 발행하는 《조선문학》편집부의 기자, 편집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 《조선문학》 잡지는 나의 교과

백보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사람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나는 오늘 《조선문학》잡지 700 호 발행에 즈음하여 조선의 한 작가로서 그리고 평범한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해방후 60년에 달하는 긴 세월에 비쳐있는 우리 작가들의 얼굴이며 목소리인 《조선문학》잡지의 긍지높은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옛사람들은 15살을 흔히 《지학》이라고 하며 그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는 시기로 보았다고 한다.

내가 《조선문학》을 즐겨 읽기 시작한것은 바로 열다섯살 나던 초급중학교 시절부터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 잡지들의 창간순위로 보면 《조선문학》은 그중 앞자리를 차지하는 잡지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35(1946)년에 잡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 창간호를 친히 보아주시고 우리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시였으니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우리 작가들과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렇듯 창간년한이 오랜 《조선문학》을 통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체득했고 동시대 작가들은 물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작가들의 글을 익혔으며 그들의 문학적재능과 창작경험을 터득할수 있었다.

말그대로 나는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문학을 배우고 작가로 자라난 《조선문학》의 제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나는 학창시절 매 달마다 읍도서관에 가서 《조선문학》잡지를 빌려보곤 하였는데 한번은 지리시간에 잡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보다가 선생님의 꾸중을 들은적도 있었다.

그만큼 《조선문학》에 실리는 문학작품들은 나를 매혹시키고 감동시키였으며 아름답고 고상한 세계에 이끄러갔다. 나는 그때 《조선문학》에 글을 발표하는 작가들을 비범한 재능을 가진 특수한 사람들로 여겨왔다. 그러면서도 제단에 소설과 시를 써가지고는 우표를 네댓장씩 붙여서 신문사나 잡지사들에 보내곤 했었다. 다음에는 매번 작품을 혹평하거나 고무해주는 슬픈 회답장

만 받다가 고급중학교 재학당시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작가동맹 도지부로부터 신인작가회의가 있으니 참가하라는 통지문이 학교에 내려왔던것이다.

그때의 기쁨과 긍지감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 한편의 글도 지상에 발표한것이 없었지만 통지서에 분명히 《신인작가》라고 써여있었기때문에 마치 작가가 다 되거나 한것처럼 기분이 잔뜩 떠있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는 고향에 있는 어느 유적을 취재하고 썼던 기행문을 작가동맹 도지부에 올려보냈는데 그것이 일정한 평가를 받게 되어 《신인작가》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던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비로소 《조선문학》을 통하여 이름을 익힌 소설가, 시인들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흐른뒤에야 나는 처음으로 《조선문학》에 단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발표할수 있었다. 언젠인가 어느 소설가는 자기의 작품을 늦게 발표했다 해서 《지각생》이라고 자기를 자칭하였는데 나야말로 《지각생》이었고 오늘도 《지각생》이다.

나와 동년배의 작가들중에는 오래전부터 쟁쟁한 소설가 시인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 적지않지만 나는 뒤늦게야 겨우 불품없는 얼굴을 《조선문학》에 수집게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조선문학》의 독자로서는 일찍 《출근》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게 된다. 초급중학교시절부터 《조선문학》을 열독한 나는 그후 근 20년동안 지질연구기관과 탐사부문에서 일하면서 험한 산길을 타고 다닐 때에도 배낭속에 언제나 과학기술서적과 함께 《조선문학》을 넣고 다니며 탐독했었다.

그 파정에 작가동맹 현직맹원이 되었으니 참으로 《조선문학》잡지는 나를 작가로 이끌어준 문학의 스승, 친근한 길동무였다.

《조선문학》은 지질탐구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과학기술의 방조자이기도 하였다. 하여 나는 지질가들에게 문학은 정서의 지질과학이고 지질과학은 논리의 문학이라는 말을 룡삼아 자주 하였다.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사실상 그런 높이에 도달될 때 문학과 자연과 학도 철학적깊이를 보장할 수 있다는것을 《조선문학》이 나에게 귀띔해주었다.

문예부문이 아닌 지질부분의 정규교육을 받고 그 부문에서 다년간 생활하면서도 내가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문학운동실태를 시기적으로 제때에 파악할수 있는것은 《조선문학》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참으로 《조선문학》은 심산속에서도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이론을 학습할수 있게 해준 유일한 《교과서》였다.

해방후 민주건설의 보람과 조국해방전쟁 3년간의 영웅적위훈과 사회주의건설의 위용을 날날이 반영하고 천리마시대, 선군시대의 인간전형들을

빛나게 형상하여 국기훈장 제1급의 금별을 책표지에 새겨넣은 사랑하는 《조선문학》잡지! 작가들, 아니 수많은 독자들과 생활의 길을 함께 해온 그 잡지가 우리 작가들모두의 얼굴이며 목소리일진대 작가라면 누구나 다 《조선문학》을 앞으로 보다 더 훌륭한 선군문학의 본보기잡지로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한몫 이바지할 각오를 간직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문학》의 덕을 많이 보았지만 《조선문학》에 바친 공적이 너무도 적다는것을 부끄럽게 느낀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조선문학》잡지의 사상성, 예술성, 전투성을 높이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 《조선문학》과 평론의 발전

장형준

지금 우리 작가들과 평론가들은 잡지를 애독하는 독자들과 함께 《조선문학》의 700 호발행을 커다란 기쁨속에 맞이하고있다.

이 경사에 즈음하여 우리는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을 창간해주시고 《조선문학》을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의 체모를 충분히 갖추도록 크나큰 사랑을 기울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700 호발행을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문학잡지의 창간은 민족문화건설에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우리 인민은 일체의 악독한 민족문화말살정책과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진보적인 문학잡지를 가지지못한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문학잡지를 발간하는것은 해방된 조선에서 매우 중요하고 긴절한 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해방직후 우리에게서 문학출판기관은 물론 그 필진도 거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의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던 작가, 예술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어 민주주의기발 밑에 묶어세우시어 주체35(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련맹을 창립하시고 그해 《문화전선》을 창간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아주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면서 해방직

후의 실정에서 문학예술부문 출판사가 나오고 그의 첫 출판물로 《문화전선》이 나온것은 새 조선의 민족문화건설에서 또하나의 전진으로 된다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문화전선》 창간호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편들과 단편소설 《개벽》과 《탄갱춘》, 장막희곡 《더빙이와 배뱅이》, 평론 《창작방법상에 대한 기본적인문제》, 《조선문화유산의 계승에 대하여》를 실었다. 보는바와 같이 문학잡지는 그 창간호에서부터 문학작품과 함께 평론을 편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문화전선》 창간호를 친히 보아주시고 내용이 괜찮다고 치하하시며 《문화전선》은 작품을 통하여 우리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며 새 민주조선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정력적인 투쟁과 승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작품들을 많이 내보내며 민족문화유산계승사업과 다른 나라의 진보적문학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며 편집사업에 근로대중을 적극 인입하며 잡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문학잡지의 편집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문학》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비롯하여 시대의 영웅, 주체형의 인간전형과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형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 가사, 소설, 희곡들과 창작에 도움이 되는 평론

##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들을 편집하며 700호발행에 이르렀다.

그 자랑찬 행로를 더듬으며 평론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한호에 평론이 평균 2~3편씩 편집되었다고 보면 《조선문학》에는 무려 2,000편에 가까운 평론이 발표되었을것이다. 이것은 대단하다. 그리고 무게있는 평론은 주로 《조선문학》잡지에 실렸다. 그런것만큼 평론의 발전은 《조선문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평론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로소 올바른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평론가가 몇명 안되는 데다가 그들마저 사상리론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문학의 진로를 똑똑히 모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과 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격동된 심정으로 받아안은 평론가들은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 정당성을 론증하는 론설집필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미제의 고용간첩들인 박헌영, 리승엽도당이 내놓은 《문화타제》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사상잔재와 반동적부르조아문예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기초하여 시집 《응향》과 《문장독본》, 《예원씨클》(3집)의 반동성을 분석비판하는 비평들을 예리하게 썼다.

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평론을 활발히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평론에서 《타도》식경향을 철저히 시정극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우리 평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예로선과 창작방법에 대한 론설, 문학작품의 우결함을 분석하는 작품평과 반동적문예사상을 폭로하는 비평들을 써서 《조선문학》을 비롯한 잡지와 신문들에 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우리 평론이 아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문학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

평론은 우리 당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으면서부터 새로

운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식 평론에 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특징과 과업, 창작원칙과 평론의 료리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평론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우리식 평론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작품을 순수 사회학적견지에서 평가하거나 정치론평식으로 쓰는 편향을 극복하고 작품의 핵인 종자부터 파악하고 작품을 그 생리에 맞게 사상미학적으로 분석하는 평론다운 평론을 창작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평론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평론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양양이 일어났다. 그것은 평론가들이 주제적문예사상과 리론을 평론의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창작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론증하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일반화한 론설들을 비롯하여 창작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 특히 선군시대의 주인공형상과 시대정신구현문제들을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심오하게 탐구한 문제평과 작품의 성과와 긍정적인 싹들을 지지옹호하고 창작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시정극복하기 위한 작품평들이 심도있게 창작되어 문학에 대한 평론의 선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진 사실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조선문학》잡지는 평론을 실현시켜주는 무대로 되었을뿐아니라 평론을 통하여 문학운동을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벌리도록 추동하며 작가들의 식견과 기량을 높이고 문학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며 독자대중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세상에는 문학잡지가 많지만 《조선문학》과 같이 700호발행의 60년행로에서 길을 헛갈리지 않고 곧바로 전진하여온 그러한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잡지는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았기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 700호발행을 맞이한 《조선문학》잡지의 자랑과 영예, 그 필자들인 우리 작가, 평론가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느끼는 남다른 긍지가 있는것이다.

《조선문학》잡지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고있기에 앞으로도 호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숨결이 짙 들어찬 우수한 문학작품들과 문제성있는 평론들을 편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학을 선도하는 21세기의 가장 권위있는 문학잡지로 그 위용을 계속 떨치리라고 확신한다.

# 《조선문학》을 펼치다

박세일

새로운 기대여, 호기심이어  
이번호엔 어떤 시가 나를 흥분시킬가  
어떤 주제의 소설이 나를 매혹시킬가  
새 학년 교과서를 펼치는 학생처럼  
새달 《조선문학》을 펼치는 심정이며

괜찮다 여기 내 시가 없다 해도  
한달사이 틈틈이 키가 더 자랐을  
멋쟁이로 뽐뽐하게 번지여졌을  
우리 문학의 얼굴을 보고싶은  
그 간절함이야 어디 가라

문득 떠오른다 나의 병사시절이...  
이 잡지 한권 손에만 쥐면  
잠자리에서도 펼치여보고  
행군길 설참에도 다시 펼치며  
보풀이 일도록 읽고 읽지 않았던가

이 잡지 한쪽 구석에라도  
시 한편 대보는게 그리도 소원이어서  
놀랍게도 나의 첫 시가 발표된 그날  
고백한다, 나는 슬며시 병영뒤로 돌아가  
인쇄잉크냄새가 력력한  
그 푸른색표지에 얼굴을 묻었거늘

이렇게 한달두달  
《조선문학》을 탐독하던 나날에

내 창작의 키가 자란것 아닌가  
여기에 한편두편 작품을 남기며  
총과 이야기하던 어제날 병사가  
시대의 나팔수로 자란것 아니던가

개성이 뚜렷하고  
형상이 기름진 작품들을  
인간학의 꽃으로 정성껏 피워내는  
《조선문학》이어  
너는 정녕  
주체문학의 풍성한 대지

내 오늘  
어느덧 700번째 자욱을 새긴  
《조선문학》을 감회깊이 펼치노니  
수령결사옹위의 숨결 드높은  
선군시대 아름다운 인간들의 전형과  
친숙하게 만날수 있는  
더없이 고결한 지성의 세계--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우렁찬  
사회주의 행진곡을 들을수 있는 책  
우리의 김정일동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값높이 불러주신  
작가들의 친근한 길동무  
오, 《조선문학》이어!

## 평론

### 선군령장에 대한 매혹과 통일주체문학의 정서

-서사시 《령장의 총대우에 봄이 있다》에 대한 정서적고찰-

김덕선

오늘 우리 민족 7천만 겨레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지난해에 평양에서 민족작가대회가 열린 감격과 흥분을 안고 통일주체문학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조선의 시인 김정민의 서사시 《령장의 총대우에 봄이 있다》(《문학신문》주체88(1999)년 제22호)를 두고 통일주체문학의 정서에 대하여 새롭게 음미해보게 된다.

서사시는 총대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총대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천출위인이시며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에 대한 깊은 철학적사상을 통일주체문학의 이채로운 정서로 노래함으로써 총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고 있으며 그 총대철학으로 하여 그이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시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한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가슴깊이 새겨놓은 오늘도 깊은 감명을 자아내고있다.

시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통일주체문학의 사상예술성이 훌륭히

보장된 작품이라는것이다.

우리는 이 서사시를 놓고 통일주체문학의 정서적지향에 대하여 몇가지로 고찰해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서사시가 통일주체문학으로 나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이룩한 중요한 비결은 종자가 안고있는 철학적무게이다.

이 시에서 종자의 철학적무게는 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해 총의 사명이 달라지며 그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데 있다.

서사시는 이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총을 제일 사랑하실뿐아니라 자주와 평화, 정의의 수호자이시며 조국통일의 령수이시라는것을 주장하고있다.

시는 이 종자를 천명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

넘게서 지니신 총대철학을 기본사상적책으로 틀어잡고 이를 조국통일의 정서로 꽃피우기 위한 시적형상을 북과 남의 두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형상의 사상에술성을 미학정서적으로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서사시는 서장에서 봄에 대한 서정을 총대우에 탄생하는 북녘의 봄과 총부리에 쓰러지는 남녘의 봄에 대하여 노래할것을 호소하고있는바 북조선 방문의 길에 오른 시인은 화창한 5월의 봄날 평양에서 대동강물결우에 눈길을 박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남녘에선 총이 봄의 원쑤인데 북녘에서 어떻게 되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력에도 약동하는 봄과 같이 그모두가 삶으로 충만되어있으며 사회주의봄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는가를 생각한다. 그것은 령장의 총대가 봄을 받들고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는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가는 시적계기를 설정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에 대한 시적형상을 끌어내렸다. 시에서는 백두밀영고향집에 있는 나무권총을 소꿉시절 그이의 친한 《동무》로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총과 그리도 인연이 깊으신 분으로 벌써 어리신 그 시절에 이기자면 총이 있어야 하고 총이 있으면 이긴다는 진리를 터득하시는 령장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장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생각하고 찾는것이 총이라는 사상을 심오히 밝혀내고있다.

시는 이 시적형상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해인 주체83(1994)년 년말의 설맞이공연에 자신께서 나가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주석단을 우러르며 더 슬퍼할 아이들을 생각하여 그리도 보고싶으신 아이들의 공연을 라디오로 들으시며 이 괴로움을 총과 함께 말하고싶으시여 인민군구분대로 차를 몰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여주었으며 그 비분을 참지 못하시여 군부대사격장에서 명중탄의 충성을 울리시는가 하면 구분대를 찾으신 초소마다에서 자신의 존함을 새긴 총을 총대처럼 변함없는 동지가 되라고 군인들에게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에 대한 시적종자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2장 부문에서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 흐른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치고있다. 시는 애국렬사릉을 통하여 조국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의 넋을 총대로 지켜주는 북조선의 현실과 《남조선군》의 총에 맞아 죽어서도 눈을 감은 려사들의 비통한 운명에 대해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총을 조국으로, 사랑으로, 자주로 여기시는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선군령장에 대하여 무한히 흠모하고 따르다고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시는 이러한 령장의 총대철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총에 대한 만경대혁명일가분들과 어버이수령님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총의 력사를 한몸에 체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의 총대철학을 선군시대의 정서적미감에 맞게 시의 사상미학적내용을 훌륭히 보여주었고있다.

오늘날 김정일장군님의 총관은  
피로써 이어진 총과 총의 계승으로

그렇게 완성된것  
그속엔 탄창이 아니라  
곡절많은 이 나라의 키돌움과 더불어  
민족의 운명이 재워져있나니

하기에 그분께서 총을 드실 땐  
그 모든 무게를 드시는것  
목표물을 겨누실 땐  
그 모든 넋을 집중하시는것  
그앞에서 살아남을 원쑤가 있으랴!  
원쑤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으랴!  
...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총대철학, 이는 애국, 애족, 애민으로 일관된 자주와 평화, 정의의 상징이며 통일된 조국, 인류의 영원한 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총속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시고싶은 그 모든것이 있으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시여 인류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켜우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력사에 총지부를 찍으시려는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의지와 담력이 비껴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 이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주시려는 장군님의 사랑이며 미소이며 열정이며 그이의 한생이다.

이로하여 지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핵사찰소동은 웃음과 노래로 저지시킬수 있었고 핵무기의 왕국으로 자처하는 미제를 전몰케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선군령장이시야말로 총의 진정한 주인, 정의와 평화, 통일의 주인이신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시라는 철학적종자를 천명함으로써 겨레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적본질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서사시가 통일문학으로서의 민족의 정서가 있으며 우수한 시로 되는 사상예술적성과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

서사시가 통일문학으로서 민족의 정서를 훌륭히 구현한 사상예술적성과에서 다음의 비결은 시형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시의 종자해명에 미학정서적으로 잘 맞물려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정서적지향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서사시의 주인공인 시인은 광주인민봉기의 시기에 투쟁대오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순희의 오빠이다.

5월의 봄, 사랑하는 누이동생이 공정대놈의 총에 맞아 죽었기에 그는 봄에 대한 추억과 함께 총에 대한 생각이 류달리 깊다. 하기에 시인은 서장에서부터 그 가슴아픈 생활세부를 인상깊게 끌고 들어간다.

...  
군경들의 바리케트를 넘으며  
거리를 메우는 시위대  
손에손에 움켜쥔 돌과 돌  
대오우에 필력이는 프랑카드들  
그속에 하얀 점  
내 동생 순희도 있어라

그렇게 온 봄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피가 돼서 도랑으로 흐른 봄  
살구꽃을 좋아하는 내 동생 순희  
살구꽃피는 계절에 싸늘히 식어  
광주의 그 봄에 죽었다  
...

얼마나 애절한 추억을 불러내는 시적세부인가.  
이 시적세부는 제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삽입되고  
있는바 서정적주인공은 북방의 늦은 봄 백두밀영  
고향집을 찾아 로투사의 이야기를 듣고 총의 승  
고한 사명을 깨달을때에도 삼지연기슭을 거닐 때  
에도 미제에게 방아쇠를 빼앗긴 무력한 남녘의  
총때문에 무고한 죽음을 당한 광주의 열혈청년들  
과 함께 지금은 지고 없는 광주의 살구꽃 순희를  
생각한다.

시는 또한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올라 렬사들의  
령전에 머리숙일 때도 순희를 생각하며 자신의  
한몸이 순희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되고 온 한해  
동안 시들줄 모르는 화환이 되어 광주의 봄날에  
스러진 살구꽃 순희를 조상하고싶어한다.

이 시적세부가 있음으로 하여 조국을 위해 한  
목숨바친 렬사들의 넋마저 총으로 지켜주시는 우  
리 장군님의 선군령장으로서의 인민적풍모가 더  
욱 절절하게 안겨올뿐아니라 령장이 없었던탓에  
민주와 통일을 쫓으면서도 무참히 죽음을 당해야  
만 했던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뼈저린 아픔을 금  
할수 없게 한다.

서사시는 이 세부를 마지막 종장에서도 또다시  
반복한다.

그것은 위대한 령장의 총대에 받들려 통일된  
하나의 조국땅우에 기어이 오고야말 그 봄에 살  
구꽃으로 다시 피어나 울고웃을 수천수만의 순희  
들을 그려보는것으로 형상되고있다.

통일된 조국땅의 래일에 대한 시적환상과 랑만  
이 나래치는 이 시적세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에 대한 시적종자를 기림지우게  
하고있으며 시전편에 판통하는 선군령장의 위대  
성과 그에 한없이 이끌리고 매혹되는 서정적주인  
공의 심리정서세계를 절절하게 보여주는것과 함  
께 총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생활의 철학,  
시의 철학으로 정서적감흥이 깊게 안겨줌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피라는 소원을 더는 미  
를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이 세부는 이 서사시  
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형상요소로 종자해명  
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하였다.

또한 이 서사시가 통일문학으로서 사상예술적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시형상에  
서 상징법을 비롯한 어휘문장구사에서 능숙한 기  
교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민족  
정서서를 보다 질게 해주고있는데 있다. 이 시  
에서 상징법은 총을 봄으로 보고있는것이다. 하  
여 이 서사시에서 총에 대한 주장은 봄에 대한  
주장이며 그 봄은 위대한 선군령장에 의하여 꼭  
오고야만한다는 강렬한 시적주장이다. 따라서 이  
서사시의 형상적각도는 총과 봄에 두고있는것이  
다. 그리하여 시는 서장의 첫시작부터 이 땅에  
오는 봄에 대한 서정과 결부시켜 총이야기를 꺼  
내게 되며 총과 봄을 직결시키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사시에서 봄, 그것은 단순한 계

절적으로 찾아오는 봄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우에 이룩되어야 할 조국통일을  
상징하고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영원한 자  
주와 평화, 행복한 삶에 대한 상징이다.

총에 의하여 이 모든것이 담보되고있음을 시에  
서는 자연의 봄에 상징하여 노래함으로써 조국통  
일에 대한 시의 정서적지향을 민족의 정서로 채  
색하는데서 시인의 개성적모습을 뚜렷이 보여주  
고있다.

시는 구체적인 감정과 정서를 리성화한 형상적  
사유의 정화물이다.

이 서사시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가 안고있  
는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깊은 내용을 이렇듯 봄  
에 대한 정서적인 서정세계와 결부시켜 노래함으  
로써 서사시의 내용이 뜻이 깊고 생활과 시대의  
본질이 비낀 문학적이야기의 정서도, 인간의 운  
명적이야기의 정서도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있다.  
그리하여 시는 종장에서 총에 대하여 이렇게 주  
장하고있다.

...

김정일장군의 총은  
정말 봄파도 같다  
가장 사나운 겨울을 이기는  
가장 따뜻한 봄이다

그 봄은

증오를 사랑으로 물리치는 봄  
매국을 애국으로 타승하는 봄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봄  
민족을 살리는 봄이여라

그 봄으로

남북의 력사는 흐르리라  
민족은 통일에 하나되리라  
래일은 강성대국으로 열리리라

...

서사시가 종자의 깊은 철학적내용과 함께 조국  
통일에 대한 깊은 정서적감흥을 자아내게 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것은 또한 시문장의  
어휘들을 뜻이 깊은 사색적인 여운을 주도록 정  
서적으로 채색하였을뿐아니라 민족고유어의 참신  
한 맛을 살려나간데 있다.

그러한 시적표현들으로써는 다음의 시련들을 들  
수 있다.

-5월

이 땅의 봄 5월은  
아지랑이로부터 오지 않는다  
잔디밭 새싹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

-살구꽃을 좋아하는 내 동생 순희  
살구꽃피는 계절에 싸늘히 식어  
광주의 그 봄에 죽었다

...

-김정일장군

그분은

총과 연분이 깊으신분  
총과 한생을 굳게 약속하신분

...

-애당초 총은  
소꿉시절 친한 동무!

...

-그렇게 맺어진 우정이어서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울적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는것이  
바로 총이었던가

...

-울지들 마오  
평양에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설맞이노래를  
부르고있소  
동무들은 지금 총대로  
그 노래를 지키고있소  
나는 학생소년궁전의 그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것을  
총으로 말하고싶어  
이밤 동무들에게로 왔소  
...

이외에도 서사시에는 참으로 민족고유어의 질은 정서를 안겨주는 주옥같은 어휘들이 구슬처럼 꿰여져있다. 그리하여 시의 매 련과 련들이 깊은 철학적사색과 함께 짙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참으로 서사시는 이와 같은 높은 사상에술적형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조국통일에 대한 정서적지향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하여 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이 계심으로 하여 이 땅위에 통일의 붉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오늘도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과감하게 펼쳐나선 남녘겨레의 앞길에 멸적의 기발로, 승리와 프랑카드로 휘날리고있다.

끝으로 강조하고싶은것은 이 시인이 이렇듯 통일주체문학에 기여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서사시를 창작할수 있었던것은 시인의 창작적기교에 앞서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군위업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 그분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민적풍모에 대한 한없는 흠모와 매혹이라 는것이다.

6. 15북남공동선언의 리념밑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막을수 없는 력사의 진리, 시대의 장엄한 흐름으로 되고있는것을 총칼로 역행시키려는 온갖 반동들의 무리가 살판치는 어지러운 남녘의 탁류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고이 간직하고 이와 같이 훌륭한 시를 창작하여 북남겨레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흥을 안겨준 시인에게 독자들과 함께 나 또한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보다 큰 창작적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 전설

# 《행복의 문》

먼 옛날 고구려때 평양성안에 《돌범》이라는 총각과 《시내》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그들은 다른 마을들에서 살고있었으나 돌범은 나무를 하고 시내에는 나무를 뜯으러 모란봉에 올라오곤 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들이 시집장가갈 나이에 이르렀다. 시내를 사랑한다는 아들의 실토정을 들은 돌범의 어머니는 다음날 아들의 혼사를 맡아줄 사람을 시내의 집에 보냈다.

그런데 혼사말을 하러 갔던 사람은 시내의 집에 갔다와 천만락심해하며 처녀의 아버지가 칠성문도 나들지못한 녀석에겐 딸을 늑히는 한이 있어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때 칠성문을 나들지 못했다는것은 무술을 닦지 못하였거나 변방에 번을 서러 나가지 못하였던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였다.

사실 돌범이는 무술을 닦고 변방에 번을 서러 가려고 하였으나 늑으신 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을 떠나지 못했다.

돌범이는 생각끝에 무술을 배우러 떠나갔다. 꾸준한 노력과 스승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그는

3년동안 무술을 닦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어느날 변방의 군사들을 지휘할 무사를 요구했다.

하여 돌범은 시내와 한 3년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로 변방에 나가 외적과의 싸움에 나섰고 방어진축성이 제기되어 또 2년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라를 위한 일에 세운 군공으로 승급되어 평양으로 소환된 돌범은 장수복차림으로 고향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에는 뜻밖에도 다른곳에 시집간줄 알았던 시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돌범과 시내는 그후 어머니를 모시고 의좋게 살았다.

평양성사람들은 돌범장수가 칠성문을 드나들었기에 그들의 행복이 꽃피었다고 하면서 행복을 바라는 젊은이들은 돌범장수처럼 《행복의 문》인 칠성문을 드나들면서 무술을 닦으라고 말하곤 하였다 한다.

# 론증



황동선

## 1

리수남은 긴 복도의 한끝 창문가에 홀로 서있었다.

이곳 농업성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던 회의도중 갑자기 휴식이 선포되자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외진곳에 나와 섰것이었다.

사실 회의는 휴식이라기보다 그자신으로 하여 중도반단되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회의는 그가 작성하여 제출한 《바다물류입에 의한 강의 수위 차이와 염분해석》이라고 영명한 연구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최종기술협의회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 몇달째 왕가물이 계속되고있었다. 기상수문국에서는 백년래에 없었던이 왕가물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매일같이 통보하고있었다. 그 어디보다 농촌들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었다. 저수지들의 바닥이 드러나고 강의 수위가 줄어들어 농업용수가 고갈되어버렸던것이다. 그리하여 농사철이 박두한 지금 벼모내기를 비롯한 농작물의 씨불임이 늦어지고있었다.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리수남은 이러한 자연과피해재난을 타개할 유력한 방도를 이미전부터 연구해왔었다.

요컨대 서해갑문을 통해 강으로 바다물을 류입시키면 그 비중의 차이로 강물 즉 민물은 위로 떠오르고 바다물 즉 소금물은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원리를 여러차례의 실험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강밑바닥에 있을수 있는 최악의 조건, 모래무지며 바위수초들을 넣은 여섯립방짜리 유리함속에 민물과 함께 탄 소금용액을 동시에 넣었다.

그 결과 두 용액은 엄연히 갈라졌다.

두 용액을 가르는 경계선은 오랜 기일이 지나도 매우 미세하게 확산된다는것도 확인되었다.

이 실험실적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면 막대한 실리를 얻을수 있을것이었다.

현재 가물피해가 심한 지역은 대동강을 곁에 낀 지역으로서 평양시를 비롯한 평안남도과 황해

남북도들이었다. 리수남의 연구안대로 대동강물을 올리 띄워 퍼낼수 있다면 무수히 뻗어간 관개수로로 통하여 그 넓은 지역의 농업용수가 저절로 해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동강은 하나의 거대한 수원으로 전환되는 말하자면 밀천을 안들이고 대자연개조를 이룩하는 리상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된다.

그의 연구안이 최근에 와서 표면에 떠오르자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대는 여간만 큰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혹, 반신반의 또는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도리머리를 젓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오늘의 반론도 유력한 근거를 가지고있었는데 소금물이 가라앉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지만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별의별 조건이 다 있을수 있는 자연상태에서 그것이 민물과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될수 없다는것이였다.

학술상 부정할수 없는 론어였다.

현재 강물에는 농작물이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극히 미세한 염분이 섞여있다.

만약 그의 연구안대로 한다면 양수기들이 가동할수 있을만큼 강수위를 올리는데 억단위의 방대한 량의 바다물을 류입시켜야 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런 경우 바다물이 가라앉는다해도 이미 민물에 섞여있는 소금기가 허용수치를 넘어 농작물에해를 주게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 하지만 리수남은 자기가 여러차례 진행한 긍정적실험결과를 부정할수도 없었다.

만약 부정해야 한다면 과학 그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닌가. 그의 이런 립장을 긍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연구안을 두고 과학원에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농업성에도 알려졌다. 때가 때인지라 농업성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결과를 독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착잡한 문제를 안고있던 그의 연구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리공학부문 연구사들과 농업성산하 실무일군들의 합동협의회가 진행되게 되었던것이다.

예상한대로 회의에서는 연구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있던 사람들이 강하게 반론해나



었다.

《환상입니다. 여섯립방자리 실험유리함에서 나온 결과가 자연상태를 그대로 설명했다고 믿는것은 단순한 견해란 말입니다.》

《명백한 실험결과도 부정한다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극적인 태도 또는 공포의식으로 자기를 얹어매고나면 유치한 편견에 기울어지는 법입니다.》

회의장은 론쟁마당으로 변했다.

의혹은 새로운 의혹을 낳았고 론쟁할 여지도 없는 문제조차 또다시 새로운 의혹을 불이며 갑론을박하는것이였다.

《만약 그 거대한 강이 예견하였거나 미처 예견치 못한 원인으로 바다물과 뒤섞이게 되고 그것을 퍼올린다면 농경지가 몽땅 소금밭이 될수 있다는걸 상상해봤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모험은 없습니다.》

《지나친 공포의식이란 말입니다. 과학자는 랭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실험결과를 그제 모험이 아니라는걸 증명 해주고있단 말ियो.》

《하지만 강물에 섞여있는 미세한 염분이 허용수치를 넘을수 있는 경우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상상하고있소. 그런데도 실험결과만을 고집하는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불가능한 론거만을 고집하는건 옳은 사고방식이란 말ियो?》

언쟁은 불꽃을 튀기며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번져갔다. 회의를 주관하고있던 농업성 부국장이 조금 큰소리로 장내를 정돈시켰다.

《그만들 하시오. 문제의 론점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최창록부국장은 이르고나서 초조하고 머리아픈 거의 절망적인 표정을 한채 손을 이마에 가져갔다. 수남은 시간이 감에 따라 형세가 좋지 못하게 기울어지고있음을 느꼈다. 수남의 연구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던 지지자들도 위축되고있음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럴수있는것이 연구안의 실현이 어떤 시험장이거나 국한된 범위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강을 대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예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때 회의장 한가운데서 누군가 불쑥 일어섰다. 회색양복차림을 한 체구가 싹하고 통투무레한 얼굴이 해별에 거명게 탄 50대의 사나이였다.

회의장에 앉은 여느 사람들과 달리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듯 한 텅텅하고 근심한 인상으로 주목을 끌었다. 수남은 인자 그를 알아보았다. 자기가 연구차로 자주 나가군 했던 대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성두였다.

《저는 평안남도에서 올라온 관리위원장 장성두입니다. 이제 별재간없이 논에도 감자를 심으란다는 소릴 듣구 기가 막혀 돌아가던 터에 물이 해결된다는 소릴듣구 날개가 돋힌것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쩡...》

그는 헛기침을 짓고 나서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든 소리들만 하니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금물이 밀으로 같았는게야 아이들도 다 아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평평하던 회의장의 공기가 삽시에 누그러들었다.

장성두는 다시금 말을 이었다.

《리치야 같은게 아니겠소. 내 한뼉 농사로 늙어온 몸인지라 이 가물에 땅이 다 타번지는걸 보구는 더 살고픈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데 연구사 선생이 땅을 적실 연구를 해냈다는 소릴 듣구는 며칠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과학자선생들이 고맙기만 했지요. 한데 자꾸만 안된다고들 하니...》

그는 말을 삼킨채 우물거렸다.

보매 피로움과 설움으로 자꾸 목이 메이는듯했다. 장내는 또다시 조용해졌다. 그런가운데 성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리수남연구사선생의 연구를 지내 부정만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원래 과학이란 안된다는걸 되게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심심히 토의해서...》

그는 뒤말을 잊지 않은채 주저앉았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지금에 와서 누구도 옳거니 그르거니 말을 뱉음을 못했다. 얼음처럼 굳어진 침묵이였다.

문득 최창록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견해의 일치를 보아낼것 같지 못합니다.

그런것만큼 최종적으로 연구사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음 대책을 토의해보자는겁니다. 이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리수남 동무.》

리수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중들의 무수한 눈길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저의 개인적의견은 이전과 지금도 변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의 연구안의 실현가능성문제를 놓고 견해들이 각이한것만큼 가장 공정하고 유력한 판단을 내릴수 있는 또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가 누구니까?》

최창록은 놀란듯 상반신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해양연구소 강지용박사입니다. 저는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40 분간의 휴회가 선언되었고 수남은 굳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곳에 서있는것이였다.

강지용박사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이 이미 떠나갔던가 전화로 찾고있을것이였다.

학계에서 강지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수남이가 그를 초청하자는데 대해 반대를 표시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것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해양학계에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해양물리학자였다. 남다른 수재적학견과 오랜 학구적경험, 인간다운 성실성으로 존경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범상한 문제일지라도 그속에서 새롭고 비범한것을 발견해낼줄 아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학자다운 학자였다.

수남은 자기가 감히 그와 어떤 관계를 가질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몇해전 그는 수리력학적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부교건설에 관한 논문을 내놓은적이 있었다. 자금과 로력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대도로와 맞먹는 부교를 건설함으로써 불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확인한 그 논문은 경제분야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지는데 있었다.

그때도 이 논문을 놓고 학계에서 법석 끓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구상에 탄복을 금치 못했으며 또 그것은 모험과 환상이라고 머리를 쪼는 사람도 많았다.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소용돌이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릴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남은 강지용이 한번 만나잔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공포마져 느꼈다. 해양물리학의 권위자인 그로부터 부질없는 모험으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책망을 들을 각오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강지용의 태도는 어떠했던가.

오랜 지기를 만난듯 허물없고 다정했다.

《난 동무의 그 논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만날 생각이 없었을거요. 논문이 지내 엉뚱한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허허... 하지만 실속이 없고 결만 미끈한 논문들에 비하면 금값에 치고싶소. 기운을 내오. 어떤 사람들은 모험이요 뭐요 하면서 탐구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리군 하는데 과연 모험이 새것을 창조해야 하는 과학자에게서 탐구의 첫 발자국이 아니란 말인가. 과학은 불가능을 론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할수없는 절망속에서도 길을 내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말이 난 김에 하는 소리이지만 같은 시간과 정력을 들이고도 어떤 사람은 력작을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작만 내놓는 까닭이 어디 있겠소. 과학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소. 명석한 두뇌, 대담한 의지, 사회앞에 지닌 본분과 량심, 사명... 많은것이 준비돼야 하거든. 많은것을 갖춰야 하는중에 무엇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서는것이 더 량심적이지요. 나는 동무를 좋아할수 있을것 같소. 논문이 덜통한데가 있지만 잉걸불같은 열기가 있고 꿰뚫어보려는 사색이 있단 말이지요. 동무가 요구한다면 논문이 완성되도록 도와주고싶소.》

만약 그의 방조가 없었다면 수남은 도저히 그 논문을 완성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때부터 수남은 그를 선배로만이 아니라 은사로 마음속깊이 존경해왔던것이다.

만약 그가 이 최종기술협회의회의 초청을 들어준다면 수남은 자기의 운명에서 또 하나의 큰 문이 열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의식하고있었다.

물론 그에게서 자기에게 유리한 편견을 바란것은 아니었다. 과학적으로 의심할수 없는 론중이면 더 바랄것도 바랄수도 없는것이 아닌가....

강지용은 회의실 측면문으로 최창록과 함께 들어섰다.

어둑한 회의실에서 그의 흰머리와 꺼부정한이 큰 키가 유표하게 보였다. 두터운 가방을 옆구리에 높이 끼고 들어선 그는 최창록이 주석단으로 이끄는데도 굳이 만류하고 회의장 앞줄에 가앉았다.

누군가 그의 앞탁자에 확장기마이크를 가져다 놓았다. 벌걱벌걱... 서류를 번지는 소리.

그는 평소의 어느 자리에서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 초청이 감사하기보다 전연 뜻밖이고 내 개인적인견을 여러분앞에 토로해야 하는데 대해서 부끄럽고 괴롭게도 여기고있습니다. ...우선 나는 수남동무의 연구안이 놀랄을 지경으로 커다란 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실용적의미도 무시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수남은 숨이 꺾 막히는듯 했다. 한동안 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목밑에서 심장이 뛰는듯 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염분의 확산농도... 강물에... 미세한 염분이 바다물이 들어오는 경우 허용수치이상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회의취지로 됐을겁니다.》

장내에는 그의 나직나직하면서도 여문 목소리만이 또렷이 울리고있었다.

《레를 들면 이런 실험실적방법을 상상해봅시다. 일정한 공간속에 먼지를 넣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먼지는 흩날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흩날립니다. 깊은 물이란 공기의 흐름과 같아서 늘 류동상태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미세한 소금알갱이들이 허용수치를 넘지 않을것이라는 확답이 성립될수가 없는것입니다.》

《염분이 확산된다는것이겠지요?》

최창록이가 물었다.

지용은 그의 성급한 물음이 불쾌한듯 대답을 않고 말꼬리를 달았다.

《보다 본질적인 레를 든다면 이미 수남동무의 실험에서 증명된 소금물과 민물사이의 경계선이란건 물리적벽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파도가 세차게 일면 그 진동의 여파로 또는 강물의 흐름으로 염분은 먼지처럼 흩날려오르게 됩니다. 이걸 보는덴 굳이 실험이 필요없으리라고 봅니다.》

수남은 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지는것을 느꼈다. 강지용의 말에서 움직일수 없는 실험적실체, 염분이 확산되는 모양이 너무도 똑똑히 보였던것이다.

문득 강지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남동무. ...》

수남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강지용이 도수경을 벗어놓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시오.》

《...》

수남은 앞줄의 긴결상 등받이를 짖 쥐고 서서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두사람사이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연결된듯 서로 부자연스러운 기색을 띠고 무엇인가 아귀를 짓지 못하고있었다.

수남은 여지없이 실패라는것이 증명된 이 마당에서도 자기의 논문을 부정할수가 없었다. 단순히 미련때문인가... 눈물이 날만큼 분했다. 이젠 어디도 의지할데가 없다.

문득 누군가 일어섰다.

무수한 눈길들이 그쪽으로 쏠렸다.

장성두가 우뚝 서있었다.

《제 주제넘게 또 일어섰습니다. 연구사선생파나는 영 모르는 사이도 아닙니다. 선생이 이걸 연구하겠다고 우리 농장에 자주 나오곤 했지요. 헌데 대답을 못하는걸 보니 케는 그른것 같습니다. ... 박사선생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학자선생님들을 믿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선생님들만은 해내리라고. 헌데...》

장성두는 맥없이 주저 앉아버렸다.

어딘가 가까운곳에서 폭탄이라도 터진것 같았다. 그 둔중한 메아리가 회의장의 공기를 뒤흔드는듯 했다. 기대가 허물리운 설분과 괴로움이 헌데 뒤섞인 장성두의 굵고 탁한 목소리는 회의장의 예민한 공기를 마구 뒤흔들어놓고도 남음이 있었던것이다.

수남은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다.

딱히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회의를 결속하던 최창록의 힘없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을뿐이었다. ...

그는 텅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몸을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다. 모든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문득 그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지용을 보았다.

《나 개인적으로는...》하고 그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동무가 나를 여기로 오게 한걸 유감으로 생각하오. 결국 내가 동무의 연구안에 대한 부결권을 행사한 셈이 아닌가.》

《...》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기요 언제까지 이러구있겠소.》

수남은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앞마당에서 승용차가 기다리고있었다.

《타오. 집에까지 태워다주지.》

《괜찮습니다. 전 걸겠습니다.》

지용은 승용차문손잡이를 쥐려다 말고 돌아섰다.

《동무 맘이 괴로우리란걸 알고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고맙게 생각하게 될거요.》

《네?...》

수남은 선뜻 눈길을 들었다. 어쩐지 그의 말속에

에 흘러들을수 없는 무엇이 깃들어있음을 느꼈다.

《물론 과학이 점령할수 없는 요새란 없지. 하지만 인간의 욕망 그자체를 과학과 동일시할수는 없어. 안그렇소? 허허... 후에 마저 얘기합시다.》

잠시후 그가 탄 승용차가 자리를 뒀다.

수남은 못박힌듯 서서 저으기 의혹이 섞인 눈길로 승용차가 정문을 지나 차길에 흐르는 무수한 차들의 물결속에 잠겨들어가는 모양을 지켜보고있었다.

## 2

창문밖에는 먹물같은 어둠이 짙 차있었다.

자정도 훨씬 넘은 밤이었다.

깊은 정적으로 귀부리마저 웅- 울리는듯 했다.

수남은 실험실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시험대를 마주하고있었다. 고뇌가 가득찬 눈으로 서류를 보기도 하고 실험유리함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는 량쪽중 어느쪽으로도 자신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시험유리함에 든 두 용액은 아무리 휘저어도 뒤섞였다가는 경계선을 짓고 본래상태로 되돌아간다 강의 수심은 수심미터까지 이른다. 파도가 아무리 세계 인다해도 그 진동파가 십여미터를 넘지 못한다는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강의 흐름은? ... 먼지... 소금알갱이... 강물의 흐름속도에 대해 말한다면 바다물을 류입시킬때 갑문에서 얼마든지 조절할 여유가 있다. 강지용박사의 론거가 옳다고 한다면 나자신도 반박할 근거도 적지 않다.

헌데 회의장에서 일언반구도 못했는가, 당초에기가 꺾여서... 예익, 못난이같은게... 부지중 설분을 토하는듯하던 장성두의 목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폐배자의 물골 그대로 강지용박사의 론거를 그대로 시인할번 하지 않았는가. 어찌보면 장성두는 자기의 이런 물골을 가리워주자고 일어났겠는지도 모른다. 문득 전화종소리가 들렸다. 수남은 흠칫 놀라며 일어섰다. 세사람들이 다 잠든 이 밤중에 웬 전화일가싶었다. 방구석에 놓인 원탁에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강지용의 석침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가 끝나구 동무의 기색을 보니 그냥 불만이 있는것 같더군. 실험실에 있을 줄 알았네.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다는거겠지?》

《술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난 동무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걸 알고있소. 회의에서도 내 말했지만 두 용액사이의 경계선이란건 물리적벽이 아니네. 자연상태에서도 그게 고착되어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운 착오로 되오. 왜냐하면 수만정보의 농경지를 소금밭으로 만들수 있는 화근이 거기 숨어있으니까. 지나친 미련을 버리고 냉정히 생각해보오.》

《...》

《내 그때 말하려다가 그만뒀지만 동무의 그 연구를 앞서 한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챘으면 그 헛된 수고에서 손을 떼기가 한결 쉬울거요.》

《네?... 아니 그럼 선생님이...》

《그렇소. 빌어먹을 먼지알갱이같은 염분의 작간때문에 끝내 손을 들수밖에 없었소. 동무의 시험유리함이 긍정적결과만을 보여주듯이 이놈의 먼지알갱이한테는 시험초차 불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하오. 동무가 이 수고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 말을 하니 어디 옮기진 말아주오. ... 밤이 깊었소. 쉬라구.》

수남은 맥없이 결상에 앉아 머리를 싸쥐었다.

이제와선 캄캄한 심연의 바닥에 굴러떨어진듯한 느낌이였다. 선험자는 벌써 있었던것이다.

해양학계의 권위자 강지용은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수 없는 슬픈 사실을 드러내보였던것이다. 이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망동이 아닐것인가.

그는 저도 모르게 몸부림치며 신음소리를 냈다. 정녕 포기해야 하는가. 이 무슨 미련인가...

문득 자체력을 잃은듯 부르짖던 장성두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듯 했다. 얼마나 믿음과 기대가 컸으면 설분과 피로움을 감추지 못했겠는가.

그것은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이 나라 농민들만이 아닌 인민들모두의 실망이 아니겠는가.

사실 농장에 자주 나가군 한 자기에 대한 장성두관리위원장의 관심과 기대는 여간 아니였다.

농장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린것처럼 그 무엇도 아끼는것이 없었다. 이 리수남이가 요구한 시험용침전못을 만드는데 술한 로력을 돌린것으로 해서 책망을 들은적도 있는 그였다.

그는 이 사실을 입밖에도 내지 않았고 전연 그런 티도 보이지 않았었다. 후에야 그것을 알았던 것이였다.

이런 그가 연구안이 종시 비극의 막을 내리게 된것을 보았으니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수남은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그런데 강박사의 고백을 듣고보니 가까스로 딛고있던 마지막 지렛점마저 허물어져버린듯 했다. 무릇 흔히 말하듯 괴롭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가...

그는 어둠의 밑바닥에 나뒹어진 자신을 보고있었다. 도저히 움직여낼수 없는 이 현실... 생신한 공기가 그림고 밝은 해빛이 그림다. 사람이 자기를 위안하는데 가장 단순한것으로도 족할 때가 있다.

어쩐지 장성두관리위원장이 보고싶다.

그때 회의장에서 홀 가버린 그. 아마 이 무력

한 리수남이따위와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겠지... 하지만 그 대정농장의 땅만은 걸어보고싶다. 마지막작별이 된다 할지라도 걸어보고싶은 땅이고 감출줄 모르는 성미 그대로인 장성두의 비난의 목소리를 실컷 들어본다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이튿날 그는 시외로 나가는 배스를 탔다.

대정농장까지는 약 한시간가량 가야 했다. 도중정류소에서 내려 강가로 나가는 신작로를 걸어갔다. 사방은 온통 논벌이 펼쳐졌다.

모내기철이 림박한 지금이건만 논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 허영게 마르고 타버린 땅...

수남은 자기의 가슴마저 타버리는듯 했다. 땅은 물을 기다리건만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리도 속수무책일수 있는가...

수남은 고뇌가 가득 비긴 눈으로 논배미 하나 건너 최뚝을 따라 길게 파놓은 침전수로를 더듬어보군 했다. 장성두관리위원장이 이 침전수로를 누구도 서둘러 다치지 못하게 한다.

서해갑문이 일떠서기전에는 대동강을 제멋대로 드나들던 바다물이 이 벌판에도 휩쓸어들군 했다. 그때는 여기가 논벌이 아니라 갈대만 무성한 침수지였다. 갑문이 일떠선 다음에야 장성두는 강가녁에 제방을 쌓고 여기다 논을 풀었던것이다.

한데 잔물이 댐 땅이라 여러해동안 곡식소출이 변변치 않았다.

그러하여 장성두는 논배미가녁마다 깊고 긴 침전수로를 파고 양수기로 대동강의 민물을 퍼올려 논에 《찜질》을 했다.

그러니 잔물은 자연히 논바닥보다 깊은 침전수로에 갈았고 지금에 와선 땅이 꽤 쓸만하게 되었던것이다.

사실 수남이가 이번 연구안을 내놓게 된 동기는 저 침전수로에서 착상을 얻었기때문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주 이 농장에 나오게 되었고 장성두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된것이였다. 장성두, 그지없이 진실하고 소박한 정을 주면 몇배로 갚지 못해 애쓰는 말그대로 땅과 같은 사람이였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한번 더 보고싶고 그 꾸밈을 모르는 목소리를 들어보고싶은것이였다. 문득 수남은 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강기슭의 양수장에서 우물거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까닭모를 의혹을 느꼈다. 강의 수위가 줄어든 지금 사람들이 양수장에서 할 일이 무엇일가 싶었다.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양수장에 이른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대어섯명의 낫익은 청년들이 강에서 양수장으로 뺀어온 수로를 파올리고있지 않는가.

도무지 소용이 닿을상싶지 않은 일을 하고있는 것이였다.

《아니, 연구사선생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띄어보고 먼저 반가운 소리를 쳤다.

수남은 그들이 일하는 수로쪽으로 내려갔다.

《야, 이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째 축간것 같군요.》

그들은 수남을 둘러싸고 한마디씩 건넸다.  
수남이도 그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물음을 던졌다. 《한데 수로는 왜 파는겁니까? 지금 그대로도 일었는데...》

《선생님도 참... 선생님이 연구한대로 강물이 불어나면 제격 받아쓸수 있게 준비해야지요. 복은 기다릴게 아니라 마주나가 받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하...》

《하하하.》

저마다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남은 뒤꼍을 맞은듯 정신이 멍해왔다.

《수로를 정리하라고 한건 우리 관리위원장동집니다. 그저께 농업성에서 내려와 가지구서는 별로 엄숙해서 양수장수로들을 정리하라고 하는겁니다.》

수남은 현훈증마저 느꼈다. 혹시 이들이 자기를 놀리는게 아닌가 싶었다. 관리위원장은 그제 회의에서 자기에게 그토록 섬섬한 말까지 터놓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있다.

《선생님, 언제쯤이면 연구를 성사시킬 작정입니까?》

《한해농사의 운명이 결판이 날 지경에 처했는데 빨리 마련이 있어야지...》

《너무 재기만 하는게 아닙니까?》

저마다 초조히 한마디씩 하는 그들의 눈에는 이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비껴있었다.

수남은 고개를 숙인채 슬며시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을 마주할 낮이 없었다. 무슨 대답을 할수있단 말인가. 자기 입에서 나올 말로 그들을 실망시키는건 더욱 못할것이였다.

문득 그는 굳어졌다. 바로 앞둔덕우에 서있는 장성두를 본것이였다.

《선생님, 날 좀 봅시다.》

그는 짙막히 뇌이고나서 먼저 양수장앞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양수장앞마당에 이른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더니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래일로 선생이 찾아올줄 알았습니다. ...》

그는 착잡한 얼굴표정을 하고 잠시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제 회의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만 선생한테 듣기가 썩 좋지 않은 말을 한걸 후회하지 않소. 난 선생이 그렇게 쉽게 넘어질줄은 몰랐소. 그러자구 별고생을 다 하면서 지금껏 연구를 해왔습니까?》

《전 고생한게 없습니다. 저때문에 오히려 관리위원장동지가...》

수남은 눈길을 떨군채 목멘 소리를 했다.

《이제와서 그런 인정문제나 캐신 뭘 하겠소. 사람이 살아가자면 서로 주고 받는게 일상사가 아니겠소. 우리가 선생한테 받은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농사를 잘지어 우리 장군님께서 더는 농사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짐을 지고 찾아온 그 불같이 뜨겁고 깨끗한 마음이었소. 그래서 우리한테 선생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었소. 선생님은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 하루도 쉴사이없이 군부대

들을 시찰하시느라 바쁘신속에서도 험한 농장길을 걸으시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고개를 쳐들수가 없다고 했지요. 이 나라 과학자로서 일을 쓰게 했더라면 우리 장군님께서 아직도 험한 농장길을 걸으시게 했을가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나게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셨소, 안그러셨소?》

《...》

수남은 깊이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못했다.

장성두는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참는듯 후유-긴숨을 내쉬었다.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시우? 우리 수령님께서 수억만금을 들여 저 서해갑문을 일떠세워주신것은 대동강을 대인공호수로 만들어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그 덕을 다 보지 못하고있는것은 과학자들의 책임이 많다고... 얼마나 가슴아프게 말했소. 난 그때부터 선생이 보통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소. 정말 두손을 다해서 섬겨야 할 큰사람으로 보였소. 한때 선생님은 이번에 보니 께이옵데다. 좀 센 바람이 부니까...》

수남은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느꼈다 장성두의 말은 자기 가슴속의 가장 여리고 아픈곳을 마구 찌른듯했다.

《관리위원장동지...》

수남은 저도모르게 목이 꼭 잠긴 소리를 냈다. 어쩐지 꼭 닫겼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듯 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말하고싶은데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 어찌겠소. 정말 포기를 할 생각이요. 아니면 본시 선생의것 그대로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살 생각이요? 사내답게 툭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수남은 물기가 어린 눈을 들었다

《관리위원장동진 제가 찾아올줄 알고 기다렸다고 했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이 한뼘 살다나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단말이요. 다른 사람은 못와두 선생은 꼭 올 사람이요. 허허...》

장성두는 사뭇 능청스럽게 웃었다.

수남은 무엇인가 가슴을 쿵 찌르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연구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농장에 꼭 한번은 발길을 하리라고 본 장성두. ... 그가 양수장의 물길을 정리하게 한건 미련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리수남을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그토록 그는 수남이 자기라는 인간을 믿고있는 것이다. 이제와선 그의 말마따나 센 바람이 부니까 넘어질번 했던 자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물기가 어린 눈을 들었다.

《아바이, 제가 약골이었지요?》

《영 그렇지도 않소. 좀 휘기는 해두 꺾이지는 않을 사람이요. 뿌리를 든든히 박은 다음에야 어찌 넘어지겠소.》

《이제 다시 넘어지면 종아리를 치십시오.》

《종아리정도겠소. 그저 그러루한 사람으로 알고 다시 상대를 않겠소.》

《허허허.》

수남은 어쩐지 가슴이 거뜨해진듯 했다. 자신을 단단히 틀어쥐어야 했다. 당초에 중요하다고

본 이 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서 후회없이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넘어서지에는 아직 이른다.

이윽고 그들은 헤어졌다.

수남은 곧장 해안도시쪽으로 향했다. 연구소로 가자면 시내에서 버스를 타야 했다.

그는 허영게 말라버린 울퉁불퉁한 등판우를 헤매이듯 걸어갔다. 느닷없이 강지용박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연상태에서 민물과 소금물사이의 경계선이 확산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론증하고 있다. 자기의 기술테타가 너무도 명백한 나머지 그리고 자기 두뇌의 비상한 섬광에 현혹되어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것 같다. 감히 생각컨대 여기에 그의 교만이 있는게 아닐까. 현실은 한 인간의 비상한 두뇌로는 도저히 가닿지 못할 수수께끼들을 안고있다. 현실을 떠난 어떤 과학적 발견도 빈말공부에 불과하다. ... 한데 소금이란 무엇인가? 그게 그렇게 무서운 물건인가?...

부지불식간에 그의 머리속에 피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소금이 농작물에 해롭기만 하겠는가. 이것도 캐봐야 할 문제이다. 농업과학분야에서 농작물의 생리를 소금에 적응시키는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최근 과학기술동보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유전자변이 작물은 소금을 비료로까지 쓸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있다. 그렇다면 소금이란 무엇인가. 수십 수백가지의 화학물질들의 결합체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수리공학자가 소금의 화학적성분을 알고싶어하다니... 화학자로 둔갑하고싶어졌는가... 저절로 허구쁜 웃음이 나왔다.

강물의 미세한 소금기...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허용수치...

수남은 지내 몰두한 나머지 자기의 머리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었다. 분명 자기는 수리공학과 거리가 먼 화학의 문안에 호기심을 가지고있는 것이었다. 본능이 그를 충동시키고있었다. 눈앞에서는 그 미세한 기술수치들이 하루살이떼처럼 훑날리며 사라질줄을 몰랐다. 그는 미궁속같은 사색 세계에 빠져 언제 도시에 이르렀는지 몰랐다. 벌써 사위는 캄캄하게 어두웠다.

우- 우- 새된 바람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터진것이다.

바다를 곁에 낀 도시인지라 때없이 강풍이 불고 또 여간만 기승스럽지 않다.

가로수들이 몸부림치고있었다.

길가던 사람들이 옷깃을 세우고 총총히 걸어가고있었다.

부웅-- 부웅--

둔한 배고동소리가 불안스레 들려왔다.

저쪽 쇠울타리너머 항구에서는 각이한 음향의 배고동소리들이 연해연방 들려온다.

부웅- 부웅-

뚜-

문득 항구내를 달리는 방송차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상경보입니다... 오늘저녁부터 이틀에 걸쳐 북서풍이 15미터로 불고 바다물결의 높이는 2메

터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배들과 해상기재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한순간 수남은 몸이 떡 얼어붙는듯 했다.

강물속에서 염도의 확산농도를 정확히 알자면 파도가 세차게 이는 강의 각이한 깊이에 따른 물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보는것이 가장 리상적이다. 설사 그 모든것이 실패를 증명하는 근거로 될수 있다. 그래도 좋다. 중요한것은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뚜렷한 론증이 필요한것이다. 사실 과단성을 발휘해야 할 그 모험은 미룰수도 피할수도 없는것이였다. 8일후면 바다수위가 최대만조기로 오르게 된다. 자연상태에서 얻어낸 분석결과가 자기의 실험실적수치와 일치하면 갑문을 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바다수위가 최대로 올라야 강으로 흘러들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운명적인 날이 8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번 최대만조기까지는 한달남짓이 기다려야 한다. 농사철이 막두한 지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분명 최악이다.

래일... 래일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론증을 틀어쥐기 위해 풍랑과 맞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지 않을수 없다!

### 3

좌아- 철썹, 처절썹...

썩늘한 강바람과 함께 검푸른 파도들이 밀려와 부두기슭을 떠리고있었다. 부두에는 대여섯척의 배들이 정박하고있다. 배들에는 인적이 없다. 어제저녁부터 해상경보이므로 배들은 대피상태에 있는것이였다.

수남은 부두의 한쪽구석에 자리잡고있는 경비초소로 갔다. 초소앞마당에서 결상에 걸터앉아 코등에 돋보기를 걸고 신문을 보던 경비원아바이가 의아한 눈을 들었다.

그는 사유를 다 들을새도 없이 펄쩍 뛰었다.

《해상경보라는걸 모르슈? 일체 배들은 뜨지 말라는거웨다.》

《해상경보야 바다에서 통하는 말이지요. 강에서는 크게 위험할게 없습니다.》

수남은 농치려는듯 웃으며 다가들었다.

《나도 젊었을 땐 한다하는 배군이였수다. 저 넓은 강에 나서면 바다와 다르게 있는줄 아시우? 정말 물이 무서운걸 모른다니까.》

수남은 속이 벌컥 뒤집히는듯 했다. 아바이와 입씨름이나 하다가 일을 망칠것만 같았다.

《아바인 이 가물때문에 농사를 망치는걸 보자고 그러십니까? 그땐 아바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영?》

아바이는 결상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도대체 뉘신지...》

《난 수리공학연구사인데 저 강에서 올해 가물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허 이런... 선생이 중한 일때문에 그런다는걸 알겠소만... 그래도...》

아바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듯 딱

한 표정을 짓더니 황황히 경비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좌우간 우에 전화를 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지 그냥은 안되겠다.》

몇걸음을 떠다말고 이쪽을 돌아보며 아버지가 근심스레 던진 말이다.

아버지가 경비실안에 있는 전화기에 매달리자 리수남은 제때잡 저벅저벅 강가로 내려갔다.

해양연구소의 전용인 이곳 정박장의 배들은 그도 필요할 때마다 리용하곤 했었다.

수남은 어느 한 매생이에 올라 채수병이 든 배낭을 내려놓고 구멍조끼를 입었다. 그리고는 더 준비해둘것이 없겠는가 하고 주위를 살피다가 둥그렇게 사러놓은 바줄통구리에 매달린 닻을 닝큼 들어 배에 실었다. 파도에 흔들릴 배를 고정시킬 때 쓸 심산이었다.

《여보시오. 연구사선생, 이게 무슨짓이요...》

저만치 경비실을 뛰쳐난 아버지가 엎어질듯 달려내려온다.

《걱정마십시오. 아버지, 허허...》

수남은 노를 젓기 시작했다.

어느덧 매생이는 어느 기업소들의 배들이 잔뜩 들어서있는 좁은 수역을 지나 복판으로 향했다.

삐걱삐걱-

그는 이따금 노질을 멈추고 가느다란 고무관에 연결된 채수병을 물속에 던져넣곤 했다. 그리고는 고무관의 끝을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곤 했다. 그러면 채수병마개에 달린 깔때기가 열리면서 각이한 깊이의 물을 따로 담아올릴수 있다.

그는 해도를 펼쳐들고 표기된 위치를 더듬어보고는 또다시 노를 젓곤 했다.

배는 강녘을 따라 하류쪽으로 내려다가 점차 강복판으로 향했다.

강물은 점점 검푸른 쇠빛을 띠고있었다.

강물은 위협하듯 허연 물갈기를 쳐들고 사납게 덤벼들곤 했다.

썩- 썩아-

옷자락이 찢어질듯 한 드센 바람, 머리우를 스치는 갈매기의 비명같은 울부짖음...

길길이 날뛰며 배전을 날아넘는 물갈기에 수남의 옷은 온통 젖어버렸다. 배가 어찌도 드노는지 몸의 중심을 잡을수가 없다. 떠나온 강대안은 까마득히 보였다.

파도는 더욱 높아지고있었다. 사방은 온몸을 열구는 파도의 사나운 울부짖음소리뿐이었다.

수남은 이제 돌아설가싶었다. 그러나 강중심에 위치한 깊은 굽의 물은 뜨지 못했다 물의 염도를 측정하는데서 기본흐름결인 깊은 굽의 물의 염도를 알아내는것이 기본과제로 된다.

수남은 모지름을 쓰며 강복판으로 노를 저어갔다. 한데 배가 도무지 나가는것 같지 않다.

그는 물주머니가 된채 파도의 산악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리는것이였다.

그는 시간의 흐름도 생명의 위험도 잊고 아니 잊었다기보다 잊으려고 애쓰며 위험속으로 마구 빠져들어가고있었던것이다.

마침내 강복판에 이르러 그는 마지막 물시료를

뜨려고 서둘렀지만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았다.

더 높아진 파도가 담벽처럼 일어서며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몸도 제대로 가늠하기 힘들었다.

리수남은 가까스레 배전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표류하는 배와 함께 바닥에 덩굴고있는 닻을 들어 뺐구었다. 그다음 그는 채수병이 든 배낭을 닻줄에 비끼러맨 다음 마지막 채수병을 강물속에 넣었다. 이때였다. 또 한차례 덮쳐드는 무서운 파도에 배가 내뿜개치운듯 허양 들리였다가 내리꽂히였다. 그 서슬에 배전에 가로 질러놓은 닻에 비끼러매였던 닻줄이 끊어지면서 채수병이 든 배낭과 함께 강물속에 쏟아져들었다.

(앗, 채수병...)

그는 앞뒤를 가릴새없이 닻줄과 함께 물속에 잠겨드는 채수병배낭을 붙잡으려고 몸을 던졌다.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간 그는 채수병배낭을 잡으려고 헤엄쳤으나 마구 뚫어버리는 파도의 광란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알길이 없었다.

아...

그는 절통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한번 물속으로 곤두박혔다. 한참을 신고하여서야 그는 채수병배낭이 매달린 닻줄의 끝을 간신히 더듬어잡을수 있었다. 가까스로 물밖으로 머리를 내민 리수남은 여직껏 생각지 못했던 절망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배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것이 끝장인가?...

일순 그는 운명이 손을 내민듯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통나무가 미끄러져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통나무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한순간 안도감이 온몸을 휩싸더니 새로운 불안이 등을 짹 거머잡는다. 한손에 틀어친 닻줄이 팽팽히 행기워지면서 세찬 물살과 파도에 떠밀리운 통나무가 길길이 솟구치며 수남의 몸을 사정없이 끌고가려 하였다. 통나무에 의지하여 이곳을 떠나면 채수병은 잃어버리고 만다. 며칠후이면 감문을 열게 할수도 있는 비밀의 채수병!...

불꽃같은 희망은 이렇게 파멸히우는가.

그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사정없이 물살에 떠밀리우는 통나무를 놓아버리고 닻줄을 더 단단히 손목에 감아쥐었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매생이일망정 관측상 필요로 닻을 실었던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는 실새없이 물을 헤이면서 벌어져가는 통나무를 바라왔다. 왜선지 눈물이 나왔다. 구원받지 못할 생명일수 있다. 삶과 죽음, 두 길중에 후자를 택한 자기가 놀라왔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이 엄청난 비약을 자기는 해냈던것이다. 하긴 다른 길이야 택할수없지 않는가. 제 목숨을 살리겠다고 조국과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게 무슨 참다운 인간이고 과학자이겠는가. 만약 죽음이 두려웠다면 강에 들어서지도 않았을것이다. 과학자는 때로는 말과 글로써는 자기가 찾으려는 학구적세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거기서 주저앉는가 아니면 심정을 내대고 불가능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는가 두 길이 있을 뿐이다. 조국이 선군정치의 총대로 제국주의자들

을 쳐부시며 강성대국의 앞길을 개척하듯이 이 시대의 과학자는 마땅히 주저앉거나 에둘러갈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과학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심장의 불, 다름아닌 론증의 해불을 높이 들고 미지세계를 밝혀내야 한다.!

아아... 생명으로 바라건대 물속에 갇힌 채수병배낭을 찾아주기를! ... 닻줄을 손에 감아진 이 죽음을 본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채수병배낭때문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것이다. 거기서 일어난 산 자료로 이 거대한 인공호수가 부강조국의 끝없는 수원이 되어주기를!

... 하여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연구안이 실현 불가능이라는것이 증명될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의 죽음은 누구인가 시도할수 있는 이 수고스러운 모험을 그만두게 하는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는것이다.

그는 기력이 진해가는것을 느꼈다.

어쩐지 장성두의 모습이 떠올랐다.

《선생, 기운을 내시오. 죽어서는 안되요.》

그가 눈물을 머금고 부르짖는것 같았다. 그렇다. 죽고싶지 않았다. 기어이 살아서 가물에 탄 저 벌판에 생명수가 철철 흘러드는 광경을 보고싶었다. 그때 양수장이 있는 벌기슭에서 장성두가 눈물겹게 하던 말들이 들리는듯 싶다. 그 절절한 목소리들이 말라가던 가슴을 적셔주고 용약이 길에 나서게 하였지. 부끄럼없는 한생을 살도록 떠밀어준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바랐고 온 나라 인민이 소원한 그날을 보고싶은것이였다. 마를줄 모르는 광대한 수원을 옆에 끼고 억년 마를줄 모르는 대지!... 푸른 벼바다가 보이는듯싶다. 소리치며 자라는 우거진 벼포기들... 하늘땅이 온통 누렇게 물든 벼이삭 물결치는 가을의 대지가 안겨오는듯 싶다... 수남은 새힘이 솟구치는듯 했다. 자기가 이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듯이 죽음과도 싸워이겨야 할것이였다. 인간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지금이야말로 시험해볼 때가 아니겠는가.

그는 닻줄을 더 단단히 감아쥐었다. ...

문득 그는 먼 앞쪽에서 다가오는 배의 선체를 보았다. 싸이렌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구조선이 온다는것을 깨달았다.

필경 정박장 경비원아바이한테서 통보를 받고 해양연구소에서 보낸 구조선일것이였다. ...

구조선이 몇자 두척의 뱃머리가 떨어져나와 이쪽으로 미끄러져왔다. 실신상태에 빠진 수남을 가까이로 뱃머리에 올려다왔다. 손목에 감아진 닻줄을 어찌도 드세게 틀어쥐었는지 돌처럼 굳어진 주먹을 펼수가 없었다.

《채수병을...》

그가 가까스로 눈을 뜨고 나직이 뇌이였다. 그리고 손에 쥔 닻줄을 놓을념도 않고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나는 채수병을 찾기전에는 여기를 떠날수 없소. 닻줄에 채수병배낭이 매달려있을게요.》

얼마후 구조선에서 닻줄을 감속기에 감아올렸다.

그들이 채수병배낭을 찾아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윽고 구조선은 파도를 헤가르며 정박장으로

향했다. 수남은 선실의 침상에 맥없이 누워 둥근 유리창문너머로 먼 하늘을 시름없이 내다보고있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된 그였지만 어째선지 그 모든것이 새삼스럽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기력은 말끔히 소모되었지만 또다시 준엄한 운명이 닥쳐온다면 서슴없이 일어나 싸울수 있었다.

## 4

연구소소장방에는 최창록부국장을 비롯한 내각의 책임일군들과 강지용박사와 함께 과학원의 연구사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이 마주한 긴 탁자우에는 타자한 종이장들이 놓여있었다.

방 옷쪽벽에 붙여놓은 걸상에 리수남은 홀로 앉았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했다. 얼굴은 누르스름하게 뜨고 광대뼈가 두드러져나올 지경으로 살이 깎이웠다.

몸이 어찌도 수척해졌는지 늘 입은 옷이 후렁후렁해졌다. 그는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사람들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취해온 물시료에 대한 분석시험에 달라붙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있는 타자지에 찍힌 글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남은 이번에 진행한 분석시험결과가 자기에 게 행운의 미소를 던져주고있다고 믿고있었다.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민물과 찬물사이의 경계선은 확산된다는것을 가정사실처럼 믿고있었다. 이에 대한 반론은 거의 불가능하였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연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강물의 맨 깊은곳에는 염도가 짙은대신 높은 수위에 오르면서 희박한 수치를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결면에는 정상태였다.

수남은 언젠가 본능적인 충동으로 예감한 화학의 문안에 들어설 필요를 느꼈다. 왜 수면에는 염분이 정상태인가. 물론 이미 확인된 두 용액은 비중의 차이로 갈라진다는것은 법칙성을 띠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미세한 염분의 확산은 피할수 없다는 반론자들의 견해 역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있었다.

수남은 자기의 화학분석실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확실한 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자기가 그 방면으로 파고들어간것은 천만번 잘한 일이었다. 알아본데 의하면 소금의 주성분인 염소이온이 전기적성질도 가지고있다는 사실이였다. 따라서 높은 수위의 염소이온은 아래쪽염도에 끌려내려갈수밖에 없다. 현재 극심한 가물로 하여 바다물의 총염도는 소금생산자들이 환성을 올릴 만만 높은 프로수를 기록하고있다. 그것이 강물면으로 들어오면 먼지처럼 확산되는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가지고있는 물리화학적성질로 하여 아래쪽으로 응집된다.

물의 흐름속도라든가 파도 등 외부적충격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응집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강물을 통해 속도가 조절된 바다물은 유연한 흐름을 지어 강물밑에 깊숙이 갇히게 된다면 임의의 상상할수 있는 부정적견해가 정당하다고 하겠



는가?!... 하지만 이 모든것을 장담할수는 없다.  
또 어떤 부정적견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것이다.  
...

수남은 은근히 강지용박사에게 시선을 주곤했다. 그에게서는 어느때의 도고한 기색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유난히 흰 머리칼은 광택을 잃고 송라처럼 이마주위로 흩어졌으며 얼굴에 주름살들이 더 많아진것 같았다. 시름에 싸인 로인의 인상이었다. 방안에는 종이장번지는 소리만 들렸다. 문득 최창록부국장이 서류에서 눈길을 떼고 수남을 바라보았다. 감동에 젖은 눈빛이었다.

《나는 동무의 확신을 읽었소. 어쩌면 믿지 않을수 없는 확신일것 같소.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방안에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선풍이 일고있었다. 최창록은 방안을 몇걸음 거닐다가 강지용에게 시선을 주었다.

《지용선생, 어떻습니까? 이 동무의 론증을 믿고 감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지용은 소리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쥔 그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있었다.

《나는 우선 대답에 앞서 자신을 터놔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

《?...》

《...》

《그렇지만 하나의 강을 통채로 떠올려 퍼낸다는것은 저에게 신화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의 리성은 구부러졌습니다. 수남동무처럼 풍랑속에 뛰어들 희생정신과 담력만 있었더라도...》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진숨을 토했다.

그의 흰머리칼이 경련하듯 마구 흔들리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손수건으로 눈곱을 훔치고나서 말을 이었다.

《나는 수남동무의 이 론증을 심장의 무게로 간주합니다. 것처럼 무겁고 뜨겁게 불타는 심장이 밝혀내지 못할 과학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나는 선군시대과학자의 심장이 과연 어떻게 불타야 하는지 오늘 똑똑히 배웠습니다. 나는 그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불시에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지용은 눈물짓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지나 수남에게로 다가갔다.

《수남이, 날 용서하게.》

《선생님, 너무 이리저리 마십시오.》

수남은 어깨를 떨구고 서있는 지용의 앞에서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장하오, 난 동무와 같은 과학자를 알고있었다는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오.》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번에도 론증을 틀어칠 실머리를 찾지 못했을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은 저를 고무해줬습니다.》

《원, 사람두... 내 듣기에 부끄러운 소리를 또 하는군.》 .

박수소리가 또 터졌다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지은 얼굴을 하고 눈에 물기를 머금은채 그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고있었다.

며칠후 그 어느 관개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화같은 사변이 벌어졌다.

바다수위가 최대만조기로 오른 그날부터 수억여만립방의 바다물량이 감문을 통해 련4일이 걸쳐 대동강으로 흘러들었다.

강이 무섭게 범람하기 시작했다.

강과 접한곳들에서 영문모를 《큰물》로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것은 신비의 조화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연구소에서는 강의 여러곳에 측정초소를 정하고 매시각 물의 염도를 알아보게 했다. 결과 강물의 염도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을뿐더러 어떤곳에서는 염도가 종전보다 더 떨어져 령상태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은 인간의 심장이 가지고있는 무서운 힘에 대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인력을 의미할것이다. ...

그날 리수남은 대정별양수장에 나가있었다.

장성두는 노상 양수장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양수기는 순간도 쉬임없이 물을 퍼올리고있다.

《웅-》

대형양수기의 둔중한 음향, 물 쏟아지는 소리 관개수로를 따라 물이 미여지게 철철 흘러가고있었다. 허영게 말라버렸던 들판은 거뭇게 젖어가고있다. 땅이 제 빛깔을 찾기 시작한것이었다.

그들은 물이 흐르는 관개수로의 쪽우에 앉아있었다. 장성두가 새삼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연구사선생, 학자들이 늘 말하는 성공이란게 이런걸 보고 그러는게 아니우?》

《그렇겠습다.》

《딱히 말해주시우. 난 성공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두 보기는 힘습디다.》

《...》

수남은 대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기에는 자기의 언어적표현력이 몹시 빈약함을 은연중 느꼈다.

그것은 오직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대답이었던것이다.

문득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끼릭, 끼릭...》

강쪽에서 두마리의 흰갈매기가 날아왔다. 그것들은 환희에 겨운듯 련속 울음소리를 내며 벌써 거뭇게 젖고 불빛이 번쩍거리는 들판우를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첩첩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엄혹한 환경속에서 말그대로 신화적현실을 창조한 선군시대 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 만년성벽

최윤철

### 제5장

정치지도원 심봉혁

《13호, 14호 태풍때였습니다  
물은 시간마다 쭉쭉 차올랐지요  
우린 그때에야 물이 무섭다는것을  
다시금 알았습니다  
머리칼이 다 곤두섰지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은것은  
오직 하나  
이 제방을 못지키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지 못한다는 자각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보며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여기는

긴급비상회의가 열린 도당책임일군의 방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아  
생각의 길을 열지 않는데  
방아찢던 손이 멈춰서더니  
쿵 내려치더니  
《현장으로 나갑시다!》  
잘라매듯 결속한다  
파르릉 파르릉  
순간 울리는 전화종소리  
마음과 마음 못박아놓는듯  
태풍이 터졌다는 소식인가  
제방이 위험하다는 소식인가  
긴장해진 눈빛들이  
책임일군을 바라보는데  
웃기t 여미며 정중히 전화받는 그

《경애하는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흠칠 일군들의 가슴은  
드높이 울렁인다  
굳어지는 몸  
간절한 눈빛

타는 그리움

《수고합니다!》  
우렁우렁 울리는 장군님의 음성  
온 방안에 가득 차는듯

《태풍맞을 준비 한단 말이지!...  
책임비서동무!  
나의 병사들을 보내주겠으니  
우리 인민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번 태풍을 맞받아 치시오!》  
《장군님! 알았습니다!》  
힘있게 울리는 장군님의 음성  
시간과 공간을 타고  
해살처럼 퍼져가는듯

《우리에겐 우리의 힘이 있소!  
조선의 힘!  
그것은 곧 일심단결!  
이 힘이 있는 한  
우린 반드시 승리할것ियो  
우리 군민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란 세상에 없소!》  
순간  
산악같은 거대함이  
가슴에서 일어번지는듯  
《장군님! 가슴이 활 열립니다!》  
...

현장으로 달려간 일군들  
청년들의 손을 잡았다  
장군님의 믿음에  
청년들은 불덩이로 변한듯  
온 팡포 온 시내  
온 도가 떨쳐섰다  
즉시 달려온  
군인들의 걸음에도 불이 붙을듯!

파르릉 팡!  
시퍼런 불줄기 짹  
하늘이 두눈을 잃은듯

드르릉 드르릉 떨어다  
 사납게 박히는 비발  
 폭풍이 덮쳐들었다!  
 천막을 눌러놓은  
 한아름 장식도 허공 날렸다!  
 드디어  
 자연과의 판가리결전이  
 이 광포땅에서 벌어졌다  
 류레없는 태풍이  
 온갖 자연의 무기를 휘몰아왔으니  
 제방과 키다툼하는 물결  
 창-창 들이받는다  
 그 서슬에 당장이라도 터질듯 한 제방

마대와 마대가  
 제방에 살을 붙인다  
 꼬리잡듯 차들이 들이닥쳤다  
 해불바다 끓고있었다  
 소랭이를 머리에 인 너인  
 맞들이든 로동자들  
 방송차의 방송원이 웨친다  
 《제방을 사수하자!》  
 피줄이 일어서는 삽질이며  
 땅을 흔드는듯 한 달음소리  
 흐르는 땀도 끊어번지는듯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  
 도전하는 자연을  
 지켜만 볼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걱정만 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들속엔 갓 시집은 새각시도  
 심철의 어머니도 보인다  
 날씨를 보며 잠못들던 마음들이다  
 그들속엔 안해며 누이동생  
 대학생동무들도 보인다  
 어찌 방안에만 앉아있으랴  
 머리흰 로병들도  
 인민반사람들도 보인다  
 인사도 안부도 나눌새 없이  
 제방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

물어 보라! 력사여!  
 누가 이들에게 명령했더냐  
 애국이 있는 곳엔 인민이 있었고  
 인민이 있는 곳엔 애국이 있었다!  
 침략의 발굽을 꺾어놓는  
 의병의 기치를 높이 든것도 그 인민  
 《시일야방성대곡》의 피터진 주먹따라  
 독립군의 화승대를 따른것도 그 인민  
 아아! 그 인민은  
 얼마나 뼈아픈 진리를 깨우쳤던가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자기의 큰 힘도 빛을 잃음을  
 노예의 멍에를 들쓰게 됨을!  
 물어보자 력사여!  
 너는 항일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해빛으로 발산하는 인민을 불제  
 가슴깊이 깨우치지 않았더냐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은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기치아래  
 래일의 부강조국을 부르시나니  
 선군이란 애국이란 말  
 애국이란 단결이란 말  
 그렇다!  
 그 애국의 주인은 인민이기에  
 자기를 지켜 자기 힘을 다해  
 인민은 장군님을 굳세게 받든다

《분대장동지!》  
 돌아보던 심철이  
 와락 두손 잡는다  
 어제날의 상등병  
 어느덧 부소대장이 되었구나  
 장군님 함께 모신 잊지 못할 전우  
 거치른 태풍은  
 전우들의 상봉마저 허락치 않았으니  
 전우들도 뛰고  
 심철이도 뛰고  
 왕청유격구의 뽕죽산이  
 1211 고지의 전호가  
 여기에 다시 솟은듯  
 모두가 한덩어리다 한숨결이다

파르릉 팡!  
 우--우- 처절쌩!  
 감탕으로 범벅이 된 《감탕》사람들이  
 온몸이 눈이 된듯 호수를 바라본다  
 광광 울부짖는 광포호수  
 좋다, 사나운 갈기를 날리는 물결아  
 어디 맞서보자  
 태풍이 이기느냐!  
 사람이 이기느냐!

《동무들!  
 제방에 천막대고  
 마대를 쌓읍시다!》  
 돌격대장의 목소리  
 사나운 폭풍을 답새기듯 올렸다!  
 뒤서는이 누구냐  
 결사의 정신이 기적을 놀래운다!

마대멘 심철이 따라  
창오도 명주도  
걸음의 폭을 넓힌다  
불꽃이 등골로 흘러내리는듯!

《제방밑을 보라!》  
갑자기 멈춰서는 심철의 목소리  
세쌍의 눈길 아찔해진다  
급정거한 차모양  
혈떡이는 숨결 멈추지도 못한채  
보이지 않는 악마와도 같이  
집요한 물결은 제방밑을 뚫고있었다!  
사납게 뱀을 뿔듯이  
칼칼 토해들고있었다

심철이 옷을 벗는다  
《형님, 나도!》  
창오 따라선다!  
《넌 안돼!  
마대나 날라와!》  
《명주누이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심철  
그제야 처녀의 존재를 느낀듯  
《저도 함께...》  
《안되오! 동문!》  
아프게 떠미는 손  
사랑이 눈에서 타고있었다  
좌석에 이끌리듯  
다시 매달리는 처녀 핵 밀치며  
《못들었소! 명령이요!  
어서 마대를!》

그다음  
그다음엔  
와락 끼안은 두 청년  
맨처음 심철이가 뛰어들었다  
마대안고 물속을 뚫었다!  
뒤따라 창오도 날아내렸다!  
물구멍을 향해  
불뿔는 화구 맞받아 나가듯이  
이 나라 청년들은 나아간다  
물구멍! 물구멍!  
단순한 자연의 도전이 아니다  
원썬들과의 말없는 격전이  
여기서 벌어진다  
여기서 판결된다!  
드디어 물구멍에 마대자갈 물리웠다!  
그러나 물러설수 없었으니  
드센 물살 덧막은 마대 차버리려 하나니  
다른 구간에서도

전투가 불을 달았다!  
총탄같은 비발에  
감탕은 파편마냥 날리는데  
억척의 정신이  
제방에 마대를 쌓는다!  
한돌기 쌓아지면 동시에 물러나며  
다시 막고 다시 쌓으며  
그러길 그 몇번  
우뢰소리 폭우소리 누르며  
장엄한 《적기가》가 터져올랐다!  
군단포의 퇴성인양  
우렁차게 울리는  
군민의 합창이여  
이 노래  
자연의 허리 꺾어놓은듯  
어느덧 태풍은 기가 죽었다!  
허리끈이 풀린듯  
한숨을 들이긋더니  
점차점차 맥을 놓는다!  
다만 호수만이 안간힘을 모두어  
뱀뿔이하듯 제방과 다투다...

《창오!》  
《심철동지!》  
애타는 처녀의 부름소리  
손톱이 피나게 땅을 긁는듯  
《동무들!》  
처녀의 부름소리  
마대안고 명주 뛰어내린다  
과도우를 날아넘던 병사시절처럼  
물속으로 총알처럼 날아내린다  
긴장한 전투로  
구석구석 살펴볼수 없었던 정황이 아니었던가!  
뒤미처 달려온 동지들과 전우들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중대장이 심철이를 찾았다  
물속은 캄캄해도  
어찌 동지의 숨결 모르랴!  
딱 마대를 틀어쥔 옆에 창오도 있었다!

그들을 품에 안고 제방에 올랐을 때  
심철의 심장은 가늘게 툵-툵-  
그러나... 그러나 창오는 기척이 없다!  
《창오야!》  
무너지는듯 한 부름소리  
마디마디 뼈를 긁는듯  
애절한 부름이 창오를 흔든다! 깨우려나!  
젖은 머리 봉대처럼 손가락  
툽이 진 입술  
《창오야!》

명주의 부름소리  
가슴을 비틀어 당기는듯  
돌격대의 막내가 창오  
웃음도 많고 꿈도 많던 창오  
아픈 비판도 많이 받던 그  
남다른 사랑도 많이 받던 그  
병사들이 모자를 벗었다  
뜨거운것이 번쩍인다!  
누가 이 땅엔  
가슴아픈 희생이 적다고 하느냐!  
그 몇몇해이던가  
우리 겪은 시련의 날과 날은  
우리 이겨낸 그 모든 달과 해는!  
아! 저 청춘제방에 스며있는  
청춘의 땀은 물이 아니다!  
한줌의 모래에도  
돌격대원들의 땀이 스며여있고  
하나의 장석에도  
높뛰는 맥박이 울리고있나니  
부디 잊지 마시라  
어깨인양 솟아오른 저 제방은  
어찌하여 이처럼 높고 튼튼한지  
부디 잊지 마시라!  
가슴인양 펼쳐진 저 논벌은  
어찌하여 이처럼 후더운지를!

눈물을 씹으며 대원들은 서있다!  
최후의 그 순간  
창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무슨 말 하려 했을까!...  
맨처음 돌격대장이 창오를 안았다  
중대장이 맞안았다  
천천히 대오를 헤치며 나간다  
붉은기에 휩싸인듯  
뜨거운 동지들의 심장에 받들려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 제6장

마을할머니 길성녀  
《사실 우린 믿지 않았겠수다  
일제놈들때에도  
광포호수를 개간하려 했지만  
끝내 못했지요  
아니할 말로 제방을 쌓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겠수다  
정말 장군님께서 키워내신  
우리 청년들이 다릅니다  
애먹인 일이요?  
에그, 그사 내 아들 내 딸이다 하고  
생각하면 무슨 큰것이겠수!

〈고난의 행군〉 시기  
집을 떠나 부모결을 떠나  
그들이 흘린 땀은  
아마 저 호수보다 더 많을거웨다!》

×

특보관이 웃는다!  
꽃다발을 그러안고  
꽃보라를 뿌리며  
12명 청년돌격대원들  
조선로동당 입당을 축하!  
특보관이 웃고있다  
수수한 돌격대속보관이다!  
신문에 한번 나보지 못한  
평범한 이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속보관!  
어찌다 한번  
자기의 이름 새겨지면  
남몰래 나와보며  
마음속에 사진찍던  
그 깨끗한 기쁨도 스며인 속보관!  
돌격대의 낮과 밤을 날날이 새겨온  
말없는 기록수  
너 속보관아!  
입맛잃은 동지 위해  
얼음까고 잉어잡던  
심철의 숨결도 알고있겠지  
2월 16일 경축의 밤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절절히 노래부르던  
명주의 모습도 기억하겠지...

지휘부병실문을 깨우며  
손기척이 울렸다!  
《누굽니까!》  
정치지도원의 목소리  
세끼 밥을 안먹고 폭 자겠다던  
중대장도 일어났다  
충혈진 눈 부비며  
《무슨 일이요?》  
그의 목소리 따뜻하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  
언제 쉬는 날을 알고 산 이들이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잠들수 없는 이들-  
《웃마울 성녀어머니랑  
마을사람들이 왔습니다  
입당한 동지들을 축하하려고  
겸사겸사 명주동무 생일도...》  
직일병의 목소리 기쁨에 찢다  
왜 그렇지 않으랴!

혈육의 정을 대신해주던 마을사람들  
 때로는 김치생각이 불같이  
 한밤중 문두드려도  
 옷은 낮으로 반기던 사람들  
 누가 생일이라면 밤새워 쿵덕쿵덕  
 흰눈같은 떡도 빚어내던 마음들!  
 귀중한 사람들이다!  
 어찌다 특식이 생긴 날에도  
 물먹으러 찾아온 돌격대원 손을 잡아  
 종이에 싸 주머니에 넣어주던  
 후더운 인정미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장군님  
 참 좋은 인민이라 부르셨나니  
 그 인민의 아들딸들이  
 제방을 감탕속에 뿌리박았다!

태풍을 이겨낸 뒤  
 이들의 생각  
 자기들이 저 제방을 쌓았다는것이  
 믿어지질 않아  
 꼭 남이 해놓은것만 같아  
 둘러보니  
 하늘도 푸르고  
 호수도 푸르고  
 무엇인가 맘속에서 푹 떨어진듯  
 그러다도 다시 제방만 보면  
 가슴은 금지로 부풀어오르나니  
 안먹어도 배부르고  
 어텐가 막 소리라도 치고싶은  
 태풍을 이겨냈다고  
 목청껏 웨치고픈  
 지나가는 사람도  
 리유없이 붙잡아세우고  
 이번엔 제방이 안터졌다고  
 두서없이 말하고싶은 마음  
 제방이 안터졌는가고 물어보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돌격대원들!

절대로 제방을 못막는다고  
 쭈군대던 사람들도 있었다!  
 회의할 땐 할수 없이 손을 들고도  
 돌아앉아 고개젓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저 불같은 청년들에게  
 합쳐지고 이끌리며  
 신념이 무엇인지 깨우치지 않았던가  
 미더운 우리의 청년들  
 오늘의 현실이 꿈만 같아  
 다시 머리들어 바라보는 제방  
 애인처럼 끌어안고만싶은 제방!

기쁨에 기쁨 겹치었는가  
 정치지도원의 안해  
 아직은 아버지를 못본  
 아들애를 업고 찾아왔구나!  
 누구나 첫 자식은 아들을 원한다  
 딸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을 바라는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아들이  
 세상에 첫 울음 터친 날에도  
 그는 감탕과 싸웠다!  
 아직 귀여운 아들애에게  
 사랑 한알 사준적없는 아버지  
 그래서 사진속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먼저 알아보는 철부지

정치지도원은 말없이 장을 열고  
 심철이 깎아만든 나무권총 만져본다  
 명주가 째짤이 뜨고픈  
 애기옷도 쓸어본다  
 아들아! 너는 아느냐!  
 아버지는 너와 헤어져있어도  
 늘 너와 함께 있었음을  
 모두가 너를 보고싶어 했음을  
 그래서 깊은 밤 제방을 거닐며  
 아들과 많은 말 하고 또 하는  
 이 나라의 젊은 아버지

그리웠다!  
 보고싶었다  
 젓살오른 능금불  
 빠금히 눈을 찢을 하얀 이발도  
 둥둥 높이 안아주고도 싶었다  
 안해와 나란히 무릎에 앉혀  
 단란한 가족사진도 찍고싶었다  
 이제 너희들이 자라 우리 나이 될 때  
 이 제방에 너희들을 앞세우고  
 우리의 청춘시절 이야기하리라  
 이 청춘제방이  
 너희들에게 주고싶던 사랑이었다고  
 너희들에게 주고싶던 행복의 선물이었다고...

돌격대 축하상이 퍼졌다!  
 식당근무처너들의 정성도  
 마을사람들의 성의도  
 살뜰한 안해의 마음도  
 식탁우에 꽃을 피운다!  
 음식내 흥그러이 감돌아퍼지는데  
 일어서는 돌격대장!  
 《동무들!  
 오늘 우리는 여러 동지들의

조선로동당 입당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지들!  
우리 장군님의 이 사랑 이 믿음을  
영원한 사랑으로 간직하고  
더 훌륭한 인생을 수놓아갑시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메아리를 울린다!  
생의 열정을 지핀다!  
《이 자리엔 없지만  
창오동무에게도  
〈김일성청년영예상〉 이 수여됐습니다…》

다시 울리는 박수소리 박수소리!  
너는 추억의 안내자인양  
지나간 일들을 불러 깨우며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주거늘  
그속에선  
장석실은 때목 밀던  
도하전도 다가오고  
감탕우로 소랭이 밀어 흙을 나르던  
처녀들의 소랭이전도 겹쳐진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너는 무엇을 웨치는가  
너는 무엇을 새겨주는가  
판자짚고 걸음걸음 전진하던 보복전도  
마대신고 달리던 썰매전도 평긋한다  
배를 끌던 바줄전도 힘줄을 일으키고  
함마전의 불꽃도 식지 않는다  
추위와 배고픔도 절절한 그리움도…

《어, 이 녀석 잘도 생겼다!  
본판을 닮았군!》  
떠들썩 웃으며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정치지도원의 아들은  
돌격대의 아들인가!  
아버지가 제방 쌓느라  
부모들이 대신 이릅지었다고  
섬섬한 룡말도 오간다!  
《정치지도원동지!  
다음번 아들엔  
〈제방〉 이라 지읍시다!》  
장석소대 질군들이 걸어챌다!  
《딸이면 어찌겠소!》  
《그러면 〈풍년〉 이라 짓지!》  
떠들썩 웃음소리 쥐여박듯 오간다  
정치지도원은 말없이 웃고  
그의 안해 눈빛도 밝게 웃고

만시름 풀어버린 오늘의 한초한초는

휴식의 하루하루처럼 느껴지나니  
또다시 오락회가 허리잡았다  
프락에선 녀인들의 칼도마소리  
안에서는 노래가 제비처럼 날았다  
좋구나! 이런 때 이런 순간은  
쌓아올린 궁지없이야  
어찌 즐거움의 참맛을 알라!  
좌석이 흥성일수록  
기쁨이 고조될수록  
지휘관들 생각은  
고개넘어 또 넘어  
병원으로 달는다  
얼마나 좋으랴!  
심철이도 명주도 함께 있다면  
더우기 오늘은 처녀의 생일

병원의 하얀 침대보우에  
심철이 말없이 누워있는데  
처녀는 조심히 그결에 앉고  
《방송을 끄자요!》  
바늘끝처럼 예민해진 신경  
잠재워주려는 처녀의 마음  
《아니, 끄지 마오!  
보도시간이 다 됐소!  
이제라도 장군님 찾아오실듯싶어…》  
《예-에?》  
처녀의 온몸이 그대로  
물음표가 되는듯 감탄표가 되는듯  
천천히 일어나  
글썽해진 청년의 눈을 보다가  
그만 그의 손에 얼굴 묻는다  
《심철동지!》  
처녀의 맑은 눈물이  
청년의 손을 뜨겁게 적신다!  
《명주!》  
창가의 일일초도 꽃이 피고  
밖은 따듯하다  
새들의 우짖음소리  
《명주!》  
보풀이 질 정도로  
불러보는 이름  
뜨겁게 포옹해보는 처녀의 이름  
조용히 말없이 처녀의 까만 머리  
쓸어내린다  
아, 사랑이란 무엇인가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너무도 많이 보고 많이 듣던  
애타는 그리움인가  
절절한 노래이던가  
열렬한 고백은 해 무엇하리  
때로는 평범한 부름이

그 진정을 대신하나니  
 사랑이란 무엇인가  
 비오는 날 씩씩하던 우산이던가  
 눈오는 날 여머주던 솜옷이던가  
 자신을 먼저 생각지 않는  
 바치고만싶은 정이 사랑이라고  
 이 나라 청년들은 말하나니  
 그렇다!  
 사랑은 두 심장이 하나가 되어  
 더 큰 박동으로 미래를 부르는것!  
 창조의 열정으로 들끓는  
 자기의 젊음을 돌도 없는 사랑을  
 귀중한 조국에 아낌없이 드린다!



무엇인가 꼭 하고싶은 말을  
 격식없이 하고싶어라!  
 이런 날 이런 때는!  
 시란 다름아닌 고백이기에!  
 《처장아바이  
 참모장동무!  
 용서하시라!  
 아버지별 형벌인 그대들에게  
 동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는것을!  
 이렇게 부르며는 한가마밥 먹는  
 한 성원처럼 생각되어  
 용서하시라!  
 짧지 않은 이 시에  
 정해진 주인공 따로 없는것을  
 들끓는 이 전투장이  
 사실 그대로가 시이고  
 돌격대원모두가 주인공이기에  
 시인의 상상이  
 사실보다 위대할수 없기에  
 돌격대를 주인공으로  
 생활을 사실대로 노래하고싶었습니다!

나의 시의 주인공들이여!  
 미처 못지운 뺨의 감탕을  
 물뿔의 구수한 향기를  
 그대로 담았다고 나무람마시라  
 종자며 구성이며 문장이며  
 내 이제껏 시를 쓰는 묘리를 배워왔건만  
 이 현실앞에선 모든것을 잊었습니다  
 불쑥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  
 그대들이 힘겨움을 깨물 때  
 나는 어데서 무엇을 했던가...  
 하지만 나는  
 그대들앞에 머리들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대들이 언밥을 먹을 때  
 깊은 밤 폭우와 싸울 때

기숙사의 불등아래서  
 창작실의 추위속에서  
 창작의 두눈을 불태웠기에  
 고난을 이겨낸 차이는 있을망정  
 량심에 부끄럼없이 나설수 있었음을

장군님품에서 배우며 자란  
 우리 젊은 시인들은  
 앞뒤가 다른 글을 쓸줄 모르나니  
 미더운 주인공들이여!  
 그대들이 안아세운 저 제방은  
 멈춰설줄 모르던 붉은기이며  
 고난을 들어내친 지레대이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기억속에 더 푸를  
 참된 시여라...》

## 제7장

참모장; 리지명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일줄 알면서도 믿어지질 않아  
 다시 묻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실줄이야...  
 더 묻지 말아주시시오  
 우리는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어둠이 화가인양  
 연하게 색깔을 칠해가는데  
 진눈까비 소리없이 땅을 적신다  
 구리빛어깨인양 들직한  
 수십리 제방의 요람에 안겨  
 수백정보 새땅이  
 다리펴고 잠에 든다!  
 차거운 날씨를 피해  
 집집의 대문들도  
 어서 오라 따뜻이 불러주는데  
 눈부시게 불빛이  
 해살처럼 퍼져온다  
 소리없이 달려오는  
 승용차불빛 승용차불빛  
 그 빛에 드러나는 새땅은  
 기름을 바른듯 더 포살져보이는데  
 아, 그렇게도 그리워  
 뵈고싶어 소원하던 우리 장군님  
 광포제방에 찾아오셨다!》  
 그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소문도 없이 오시리라고  
 이런 날씨에 찾아오시리라고



차문을 여시고 그이 내리시자  
 이 무슨 천지조화인가  
 찌프렸던 하늘이 주름을 펴고  
 진눈까비가 싹락눈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이 내신분이시여서  
 그 하늘도 알아보는가  
 파장도 허구도 아닌  
 너무도 놀라운 자연의 이 조화!  
 마치도 광포땅의 햇살처럼  
 싹락눈을 보라같이 뿌려드리는듯...  
 성큼성큼 빠르게  
 걸음을 옮기시며  
 우리 청년들이 뭘하느냐고  
 다정히 물어주신다!  
 휴식하고있다니 봐두라고  
 그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고  
 그래도 우리는 야전차에서라도  
 쉬곤 하지 않는가고...

아! 장군님의 야전차!  
 그것은 집이였고 집무실이였다  
 최고사령부였다!  
 고난의 눈비도 그어주었고  
 선군의 화살표를 안고달린 야전차  
 그 길에는 장군님의 신심이 있었고  
 애국의 웨침이 있었다  
 불같은 맹세 용암인양 솟았고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  
 아! 야전차의 쪽잠마저 그리우셨던 장군님  
 사람들이여!  
 산기슭의 샘물을 무심히 뜨지 마시라!  
 그 샘물 우리 장군님 드시였는지  
 그 어찌 알랴!  
 사람들이여  
 들가에 피어난 꽃 쉽게 꺾지 마시라  
 그 들꽃 우리 장군님 쓸어보셨는지  
 그 어찌 알랴!

길게 뻗은 제방을 바라보시며  
 수백정보 새땅을 둘러보시며  
 장군님 우렁우렁 말씀하신다  
 《큰일을 하였소  
 우리 청년들이!》  
 하늘도 땅도 넓어지게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정말 큰일을 하였소!》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신다  
 장군님의 말씀!

그것은 치하였고  
 표창이였다

부모의 정보다 더 뜨겁고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장군님의 말씀!  
 벽찬 고마움이  
 산악같이 푸른 열정 뿜어올린다  
 아! 태양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장군님의 그 말씀!

밤은 어둠을 불러  
 눈을 감기 시작하는데  
 전조등 더 환히 켜신 장군님  
 넘어갔던 해빛을 불러오신다  
 우뚝 솟은 제방을  
 수백정보 새땅을  
 금빛으로 금빛으로 물들이시며  
 태풍을 이겨낸 군민의 모습도  
 다 보이시는듯  
 우리 장군님  
 금시라도 큰 쌀산이  
 가슴속에 솟아오르는가  
 마음 든든해지신다!  
 북받치는 감정  
 누르실길 없으신듯  
 조국의 새땅을  
 한품에 꼭 안아보시는  
 우리의 장군님!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한몸 다 바치고싶으시는  
 우리의 장군님!

미더운 청춘제방을 보시며  
 오래도록  
 잠든 돌격대병실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선 마음속으로  
 뜨겁게 말씀하신다!  
 (고맙소! 동무들!  
 동무들과 같은 청년들이 있기에  
 나는 더 힘을 내어 일하려고 하오  
 이런 만년 끄덕없을 성벽을 안아세운  
 동무들의 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요!)  
 장군님의 눈빛에선  
 해빛이 뿜기신다  
 미래를 확신하시는

열정이시다  
 열정이시다!  
 (이제 이 광포땅에서  
 인민의 행복이 물결칠 때  
 동무들! 내 다시 오겠소

여기에 오리목장도  
더 크게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그 높이신 뜻을  
우리 함께 꽃피우자구!  
난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말어요!)

시간만 있으시다면  
이 한밤 지새도록  
돌격대원들과 함께  
보내고싶으시련만  
장군님께선 떠나가신다  
시간만 있으시다면  
무릎을 함께 하시고  
하많은 이야기 들어도 주시고  
사랑의 말씀도 해주고싶으시련만  
장군님께선 떠나가신다  
팡포땅의 햇쌀밥  
정히 드리고픈  
간절한 성의도 사양하시고  
돌격대원들의 모습인양  
제방을 사진속에 크게 담게 하시고  
또다시 인민위한 복무의 길 떠나가신다

장군님의 사진속엔  
수령님의 력사가 이어지고있거늘  
조국을 빛내이는 그 시간은  
혁명이였다  
기적이였다  
사랑이였다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총대였고  
창조였으며  
배짱이셨다  
진정 장군님의 시간속엔  
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높뛰고있었나니  
한초가 한시간으로 달리는 시간  
한시간이 하루로 날으는 시간  
가장 아끼시는 재부도 시간  
가장 타시는 안타까움도 그 시간!  
아, 한몫 열백으로 나누시여  
그렇게 쓰시고픈 장군님의 시간이여...

청춘제방이여!  
미더운 조국의 또 하나의 성벽이여  
길이길이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여라  
우리는 정녕 어떤분을  
어떤 위대한분을  
이 작은 제방우에 모셨는가를!

아침...  
돌격대원들이 달려온다  
가슴을 두드리며  
발을 구르며  
일군들을 마구 흔들며  
장군님 가신 길로  
정신없이 달려간다  
뒤늦게야 알고온 돌격대원들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라갈듯  
심철이도 명주도 보인다  
참모장도 중대장도  
목메여 부른다  
부름소리 하늘땅을 울린다  
《장-군-님!》  
울리며 퍼지며 감돌며  
메아리는 잦을줄 모른다  
장군님 야전차의 자욱마다에  
고마움이 뜨겁게 흘러내린다...

그로부터 얼마후  
사랑을 안고오신 그 길로  
사랑을 싣고  
프락토르들이 들어섰다!  
감격이다!  
눈물이다!  
목메임이다!  
돌격대원들의 만세소리  
또다시 울렸다!  
만세소리 만세소리  
멈출줄 모르며 울려퍼졌다  
아! 저 만세소리는  
아버지장군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진실한 인사라고  
제방도 머리높이 들고 웨치고있었다  
웨치고있었다!

## 마감시

높이 솟아 길게 뻗은  
청춘제방우에서  
젊은 시인은 고백하나니  
조국이여!  
너는 다 알리라!  
민족의 대국상이 있었던  
다음해 정초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우리의 장군님  
그렇게 옮기신 걸음으로  
수령님 물려주신

이 땅이 인민을 지켜  
결사의 성벽을 쌓으셨나니  
그이 언제한번 편히 쉬신적 있었던가  
가고 또 가시고  
찾고 또 찾으시고...

그렇게 쌓으신  
이 땅의 성벽이다  
다박술초소, 판문점  
안변청년발전소며  
청년영웅도로  
성벽과 성벽이 솟아올랐다  
오성산과 칠령  
성강의 봉화며 강계정신  
대흥단과 과학원  
성벽과 성벽이 손을 잡았다  
광명성제염소며  
발전소들  
칠보산과 송암동굴  
방방곡곡에서 벌어진 토지정리...

조국이어! 기록하라!  
우리의 장군님 앞장에서 헤쳐가신  
고난의 날과 날은  
사회주의성벽을  
쌓으신 력사이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으랴  
얼마나 힘겨움을 깨무셨으랴!  
손꼽아 기다리는  
설맞이무대를 뒤에 두시고  
봉쇄를 압살을 맞받아치신  
장군님의 큰 주먹  
성벽이어! 너는

다름아닌 우리의 일심단결!

그렇다!  
이 땅에 솟아오른  
만년성벽이어!  
너는 정녕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장군님의 신념  
장군님의 의지  
장군님의 사랑이  
장군님을 닮고 솟은  
단결의 성벽이다

그 어떤 핵탄보다 강한  
이 힘으로 우리는  
원썬들 보란듯이 도도히 나가나니  
누구시냐!  
이 위대한 세계를 창조하신분은  
그이는 다름아닌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그래서 성벽의 이름은 일심단결!  
성벽의 표대는 강성대국!  
위대한 성벽은 노래한다  
영웅적청년들은 웨친다!  
《사회주의 만년성벽을 쌓아주신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성돌처럼 굳세게  
성벽처럼 튼튼히  
지키리라!  
받들리라!  
천년토록  
만년토록  
무궁토록!》

## 토막상식

# 고구려시기의 쇠뇌(기계화)

B.C. 1세기~A.D. 1세기의 유물로서 운송리유적(자강도 전천군)에서는 1개의 쇠뇌(노)가 발굴되었고 평양시 정백동 1호무덤과 8호무덤 및 37호무덤에서는 각각 2개씩의 쇠뇌가 발굴되었다.

이 쇠뇌들은 그 구조와 동작원리 및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특히 쇠뇌들에 오늘날의 무기에서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어서 그 우수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하기에 다른 나라의 무기전문가들도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천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던것이다.

## 독도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땅인 독도는 울릉도남단의 간령말에서 남동쪽으로 92.6km정도 떨어져있는 섬이다.

이 섬은 물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통추갑에서는 북동쪽으로 218km거리에 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모동리에 속하며 동도, 서도 등 수십개의 바위섬들과 암초들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서도의 면적은 0.104km<sup>2</sup> 이고 둘레는 1.74km이며 높이는 해발 171m 이다. 그리고 동도의 면적은 0.056km<sup>2</sup> 이고 둘레는 1.26km이며 높이는 해발 93m 이다. 화산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섬으로서 동도의 마루에는 아직도 분화구의 흔적이 남아있다.

섬은 깎아지른듯 한 험한 바다벼랑에 둘러싸여 있다. 동도의 북동쪽 해안에 작은 만입부가 있어 고기배들의 유일한 대피소로 되어있다.

독도의 기후는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바람이 세다. 이곳에는 나무가 없고 동도 남쪽바다가

에 있는 10여m<sup>2</sup>의 평지와 바위틈들에 잡풀이 있을뿐이다.

그리고 섬에서는 새들이 많이 살고있다.

섬주변 바다에는 고등어, 멸치, 굽등어, 오징어, 낙지, 전복, 미역 등이 있다

독도라는 이름은 원래 울릉도주민들이 《조선동해의 고독한 섬》이라고 부르데서와 경상도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는수가 있어 《돌로 된 섬》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독도는 오랜 옛날부터 세상에 공인된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이다. 하지만 강도적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까지도 엄연한 역사적사실들을 날조하여 이 섬을 마치 제놈들의 령토인듯이 외곡선전하고있다. 놈들은 일찍부터 이곳에 기여들어 물개를 비롯한 막대한 수산자원을 약탈하여갔을뿐아니라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적목적에까지 리용하였다.

8.15조국해방후 독도는 미제침략자들의 폭격연습장으로 리용되었다.